

第108回國會 文教公報委員會會議錄 第19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81年11月26日(木)

場 所 文教公報委員會

議事日程

1. 國史教科書內容是正要求에 관한請願

陳述人

가. 安浩相 나. 崔永禧 다. 朴時仁 라. 金哲垓 마. 李龍範

審査된案件

1. 國史教科書內容是正要求에 관한請願(公聽會) 1面

(14時11分)

○委員長 韓柄來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9次 文教公報委員會를 開議합니다.

1. 國史教科書內容是正要求에 관한請願(公聽會)

○委員長 韓柄來 議事日程 第1項 國史教科書內容是正要求에 관한請願을 上程합니다.

本 請願의 審査處理方案에 대해서는 이미 委員 여러분께서 지난 24日 第17次 會議에서 公聽會를 開催하여 專家의 의견을 들도록 議決한 바 있으며 日時 場所 陳述人 등의 選定은 委員長과 幹事에게 一任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本人은 幹事委員들과 協議하여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公聽會를 갖도록 하고 陳述人으로서는 斯界의 權威者 열두분을 모시기로 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公聽會의 開催에 즈음하여 委員長으로서 먼저 人事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尊敬하는 委員 그리고 이 자리에 參席하신 文教部長官과 學界 教授 및 來賓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委員長으로서 지난 9月30日에 各黨에 所屬된 19人議員의 紹介로 提出된 國史教科書內容是正要求에 관한請願을 當委員會에서 審査하기에 앞서 人事드리게 된 것을 意義깊게 생각합니다.

大抵 뿌리 깊은 나무가 쓰러지지 않듯이 歷史의 뿌리가 깊은 民族은 國難의 試鍊속에서도 결코 滅하지 않고 綿綿히 그 大統을 萬代에 이어가는 것은 古今의 歷史가 가르키는 自明한 眞理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韓民族은 5千年의 悠久한 歷史를 內外에 標榜하면서도 아직까지 日本歷史보다 길어 서는 안되는 部分인 漢四郡以前의 2千年이 넘는 古朝鮮의 民族史가 體系的으로 定立되지 않은 채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祖上이 누구인지 조차에 대한 國史學의 論議가 紛紛한 狀態에서 國民教育用 國史教科書에까지 그 實體가 整理되지 못하여 자라나는 靑少年에게 祖上의 뿌리를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國祖 檀君의 開國精神인 弘益人間의 理念으로 人格을 完成하고 自主的 能力과 公民의 自覺을 갖추게 한다는 教育의 基本目標에 어긋나는 結果를 自招하였읍니다. 따라서 祖上의 業과 民族正氣를 이어받아 民主國家發展에 奉仕하며 人類의 平和와 共榮에 이바지하여야 할 教育文化는 그 敎行을 가져온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西歐의 近代文明이 韓末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 導入되지 못하여 우리의 歷史가 近代學問으로서 體系化되지 못한 狀況에서 韓·日合併의 恥辱을 맞게 되었습니다.

日帝의 支配下에서 植民帝國主義가 팽배하던 當時의 世界趨勢에 힘입은 日本이 우리 歷史의 叙述主體가 된 가담에 그들의 永久的인 植民統治와 合併을 正當化하기 위한 造作된 史觀에 立脚하여 學問으로서 우리의 國史學이 叙述된 것은 누구도 否認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祖國의 光復을 맞은 우리는 그후 한 번쯤은 우리 歷史의 叙述主體와 造作된 史觀

에 대하여 再檢討하고 批判하여 우리 歷史를 찾는 國民的인 大討論을 당연히 가졌어야 함에도 不拘하고 그러한 過程없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學界가 그 동안 國史學의 研究와 發展을 위해 至大한 貢獻을 한 것은 事實이나 그 業績을 尙今까지도 民族正統로서 異論없이 받아 들이지 못하고 論難이 되고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結果 國史의 學問分野에서만 아니라 國民教育의 基本이 되는 初中 高의 國史教科書에까지 우리 歷史의 正統性에 대한 疑問이 提起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이와같이 論難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意識 또는 無意識中에 潛在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우리 歷史教育의 問題點들을 嚴正한 中立的 立場에서 이를 克服해 새 歷史創造의 基本이 되는 史觀 및 國史教育의 重要性을 再認識하고 再檢討할 時點에 왔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自主的인 哲學과 民族正統을 承繼해 나갈 史觀의 定立위에 새로운 民族의 價値觀을 樹立하고 새 文化暢達을 위한 國民의 倫理觀을 確立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當面한 國家指標가 開放社會를 土臺로 한 國際化를 指向하는 마당에 있어 우리 歷史의 뿌리를 確固히 다짐으로써 現代 世界文明의 潮流속에 우리 文化가 流失되지 않고 우리 文化속에 世界文明을 溶解시키고 同化하여 傳統文化를 繼承 發展시켜 祖國繁榮의 基本이 되는 새 文化를 創造해 나가야 합니다.

더우기 우리 民族至上의 宿願인 南北統一의 當爲性이 單一民族의 正統性 維持에 있는 만큼 그 命題에 符合하는 史觀을 定立해야 할 우리의 使命은 더욱 至大하다고 하겠습니다.

文教公報委員會는 이 國史教科書內容是正要求에 관한 請願을 國會法 節次에 따라 慎重하고도 公正한 立場에서 審査 處理할 것이며 本 請願의 重要性을 勘案하여 自由로운 討論을 最大限 保障하여 委員會審査의 記錄을 後世에 남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請願審査가 國史學의 研究를 體系的으로 集大成하는 國家의 支援를 비롯한 國史學界의 強化와 振興을 위한 一大 契機가 될 것임을 確信합니다.

添言하여 우리의 審査가 결코 學問의 自由를 干與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것이 民族主義나 國粹主義 或은 尙古主義의

感想에서 着手하려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明白히 하는 바입니다.

尊敬하는 委員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來賓 여러분!

이러한 當 委員會의 審査의 趣旨를 깊이 諒知하시고 이 國民的 大討論의 廣場에 흔쾌히 參與하시어 아낌없는 聲援과 協調있으시기를 當付하는 바입니다.

저의 人事는 이로써 代하겠읍니다.

다음은 文敎部長官께서 人事말씀이 있으시겠읍니다.

○文敎部長官 李奎浩 尊敬하는 文公委員會 委員長님과 委員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의 國史教育에 至大한 關心을 가지고 계시는 學者 여러분! 오늘 文公委員會가 請願에 爲해서 主催하게 된 이 뜻깊은 모임을 위해서 먼저 主催側의 次元높은 問題意識과 參席者 여러분의 責任있는 協調意識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表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國史教育은 우리의 國民教育의 하나의 中心課題입니다. 人間은 歷史를 통해서 未來를 올바르게 내다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람직한 國史教育을 통해서 우리의 生活共同體로서의 國家의 正統性과 그리고 그에 根據한 體制의 正當性에 대한 信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文敎行政의 責任者로서 오늘외 이 모임이 여러분의 誠實한 協調와 眞摯한 對話를 통해서 우리나라 國史教育의 發展을 위해서 하나의 契機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國史教育은 물론 歷史의 事實에 根據해야 합니다. 歷史는 幻想이 아니고 따라서 造作될 수 있는 性格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歷史를 어떤 教條的이고 觀念的인 圖式에 맞추어서 解釋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意味에서 歷史學도 科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歷史的인 事實이라는 것은 客觀的인 物體처럼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無限한 드러난 또는 감추어진 要素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매우 複雜한 複合的인 性格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態度로 어떤 觀點에서 바라보고 接近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도 다르게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歷史는 어둠에 감추어진 過程을 거쳐서 우리가 一定한 角度에서 내던지는 빛아래 드러나는 性格의 것입니다.

歷史는 單純한 事實의 羅列은 아니고 人間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의 敎訓과 規範의 源泉이고 우리의 價値判斷을 위한 峻嚴한 法庭이기 때문에 歷史學은 역시 科學 이상의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모든 學問研究가 늘 서로 立場과 意見을 달리하는 사람들 사이의 謙虛한 對話를 통해서만 共同的 眞理에 接近하는 것이라면 國史研究도 例外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國會 文公委員會가 主催하는 오늘의 이 모임이 우리나라의 國史研究를 위해서 하나의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國史敎育의 發展을 위한 重要한 契機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主催側과 參席者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表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韓柄來 다음은 本 請願의 紹介議員의 한 분이신 林德圭議員 나오셔서 趣旨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德圭議員 尊敬하는 委員長 그리고 同僚委員 여러분! 本議員은 국민당所屬 論山 公州出身 林德圭議員입니다.

本議員은 國會法 第118條에 依據 權正達議員外 18人의 紹介議員을 代表하여 이 歷史的인 國史敎科書內容是正要求에 관한 請願의 趣旨를 說明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순간은 우리 참된 歷史를 바로 찾음으로써 지나간 半萬年동안 살아간 先祖들 앞에 罪짓지 않고 또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後孫앞에 뉘뉘한 先祖 노릇을 함으로써 우리 民族의 얼을 되찾고 世界萬邦에 우리 民族의 矜持를 심기 위해서 鉅연 참된 歷史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엄숙한 순간입니다. 本議員이 믿기에는 이 자리에 계신 與野議員은 물론 이 史觀을 定立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參席하신 모든 專門的인 史學者들께서도 이 趣旨에는 아무도 異議가 없으실 줄 압니다. 물론 같은 歷史的인 事實이라 하더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史觀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마는 그러나 우리의 狀況은 日帝의 36年이라는 歷史의 斷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先祖들의 빛나는 歷史를 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日本은 우리 歷史를 抹殺함으로써 韓民族의 얼을 抹殺했던 것입니다. 이런 特殊狀況이 엄존했기 때문에 解放된지 36年이 지난 오늘에야 비로소 他國이 아닌 大韓民國 國會에서 이 歷史的인 公聽會를 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請願書의 要旨를 살펴보면

첫째로 現 國史敎科書는 國祖 檀君을 否定함으로써 民族否定과 民族史的 正統性을 否定한 우려가 있고

둘째로 現 敎科書에는 日帝時代의 植民史觀에 의하여 歪曲시킨 事實이 있어 民族的 自矜心의 形成에 심한 害毒을 끼치고 있으며

셋째로 1974年 國史를 바로 찾으려고 했으나 역시 植民史觀을 脫皮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속히 植民史觀에 입각한 國史敎科書를 바로 고쳐 우리 民族의 正史를 確立함으로써 民族의 正統性을 되찾고 先祖들이 세워놓은 빛나는 歷史를 사실 그대로 敎育함으로써 우리 後孫들에게 民族의 良心과 矜持를 되찾자는데 請願의 뜻이 있는 것으로 思料됩니다. 부디 同僚委員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은 趣旨를 勸案하시어 이 請願을 결정함으로써 우리 民族의 國祖 檀君은 물론 中國 唐書 등에 記錄된 百濟가 3世紀부터 北京을 統治했고 5世紀부터는 上海남북까지 統治했다는 등 歷史的인 事實의 眞實與否를 이 자리에서 진지하게 論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韓柄來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겠습니다.

專門委員 나와서 報告해 주세요.

○專門委員 金容鈞 國定敎科書內容是正要求에 관한 請願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이 請願은 1981年 8月31日 서울鍾路區明倫洞 3街52-2 安浩相으로부터 權正達(民正黨) 劉沃祐(民韓黨) 林德圭(국민당)議員등 19人의 議員紹介로 國會에 提出되어 9月1日字로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습니다.

請願經緯를 말씀드리면 請願人 등이 行政府 및 司法府에 國史敎科書內容是正要求를 한 經緯 및 結果는 다음과 같습니다.

1978年10月 請願人등 8人이 行政府에 國史敎科書 內容是正을 要求하였으나 同年 11月 國史編纂委員會는 請願人 등이 歷史를 잘못 解釋

하고 있다고 회답했습니다.

다음 1978년 11월 請願人 등 3인이 文敎部長官에게 같은 趣旨의 訴願을 提起했으나 訴訟法上 要件不備를 理由로 返戻되었습니다.

1979년 2월 및 1980년 9월 請願人 등 3인이 서울民事地方法院 및 서울高等法院에 同旨의 訴訟을 提起했으나 訴訟法上 要件不備를 理由로 主文에서는 棄却을 하였으나 判決理由에 있어서는 대단히 신중하고 진지하게 審議한 結果를 記述하고 있습니다.

이 請願의 要旨는 文敎部가 發行한 現行 初中 高等學校用 國史敎科書에는 日帝時代에 日本의 植民史觀에 맞춰 엮은 소위 朝鮮史의 內容이 아직도 踏襲되어 있으며 그 結果 國民에게는 民族的 自負心의 缺乏 民族文化의 멸시와 外面 政府 및 政治不信 禮儀 道德의 缺如 등 風潮가 造成되어 民族正氣를 무너뜨리는 事例가 蔓延되어 있는 바 이를 止揚키 위하여 害毒의 原因이 되고 있는 日帝植民史觀을 踏襲한 現 國史敎科書를 是正하고 올바른 國史敎科書를 使用하여 教育 本然의 使命을 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要旨입니다.

具體인 國史敎科書의 高칠 點들은 配布한 資料에 收錄하고 있으므로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檢討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歷史”라는 單語는 여러 가지 意味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過去에 일어난 事件들에 대한 研究이거나 또는 過去의 事件들 自體를 指稱할 때도 쓰고 있습니다.

이 請願은 주로 우리의 過去에 대한 歷史學者들의 기록 즉 記述된 歷史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歷史上的 事件들이 記述된 歷史의 필요한 基礎가 깊은 물론입니다. 동시에 歷史家들이 우리 나라의 過去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도 重要한 問題가 되고 있습니다.

歷史上的 事件을 研究하고 어떠한 눈으로 歷史를 보며 어떻게 歷史를 記述할 것인가 하는 問題는 純粹한 學問의 領域에 屬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請願人이 提起한 問題는 우리 歷史의 敘述에 앞서 日本 帝國主義者들이 韓半島의 永久的 植民化라는 野慾아래 우리 五千年의 歷史를 隱蔽하거나 造作한 것이라 하므로

이것은 政治的 領域에 屬하는 問題로서 政治的 審判의 對象이 되며 이런 經緯로 敘述된 歷史가 國家가 公認한 國民敎育用 敎科書에 그대로 혹은 若干 修正된 形態로 轉載 複寫되어 있다면 이것은 “敎育政策上의 問題로서 國民代表機關인 國會에서 審議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임니다.

周知하시느 바와 같이 어느 民族의 歷史에서 그 歷史의 全體 흐름에 있어서 어떤 樣相이나 意味를 우리는 發見할 수 있습니다.

歷史를 보는데 있어서 세가지 主된 疑問은 첫째 歷史는 어떤 樣相을 가지고 있는가 즉 歷史는 어떤 目的을 향해 直線的으로 進行하는가 輪廻하는가 혹은 反復하는가 또는 어떤 形態도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며

둘째로 歷史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헤겔」은 “世界英雄說” 「비코」는 “神의 攝理” 「막스」는 “經濟的 宿命說” 「로인비」는 “挑戰과 應報의 法則” 「슈펜글러」는 “誕生 成長 消滅의 生體說”을 提示하면서 歷史의 過程과 運命을 說明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歷史는 보는 사람의 視角에 따라 각각의 차이를 가지는 것임니다.

세째 歷史의 目的 혹은 追求하는 價値는 무엇인가 하는 問題입니다. 「로인비」는 歷史의 目的은 “普遍的 信仰의 取得”이라 하여 이것이 過去에 일어난 모든 것을 正當化하고 說明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가지 觀點에 볼 때 우리 歷史는 어떻게 비치는가?

一見하여 現재 記述되어 있는 우리의 歷史는 本 專門委員의 생각으로는

첫째 特히 上古史의 部分에 있어서는 끝없는 被優과 植民의 輪廻로써 敘述되어 있고

둘째 歷史를 움직이는 힘은 外勢의 介入과 內部紛爭 不正腐敗 혹은 暴力인양 說明되며

세째 우리 歷史의 目的은 民族의 榮光과 偉大性과는 距離가 먼 不遇한 生存의 持續에 있는양 敘述되어 있습니다.

上記한 세가지의 特性이 果然 우리 歷史의 實體이었는가? 그것이 實體가 아니었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歷史를 쓰고 또 그렇게 理解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하는 問題를 깊이 吟味해 보아야 할 것임니다.

歷史學은 모든 社會科學의 基礎가 됩니다.

初中 高等學校의 教科書를 中心으로 볼 때에는 國史는 國語 社會 道義 倫理 理念教育의 基本이 되며 韓國學에서의 核心도 國史가 될 것입니다.

만일 國史教育에 秋毫의 잘못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全 人文社會科學 教育의 根幹에 影響을 미치게 되며 民族正氣의 頹落을 招來케 될 것입니다.

어떤 民族 어떤 國家이건 그 特有의 知的 情緒的 및 意志의 政治 文化類型이 存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文化類型의 長短點에 따라서 그 나라 政府의 將來와 世界史속의 成敗가 決定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文化는 주로 教育機關 家庭이나 여러 職業 社會 團體의 活動을 통해 한 世代에서 다음 世代로 그대로 傳播되기도 하고 傳播가 斷絶되기도 하며 歪曲 또는 改善되어 傳播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過程을 거치는 文化의 傳播 및 習得現象은 幼年期로부터 初中 高等學校를 거쳐 平生을 통하여 斷絶없이 進行되면서 그 나라의 文化와 文明의 水準과 함께 그 나라의 運命을 決定하게 된다는 것이 現代 人文社會科學者들의 主張입니다.

또한 우리의 自主的 文化는 1910年の 韓·日合併에 의하여 斷絶되고 이때부터 日本의 朝鮮總督府가 主動이 되어 朝鮮史의 編纂事業에 着手함으로써 五千年歷史에 대한 體系的 敘述權을 빼앗기게 되었으며 우리 歷史의 敘述 傳播 및 教育을 그들의 專斷에 맡겨 버리게 되어 實際 國權의 喪失은 35年間이지만 우리 歷史의 喪失은 지나간 五千年에 미치게 된 것입니다.

더우기 韓·日合併을 前後한 段階에서 初中 高 및 大學과 같은 大規模의 大衆의인 公式 教育機關이 最初로 우리나라에 導入되기 始作했고 이렇게 構成된 國史는 그로부터 教育機關이란 傳播媒體를 통해서 3世代에 걸쳐 徹頭徹尾하게 우리의 意識속에 浸여져 왔으므로 그 汚染을 스스로 自覺하고 그에 대한 異議와 反證을 提示하기조차 힘든 狀況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도 事實입니다.

結論의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斯界의 모든 眞摯하고 愛國的인 歷史學者 考古學者 및 우리의 歷史를 아는 모든 知識人들을 本 委員

會에 招聘하여 어떤 學派나 特定個人的 理解를 超越해서 燭商討議를 벌여서 우리의 先祖가 남긴 歷史의 眞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假使 證據와 考證의 不充分으로 우리 祖上의 걸어 온 길을 다시 追跡하는 것이 어렵고 不可能하다는 壁에 부딪치는 경우라도 우리는 이 努力을 拋棄해서는 안되며 同一한 歷史的 事實을 놓고도 從來와 같이 消極的이고 冷笑的이며 保守的이고 受動的이며 靜態的인 視角을 고쳐서 보다 積極的이고 熱情的이며 進就的이고 能動的이고 力動的인 눈을 떠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祖國이 光復된지 半世紀도 되기 전에 우리 民族은 東北亞 및 世界史속에서 두렵하고 燦爛한 叡智를 發揮하기 始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民族이 果然 현재의 國史教科書에서 말하듯 그렇게 慘憺한 過去를 가지고 있었겠느냐 하는에 대해서는 國內外的 많은 사람들이 疑問을 가지기 始作했습니다. 이것이 始作이 되어 우리의 참된 過去를 되찾고 未來를 構想하는 土臺가 마련되어야 할 것인 바 우리 政府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은 國會法 所定の 節次에 따른 國會에서의 審議가 最後의 機會가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訴願法 및 訴訟法上의 理由로 行政府나 司法府는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法的 權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칠 것입니다.

○委員長 韓柄索 다음은 陳述人을 紹介드리겠습니다. 紹介의 順은 오늘 陳述의 順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請願을 提出하신 安浩相博士를 紹介합니다.

(安浩相博士 人事)

다음은 崔永禧國史編纂委員長을 紹介합니다.

(崔永禧國史編纂委員長 人事)

다음은 朴時仁教授를 紹介합니다.

(朴時仁教授 人事)

다음은 金哲坡教授를 紹介합니다.

(金哲坡教授 人事)

다음은 李龍範教授를 紹介합니다.

(李龍範教授 人事)

오늘은 방금 紹介해 드린 다섯분을 陳述人으로 모셨습니다.

다음은 陳述의 順序가 되겠습니다. 陳述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公聽會의 會議進行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하실 다섯 분의 陳述을 다 듣고 난 뒤에 綜合해서 여러 委員님께서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陳述中에 理解하지 못할 부분을 確認하는 外에는 可及的 質疑를 삼가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安浩相博士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述人 安浩相 존경하는 韓柄索 委員長을 비롯한 國會議員 여러분! 長次官님 그리고 尊敬하는 碩學들과 來賓 여러분!

오늘 이런 機會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 國會의 文公委員會에서 이런 機會을 만들어 주신 것은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러울뿐 아니라 1000年만에 우리 민족의 바른 歷史를 찾을 機會을 주신 것은 半萬年 歷史에서 길이 빛날 줄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 우리나라 歷史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 歷史文獻들 곧 歷史書冊들이 제일 크게 受難을 만난 것이 西紀 7世紀에 唐나라 장수 이 적(李勣)이 平壤을 점령할 적입니다. 이 적에 우리나라에 있는 冊은 전부 뚝뚝 모아서 平壤에서 불사질러 버렸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우리나라의 歷史가 너무 위대한 까닭에 冊을 없애버리면 우리의 歷史가 없어질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만행은 뒷 시대의 식민정책을 보더라도 잘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크게 受難을 받은 것이 壬辰倭亂이요 그 다음이 丙子胡亂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와 李承休가 지은 帝王韻記를 쓸 적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엔 굉장히 많은 歷史冊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 이분들이 글 쓰실 적에 전부 그 책들을 參考하셨던 까닭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그러한 冊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祖上들께서 물론 全部는 다 아님니다마는 일부가 모르셔서 그러하셨든지 혹은 中國과 우리 官衙의 壓力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歷史를 상당히 잘못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質問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答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日帝 35年 植民教育입니다. 왜놈들이 우리나라를 영원히 植民地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內地사람(日本사람을 內地사람이라 했죠)과 朝鮮 사람은 同根 同祖로서 뿌리도 같고 祖上도 같아서 內地사람과 朝鮮사람은 일체 곧 “內鮮一體”를 주장하였는데 그것은 곧 우리 옛 풍속에서 “夫婦는 二身一體”라는 것을 따다 쓴 것입니다.

우리를 自己의 植民으로 만들기 위해서 祖上이 같다고 해 놓고 보니까 참으로 낭패난 것이 한국의 歷史는 檀君으로부터 시작하면 그 당시 우리나라의 歷史는 4200餘年이고 왜놈 歷史는 2500餘年밖에 안 됩니다. 이렇고 보니 우리나라 歷史가 日本歷史보다 일천칠팔백년이 길고 보니 왜놈이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가 왜놈의 조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왜놈들이 檀君이 神話다 箕子朝鮮이 없다 하며 檀君 47代 임금들의 1048年 歷史와 扶餘朝鮮의 164年과 또 箕子朝鮮의 41代 임금들의 928年 合 2140年의 歷史를 완전히 잘라버리고 西紀 約 194년에 衛滿이 朝鮮王이 된 때로부터 우리 歷史를 시작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왜놈의 歷史가 우리 歷史보다 삼 사백년이 더 길어서 왜놈이 우리의 祖上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사람인 衛滿이 朝鮮나라를 만들고 통치하였다면 朝鮮사람은 스스로 나라를 만들 자격도 없고 또 독립할 능력도 없다는 정신을 주기 위해서 왜놈들이 歷史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현재 우리의 역사가들은 대개 일본의 植民史觀 이러한 허위의 植民史觀을 배웠던 까닭에 오늘날 우리의 國定國史教科書를 완전히 日帝 植民史觀의 複寫版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것은 차차 여러분께서 質問하시면 얼마든지 答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찾기 위하여선 우리는 우리의 옛이제(古今)의 冊들은 물론이려니와 중국의 옛이제의 冊들을 널리 또 깊이 연구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절대로 저의 理論이나 學說이 아니라 全部가 우리나라 冊들과 또 中

國冊들에 있는 것을 紹介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고한 漢文冊들 사오십권을 이 자리에 갖고 왔습니다. 필요하면 여러분에게 고증자료로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까 韓柄委委員長님과 林德圭議員님과 또 專門委員님께서 說明하신 것이 그대로가 곧 우리의 國史教科書를 올바르게 批判하신 것인 줄 압니다.

내가 본래 강연을 많이 함으로써 역사 강연은 책들에 있는 한문 원문을 그대로 「슬라이드」를 만들거나 혹은 광목에다 베껴서 벽에다 걸고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效果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漢文冊에 있는 것을 그대로 베껴와서 벽에다 걸고 설명을 하려 합니다. 各論은 다른 演士가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개괄적으로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대개 과거 上古歷史를 아시고 또 質問의 자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자료는 인쇄물로써 여러분께 돌려 드렸습니다 여기선 주로 중국의 25가지 정사(正史)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다른 책들에 있는 것을 소개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歷史를 바로 알려면 먼저 우리 種族의 根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種族의 根源이 무엇이며 또 우리 種族이 어디에서 發祥했는가 이것을 알고 나아가면 뒷날 우리 檀君朝鮮과 箕子朝鮮의 나라 땅이 현재 중국 북경(北京)지역까지요 또 百濟가 上海까지 統治했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歷史를 모르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단군(檀君) 앞시대의 歷史를 잠깐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배달겨레(檀族)의 근원종족인 東夷族의 발상지를 알기 위하여 중국의 25사(二十五史)의 맨 첫째 책인 한(漢)나라 司馬遷이 지은 史記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말하기를 “북녘에는 山戎과 發息慎이 있는데 발식신은 肅慎이요 또 이 속신은 東北夷다”라 하였습니다. (北山戎 發息慎 集解 鄭玄曰 息慎或謂之肅慎 東北夷: 史記卷一 五帝本紀 虞舜者) 이 “東北夷인 肅慎”이 息慎 稷慎 烏慎 珠申 州慎 등으로써 우리 나라인 “朝鮮”이라는 것

은 이미 申采浩 鄭寅普 安在鴻 등이 여러 중국책들을 참고해서 잘 밝혀 두었습니다. 여기에 관한 보기로써 중국책에 있는 한 곳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欽定滿洲源流考에선 말하기를 “한 옛적엔 朝鮮을 肅慎이라 하였고 漢나라적엔 三韓이라 魏나라와 晉나라적엔 挹婁 北魏적엔 勿吉이라 隋나라와 唐나라적엔 靺鞨 新羅 渤海 百濟 등이다”라 하였습니다. (凡在古爲肅慎在漢爲三韓 在魏晉爲挹婁 在北魏爲勿吉 在隋唐爲靺鞨 新羅 渤海 百濟: 欽定滿洲源流考卷首, 凡例 肇迹東方)

우리 朝鮮이 「아시아」의 東北方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朝鮮인 “肅慎을 東北夷”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史記는 또 곧 달아서 말하기를 “동녘엔 長白山(太白山, 한팍산, 白頭山, 白山)의 鳥夷가 있는데(東長鳥夷) 이 “鳥夷”를 혹은 “鳥夷”라고도 하며 또 이 鳥夷는 새와 짐승을 잘 잡아 먹고 털가죽옷을 입고 사는데 이 鳥夷를 “東方民” “東北民” “東北夷” “東夷” 또는 단순히 “夷”라고도 하였습니다. (東長鳥夷 正義 注鳥 或作鳥: 史記卷一 虞舜者: 鳥夷皮服 集解 鄭玄曰 鳥夷東北之民 博食鳥獸者 孔安國曰 服其皮 考證 尙書疏 引鄭玄云 鳥夷東方之民 惟王肅 以爲東北夷: 史記卷二·夏本紀: 三國誌 東夷傳: 禮記 王制云 東方曰夷 夷有九種: 後漢書卷百十五 東夷傳: 안호상, 배달·등이는 동이겨레와 동아문화의 발상지, 들말, 1. 한팍산이 있는 朝鮮인 속신은 동이겨레의 본고장)

우리가 나라 안팎의 여러 옛이제(古今)의 책들을 살펴보면 朝鮮이 곧 肅慎이요 또 한팍산(太白山 長白山 白頭)이 곧 三神山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山海經이라는 옛책에선 말하기를 “크고 넓은 더거친 땅에 한팍산(不咸山, 太白山, 白頭山)이 있는데 이 땅이 곧 肅慎나라요 이 나라는 白民國의 북쪽에 있다”고 하였고 또 史記에선 말하기를 “靺鞨國은 본사 古肅慎地로서 東北이 모두 큰 바다에 다 이었고 남쪽에는 한팍산이 있는데 이 산에는 새 짐승들과 풀 나무들이 모두 희다”라 하였습니다. (大荒之中有山 名曰不咸 肅慎國 肅慎國在 白民國北: 山海經卷三 海外西經: 史記卷一 黃帝者)

神仙道書인 歷代 神仙通鑑과 또 우리나라의 여러 책들을 보면 우리의 한팍산(太白山, 가

장 밝은 산 白頭山)이 곧 三神山이요 또 이 산이 神仙道敎와 동아시아의 발상지(發祥地)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歷代 神仙通鑑을 보면 “천지가 개벽한 뒤 처음 생긴 사람인 黃老가 東海(朝鮮)의 신령스런 터인 蓬萊 方丈 영주에 이르렀는데 이 3산은 우리 渤海에 있는 3神山이라” 하였습니다. “이 산에는 不死藥이 있고 신선들이 이 약을 캐어 먹으며 또 이 3신산이 가장(함, 太) 희(白)고 밝(白)은 한발산(太白山)인 까닭에 이 산에 있는 물체들과 새 짐승들이 모두 희다”고까지 하였습니다. (黃老 向東海 露墟 蓬萊之境…… 蓬萊 方丈 영洲 是渤海中三神山也 上生不死之藥 諸仙人 採食之 其物禽獸皆白: 歷代神仙 通鑑卷一 第五節 第九節; 古之三神山者 即 太白山也 三神又云 三聖: 揆苑史話. 三, 檀君記 三神山 即 太白山 檀君是三神 故指其始降之山: 李能和 韓國道敎史 第三章 神市氏肇降之 太白山 即 三神山說)

마침내 朝鮮인 肅愼이 東北夷 또는 東夷요 또 이 東夷땅에는 3신산이 있으므로 여기에 훌륭한 神仙들이 있었고 또 書冊들이 제일 먼저 있었읍니다. 歷代神仙通鑑에선 말하기를 “옛날 三皇의 한 사람인 黃帝軒轅(단기 앞 4세기 서기 앞 27세기)이 東北 長白山(太白山)에서 홀로 오랫동안 도를 닦아 공을 이루었는데 太皞伏戲(단기 앞 12세기 서기 앞 36세기 三皇의 첫째 사람)적에 이 한발산에는 여러 훌륭한 신선들이 天仙을 부르고 또 글자 만드는 6가지 方法을 모은 책인 六書 六籍을 갖고 있었다” 하였습니다. (黃帝獨修於東北 長白山下 日久功成 太皞時 東王公 太華真人 召掌天仙六籍: 歷代神仙通鑑卷二 第七節)

葛弘의 包朴子란 책에선 말하기를 “옛날에 黃帝軒轅이 동녘으로 靑丘에 이르러 風山(발산 白山, 白頭山)을 지나다가 신선인 柴府先生을 보고 三皇(神)內文이라는 책을 받아가지고 여러 神들을 부를 수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昔有黃帝 東到靑丘 過風山 見柴府先生 受三皇內文 以劾召萬神: 包朴子 內篇 地眞 卷十八)

우리 朝鮮은 「아시아」의 東北녘이므로 이 땅이 곧 東北夷땅 또는 東夷땅이요 또 이 땅에서 東夷族이 발상하였습니다. 우리 朝鮮에서 일어난 東夷겨레가 칠팔천년 앞부터 점점 서남녘의 中原(중국)대륙으로 옮겨가 그 곳을 개

척하고 차지하였습니다. 書傳과 史記를 보면 특히 한발산(長白山 백두산)지역에서 일어난 鳥(島)夷가 冀州로 옮겨가 살았는데 이 冀州는 현재 중국의 河北省 河南省 山西省 察哈爾省 熱河省등 黃河以北과 遼河以西 지역입니다. (鳥夷皮服: 書傳卷三 禹貢 冀州: 史記卷二 夏本紀 鳥夷皮服)

檀君과 唐堯의 시대에는 우리 東亞 전체를 冀州 兗州 靑州 徐州 揚州등 九州로 나뉘었는데 兗州는 河北省과 山東省의 일부로서 현재는 바다에 가라앉아 없어졌습니다.

靑州는 현재의 遼河 동녘인 만주와 우리 한반도와 山東省을 합친 지역인데 여기엔 東夷겨레의 갈래들인 萊夷 隅夷 東萊夷 淮夷 등이 살았었습니다. 한반도와 山東省이 150만년 앞에는 바다가 아니라 육지였으며 또 단군시대만 하더라도 바다가 아주 좁았던 까닭에 한반도와 山東省을 묶어서 靑州로 하였으며 또 그로 말미암아 東夷族이 만주와 한반도로부터 山東省으로 가서 中國 대륙에 마음대로 손쉽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書傳卷三, 禹貢: 안호상, 배달·동이는 동이겨레와 동아시아의 발상지 다섯째 가름 동아땅의 9주들을 차지했던 동이겨레들의 갈래들과 그 지역들)

揚州는 현재 중국의 江蘇省 安徽省 江西省 浙江省 福建省의 지역인데 여기까지도 한발산 지역에서 일어난 鳥(島)夷가 옮겨가서 살았는데 鳥夷가 한발산 지역과 冀州의 추운 지방에 살 적에 털가죽 옷을 입었지만(鳥夷皮服) 남녘 다신 지역에선 풀잎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鳥夷卉服) 이러한 사실 기록들을 보고 현재 중국 학자 林惠祥은 “鳥(島)夷는 冀州와 揚州에 다 같이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書傳卷三 禹貢 鳥夷卉服: 史記卷二 夏本紀 鳥夷卉服: 前漢書 卷二十八 地理: 林惠祥 中國民族史. 卷上 第四章 東夷系漢族來源之二 (5) 鳥夷 鳥夷 或作鳥夷 經注有謂 爲善捕鳥者 冀州 揚州 皆有之)

현재 중국학자 徐亮之가 또한 우리 東夷族이 중국 전체를 차지했다는 것을 자기의 지은 책 中國史前史話에서 다음과 같이 밝혀 두었습니다. “段周시대에 東夷族의 活動面이 사실로 오늘날의 山東省 河北省 渤海沿岸 河南省 東南 江蘇省 西北 安徽省 西中部 湖北省 東隅 遼東半島 朝鮮半島등 넓고 큰 지역을

包含하였다”고 하였습니다. (可知殷周之世的 東夷其活動面 實包括 今日 山東省 河北 渤海沿岸 河南東南 江蘇西北 安徽中北 湖北東隅 以及 遼東半島 朝鮮半島等 廣大地域：徐亮之 中國史前史話 267面)

우리가 위에서 東亞 9주의 하나인 冀州(北京지역)가 遼河 서북지역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나라 역사와 동아시아의 옛 역사를 올바르게 알기 위하여 이 遼河의 위치를 똑똑히 밝혀야 합니다. 적어도 1400여년 앞 곧 唐나라 때까지만 하더라도 본래의 진짜 遼河는 결코 현재 만주 遼北省을 지나 營口에서 발해 바다로 흐르는 그 遼河가 아니라 사실은 현재 중국의 찰합이성에서 시작하여 열하성의 承德 근방을 지나 河北省(北京지역) 喜峰口에서 萬里長城을 뚫고 河北省 盧龍縣 서북을 지나 발해바다로 흐르는 灤河(남하)를 遼河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만주에 있는 遼河는 그 본 이름이 句麗河(고구려하) 枸柳河 巨流河 鴨子河(압록강)이었습니다.

본래의 遼河인 灤河를 표준으로 하고 그 동녘은 遼東이요 또 그 서북은 遼西라 하였습니다. 이 요하(남하)는 北京의 동녘이요 또 山海關의 서북에서 흐르고 있으므로 北京은 遼西요 山海關은 遼東입니다. 옛날에는 國境이 매개가 큰 江이었으므로 옛날부터 中國史學家들이 우리 地理와 歷史 또 중국의 地理와 歷史를 고쳐 北京 근방에 있는 遼河를 東으로 가져가 滿洲의 句麗河(현재의 遼河)를 遼河라 하였습니다. 그래야만 北京지역이 본래 遼西로서 우리 領土인 것을 否定하고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술책입니다.

遼河만이 北京지역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樂浪郡이 또한 北京지역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여러 正史에서 똑똑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明一統志라는 明나라 역사의 것을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朝鮮城이 永平府境內에 있었는데 이 永平府가 北平郡에 소속된 것이며 또 北燕이 이 北平郡을 平州와 樂浪郡으로 나뉘다가 後魏가 樂浪郡을 고쳐서 北平郡이라” 하였습니다. (朝鮮城 在永平府境內... 後魏置縣 屬北平郡..... 郡名 孤竹爲古名 北平爲秦名..... 北燕爲平州及樂浪郡 後魏改樂浪郡爲北平郡：明一統志卷五 永平府：文獻備考卷十三 永平府)

北平(京)지역에 樂浪郡이 있고 이 지역에 山海關이 있고 또 山海關의 碣石山에서 秦始皇의 萬里長城이 시작하였습니다. 樂浪郡과 遼河가 北京지역에 있는 것을 杜佑의 지은 通典의 다음 글이 또한 잘 밝혀줄 것입니다. “碣石山이 樂浪郡 遂城縣에 있는데 秦始皇의 萬里長城이 여기서 부터 시작하였고 이 長城이 東쪽으로 遼河를 끊고 갔는데(東截遼水) 그 遺趾가 아직 남아 있더라” 하였습니다. (杜佑通典曰 碣石山 在漢樂浪郡 遂城縣 秦築長城 東截遼水 起於此 遺趾猶在云：文獻備考卷十三輿地考一 遂城縣)

여기서 崔棟博士의 朝鮮上古民族史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국문 1,216면과 영문 140면 합 1,356면인데 여기선 단군 한배 검의 역사와 사상에 관해서 130여면이나 기록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遼河(水)와 漢四郡의 위치에 관하여 저같이 말하였습니다. “서기 앞 280년 朝鮮과 燕과의 전쟁뒤 戰勝한 燕은 灤河가 본래 列水이었으므로 遼水(河)로 改名하고 이 遼水 卽 列水가 朝鮮과 燕의 國境線이었으므로 所謂 朝鮮在 列陽東 列陽屬燕이 되었다..... 漢四郡의 설치와 그 뒤에도 遼西郡은 灤河 以西의 天津地方에 固定不變이었다” 하였습니다. (崔棟. 朝鮮上古民族史 前編 檀君朝鮮 및 奇子朝鮮時 七. 朝鮮古土의 處理甲. 遼東郡의 東進 一. 遼水の 變遷 390面, 407面)

○委員長 韓柄索 安浩相博士님! 이 國史請願은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公聽會 機會가 있고 또 그때 陳述할 機會가 또 있습니다. 오늘 安博士님이 제일 먼저 나오신 것은 請願을 申請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國史教科書 內容의 是正될 그 部分을 中心으로 해서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그 點만 오늘은 重點으로 해주시고 그 뒤에 더 넓고 깊은 문제는 또 機會에 公述할 機會가 있을 것 같습니다. 時間制限도 있고 다음 公述할 분도 있고 해서 그 專門的인 分野는 다음 機會로 미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教科書 中心으로 또 請願년 中心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陳述人 安浩相 그러면 教科書中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4년에 國定國史教科書를 낼 적에 檀君의 역사와 年代표를 빼 버렸습니다. 그 때부터 우리는 이 국사교과서가 망국적이

요 民族反逆의이라고 떠들었더니 昨年版과 今年版에는 年代代表에는 서기 앞 2333年前에 단군 한배검이 고조선 임금인 되었다 해 놓고 교과서 글에는 오로지 檀君神話만 기록했지 檀君歷史는 한 마디 말도 없습니다. 단군의 역사적 사실면은 한 마디 말도 없고 탄생의 神話만 적었으니 그것은 결국 단군의 실존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단군조선인 古朝鮮이 서기 앞 2333년에 생겼다 하여 놓고 그 다음엔 하는 말이 古朝鮮은 靑銅期에 成立되었고 또 靑銅期時代는 西紀 앞 10世紀라고 했습니다. (중. 국사 11면 12면, 고. 국사 9면, 10면)

그러고 보니 檀君은 자연히 否定되고 우리의 역사 1300여년은 따라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국사교과서는 너무나 비과학적이며 몰상식적입니다. 과거 漢文으로 쓴 우리나라 역사책치고 단군역사 없는 책이 없을 뿐더러 과거의 교육기관인 書堂에서 漢文을 배울 적에 처음 千字冊을 배우고 다음에 童蒙先習이란 책을 배우는데 이 책에서도 까만 오랜 옛적에 있었던 책인 “古記”에 실려있는 단군 한배검(檀君王儉)의 역사를 옮겨다 썼는데 그 원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古記”에 이르되 “東方檀君에 처음 임금이 없더니 한얼사람(神人)이 한밝산(太白山, 백두산)의 밝달나무아래에 내려오시거늘 나라사람들이 세워(立, 받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니 이분이 곧 檀君이 되시고 나라이름을 檀(밝달)이라 하다가 뒤엔 朝鮮(아침 밝)이라 하시더라” 하였습니다. (古記云 東方 初無君長 神人降于太白山 檀木下 國人立以爲君 是爲檀君 開國號檀後爲朝鮮：童蒙先習 末尾)

日帝교육의 중독자와 共產主義의 광신자와 외래종교의 맹신자와 또 단군역사의 문외한을 빼고는 국 한문으로 단군역사를 쓴 큰 학자들이 많은데 그들의 이름을 대강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金敎獻 魚允迪 張道武 朴殷植 申采浩 崔南善 鄭寅普 鄭烈模 安在鴻 文一平 權덕奎 朴亨標 崔棟 文定昌 鄭命岳 등입니다.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선 말하기를 처음에 산동반도와 북중국 방면에 있던 동이겨레(東夷族)가 중국의 춘추와 전국시대(서기 앞 8~4세기)에 점차 만주와 한반도로 이동해 왔다

고 하였습니다. (고. 국사 8, 11면)

국사교과서의 이러한 말은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는 모르나 그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위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東夷는 동아의 동·북녘땅에 있는 한밝산(太白山,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일어난 東北夷로서 이 갈래들이 벌써 육칠년전 앞에 中原(國)대륙으로 옮겨 갔던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와 산동반도의 사이에 있는 바다가 옛날엔 아주 좁았던 까닭에 한반도에서 산동반도로 쉽게 또 많이 옮겨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 옛책들에서 기록된 것을 참고로 해서 현재 중국학자 徐亮之와 林惠祥은 자기들의 책에서 이것을 똑똑히 밝혀 두었습니다.

1974년과 1977년의 국사교과서에선 古朝鮮이 평양 大同江에서 일어났으며 또 古朝鮮의 문화중심지가 大同江가라 하였습니다. (중. 국사 2, 9면 : 고. 국사 9면)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러한 거짓말 국사는 일체 식민사관의 찌꺼기라고 반박하였으나 금년 1981년판에도 古朝鮮은 大同江 유역에서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고. 국사 20면)

여러 옛책들을 보면 “古朝鮮”은 단군 한배검(檀君王儉)때로부터 시작하였으므로 三國遺事는 그 첫째 가름의 제목마저 “古朝鮮 王儉朝鮮”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끌어온 “魏書”에서도 단군 한배검이 한밝산 아시명(白岳山 阿斯達)에 나라를 세우셨다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책들에서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太白山. 開國 號檀 又稱朝鮮：神檀實記：檀君王儉立都於 白岳山 阿斯達：三國遺事卷一)

“단군 한배검께서 무진년(戊辰年 唐堯二十五年)에 한밝산에 나라를 세우셨다가 23년 庚寅年에 압록강의 북녘 松花江(淙沫江 粟末江) 유역에서 서울을 옮겨 平壤이라 하고 나라이름을 朝鮮이라 하였다” 하였습니다. (戊辰 唐堯二十五年… 神人 降于太白山 檀木下 團衆 推戴爲王儉 國號曰檀 是爲檀君… 庚寅移徙平壤 改國號曰朝鮮：朝鮮史略卷之一；乃建于太白山 西北 牛首河之原 曰王儉城 今滿洲 吉林之地 有蘇密城在 於粟末水之南 此昂其地也 淸平山人 李若云 粟末水之南 有渤海中京 顯德地此 乃檀君之 都處 故王儉城昂 平壤也 北去上京 忽汗城 六百里云：揆苑史話 二. 檀君記)

衛滿朝鮮의 서울인 王儉城을 국사교과서에선 大同江 유역 평양이라 하였는데 이것 또한 엉터리입니다. 王儉城은 여러 곳에 있고 또 위만조선의 서울인 王儉城은 前漢書와 또 中國古今地名大辭典에서 衛滿의 서울인 王儉城은 현재 中國 遼寧省 盤山縣(大凌河 유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險瀆 漢置 應昭曰 朝鮮王滿都也 依水險故 曰險瀆 臣瓚曰 王儉城在樂浪郡 溟水之東 此自是 險瀆也 師古曰 瓚說是也 當在今遼寧省 盤山縣境內 濱海之地 前漢書 卷二十八下 地理誌 遼東郡 險瀆 : 中國古今地名大辭典險瀆縣)

국사교과서는 말하기를 “漢이 고조선을 멸망시킨 뒤 樂浪 진번 임둔 현도의 4군을 두고 그들의 관리를 보내어 다스렸다”라 하였습니다. (중. 국사 14면, 고. 국사 12면)

이것 또한 日帝가 거짓으로 꾸며낸 朝鮮史를 썼는지는 모르나 이것보다 더 큰 거짓말은 없습니다. 교과서에서 樂浪은 평안도 대동강 유역이요 玄菟는 만주의 통구요 진번(대방)은 황해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중. 국사 15면, 고. 국사 12, 13면) 이러한 것은 중국의 正史는 하나도 보지 않고 쓴 것임을 알 수 없습니다.

중국 正史의 하나인 前漢書 地理志는 보지도 않고 국사교과서를 쓴 모양입니다. 위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옛 孤竹國이 北平(京)으로 되었다가 北燕때에는 平州와 樂浪郡으로 나뉘었으며 또 後魏때에는 樂浪을 고쳐서 다시 北平이 되었습니다. 前漢書 地理志에선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樂浪郡은 平北지역인 幽州에 속하였는데 그것은 본시 朝鮮國이라 하였고 또 이 樂浪郡 안에 대방이 있습니다. 현도군을 말하더라도 그것이 또한 幽州에 속하였으며 또 그것은 진번조선국(眞蕃朝鮮國)이라” 하였습니다. 현도가 北京 山海關 지역에 있었다는 것은 三國志扶餘傳에서도 밝혀 두었습니다. (樂浪郡 屬幽州 應昭曰 故朝鮮國也 帶方 前漢書 卷二十八下 地理志 : 玄菟郡 屬幽州 應昭曰 故眞蕃朝鮮國 : 그곳 玄菟郡)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幽州에 관해서입니다. 4300여년 앞 단군과 요임금 시대에 우리 동이 전체를 9州로 나뉘던 것을 舜임금이 冀州가 너무 넓어서 그것을 갈라서 冀州 幽州 竝州등 3州들로 만들었는데 이 幽州는 현재 北京이 있는 河北省 일부와 열

하성과 현재의 遼河 서북지역 전부입니다. (幽州 古十二州之一 舜分冀州 東北爲幽州 今直隸 奉天二省 : 書傳卷一 舜典 : 中國古今地名大辭 幽州)

국사교과서는 우리 百濟가 서기 3세기 끝 무렵부터 신라에 통합될 때까지 300여년 동안 중국 北京에서 上海남녘 곧 越나라를 통치한 사실은 완전히 기록하지 아니하였읍니다. 文獻通考 周書梁書 北史 滿洲源流考 등에선 말하기를 “晉나라때(서기 3세기)에 고구려는 이미 灤河 동녘지역 곧 河北省 山海關 동녘지역인 遼東을 차지하였고 百濟는 遼西인 北京지역을 차지하고 이 지역을 自治百濟郡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中國에 있는 백제를 다스리기 위하여 서울을 遼西에다 두고 이름을 固麻城이라 또 朝鮮땅의 백제를 다스리기 위하여 서울을 全州에다 두고 이름을 居拔城이라 하였습니다. 백제가 晉 宋 齊 梁때에는 揚子江북녘을 다 차지하다가 後魏(서기 5세기)때에는 揚子남녘인 吳 越까지를 차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唐書에선 백제의 서녘 경계선이 越州요 남녘 경계선은 倭(日本)이라 하였습니다. (通考... 晉時高句麗既略有遼東 百濟亦略有遼西 晉平二郡 註. 柳城北平之間 自治百濟郡 通考卷百八十六 東夷 : 梁書卷五十四 : 欽定 滿洲源流考 卷三 : 百濟王都 有東西兩城 號固麻城 亦曰居拔城... 通考云 在唐柳城 北平之間 則國都在遼西 而朝鮮 全州 : 滿洲源流考 卷九 : 百濟自 晉宋齊梁 據江左 後魏宅中原 周書卷四十九 百濟 : 北史 百濟 : 唐書曰 百濟西渡海至越州 宋祈新書曰 百濟西界 至越州 南倭 皆渝海 : 文獻備考 卷十四 歷代國界二 百濟國)

新羅의 나라땅이 처음엔 慶尙道에서 만주 吉林省 烏拉(목단강지역)까지요 서녘은 奉天과 長春의 지역까지인 것을 교과서는 완전히 빼 버리고 또 三國統一의 국경이 한때 北京 지역까지였던 것을 慶尙道만인 것처럼 꾸며 두었는데 이것 또한 日帝의 허위 조작에 따른 것입니다. 新唐書에선 말하기를 “新羅의 나라땅이 가로가 千里요 길이가 三千里며 또 서녘은 開原과 鐵嶺(奉天과 長春지역)이다가 武烈王때에는 이 奉天과 長春의 서녘에 있는 고구려와 백제의 옛 땅을 취함으로써 東西가 九百餘里요 南北이 千餘里나 더 넓어졌다” 하였습니다. (新唐書云 新羅居漢樂浪地 橫千里

縱三千里：滿洲源流考卷九 新羅：謹按新羅疆土東南並有今 朝鮮之 慶尙 江原二道 直至吉林烏拉又西近 開原鐵嶺 唐顯慶以後 又得百濟地 及高句麗南慶 於是東西增九百里 南北增千餘里：그 책卷九 新羅九州)

新羅의 삼국통일 국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新唐書에선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신라가 서부 만주와 北京지역의 고구려와 백제의 땅을 모두 차지한 뒤 거기에 尙州 명주 양주 강주 웅주 全州 무주 한주 삭주등 九州를 두었는데 尙州는 吉林省인 東京路에 속하였으므로 吉林 寧安縣이요 全州는 北京路에 속하였으므로 河北省과 열하성 지역이요 康州는 大凌河의 동쪽에 있는 醫巫間山지역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新羅가 九州를 설치할 적엔 동녘으론 吉林이요 서녘은 北平(東至吉林西至廣寧北平)까지라 하였습니다. (新唐書云 新羅多取 百濟地 抵高句麗南境置尙州康寧全武漢溟朔九州 註. 按是時 高句麗北境屬渤海……尙州屬 東京路…全州屬北京路 康州屬遼顯州 去醫巫間山不遠：當時 用兵皆自登萊(山東省東北地)渤海往來故多在朝鮮界也 至九州之設東至 吉林 西至 廣寧 北京：滿洲源流考 卷九 新羅九州) 그러다가 聖德王 첫무렵부터 渤海가 강해져서 滿洲와 北京지역은 모두 발해에 빼앗기고 성덕임금 35년(唐開元 24년：서기 736)에 鴨綠江 남녘만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謹按新羅… 開元以後 渤海威強 其西北諸境盡爲所並 新羅所有 僅鴨綠江以南：그 책 그곳)

이와 같이 新羅統一國境이 한때 吉林에서 北京까지요 또 이 지역에다 九州를 두었는데 中 高의 국사교과서에선 이 九州들을 모두 大同江 남녘에다 배치하였으나(중. 국사 51면, 고. 국사 47면) 이러한 터무니없는 거짓 기록은 어떤 책들을 참고해 썼는지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통일과정에 관하여, 국사교과서에선 말하기를 “신라는 唐의 육군 20만명을 의정부 부근에서 거의 멸망시켰고 이어서 금강 입구에서 당의 해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이리하여 신라는 마침내 당군을 이 땅에서 축출하고 숙원의 삼국통일을 이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중. 국사 34면, 고. 국사 28면)

이것을 보면 국사교과서는 新羅의 통일국경을 밝히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국사교과서의 1978년판까지는 신

라 통일국정에 관하여 말하기를 “唐을 한반도에서 몰아냄으로써 비로소 삼국이 통일이 되었다 신라는 大同江유역에서 元山만에 이르는 선을 국경으로 삼았다”고 하였습니다. (중. 국사 42면 통일의 의의)

이 때 우리는 이러한 국사교과서는 모순덩이요 거짓투성으로서 신라 삼국통일을 “망국통일”로 만들었다고 떠들었더니 중학국사는 1979년판부터는 그것을 고쳐서 “발해가 대동강유역에서 元山灣 이북을 차지하였다”고 하였고(56면) 고등학교 교과서에선 1979년판부터는 “대동강 이남을 唐이 승인하였다”고 하였습니다(고. 52면) 이것은 역사지식이 모자란 사람으로서 그저 자기 마음내키는 대로 함부로 적은 것에 더 지나지 못한 것입니다.

끝으로 드릴 말씀은 현재에 국사교과서가 적어도 단군조선으로부터 高 百 新의 역사의 기술은 반민족적과 반국가적일 뿐더러 또 비과학적과 몰상식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첫째로 단군 한배검(檀君王儉)의 역사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국사교과서는 日帝植民史觀에 따라 단군 한배검을 神話로 돌려 否定하였는데 그것은 곧 民族의 否定과 分열을 가져오며 또 우리의 民族史的 正統性을 金日成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것은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로 箕子朝鮮의 문제입니다. 이 箕子朝鮮이 과거 우리나라에서 漢文으로 쓴 역사 기록치고 箕子歷史가 안 실린 곳이 없고 또 中國冊들을 보더라도 書傳을 비롯하여 詩傳 史記 前漢書 三國志 後漢書 資治通鑑 周書 晉書 梁書 隋書 南史 舊唐書 唐書 通典 등에 서도 箕子歷史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中國學者 林惠祥도 자기의 저서 “中國民族史上卷”에서 옛 책들에 따라 箕子가 우리 東夷族의 後孫인 것을 다음과 같이 똑똑히 밝혔는데 그것은 곧 “孟子는 舜임금이 東夷이다”라 하였고 “현재 사람들이 殷商이 東夷系에 속한 것을 考證하였으며” 또 “舜은 곧 殷商의 祖上”이므로 殷(商)나라 후손인 箕子가 朝鮮에 간 것은 “자기의 故國에 돌아간 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林惠祥. 古書云 舜爲東夷之人… 今人考證 殷商屬東夷之系(二) 東夷系漢族來源之二. 10면 舜即殷商之祖也：(二) 史載黃帝二十五子 25면 爲返其故國也：(三) 朝鮮 88면)

세계로 檀君朝鮮과 箕子朝鮮과 高百新 3 나라의 나라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中國의 正史와 또 여러 다른 옛책들에선 우리 옛강토가 北京까지다가 다시 중국 南京과 上海가 있는 揚子江 남녘인 옛 吳나라와 越나라까지라 한 것을 도리어 우리나라 國史家들만이 우리의 강토를 우리 한반도에다 국한시키고 남북 만주와 北京지역에다 설치하였던 新羅의 九州를 大同江 남녘에 있었다 하고 또 우리의 강토를 이 한반도라고만 하였습니다. 이 생각과 수법으로 국사를 쓴다는 것은 진리의 말살이요 학문의 배신이요 양심의 위반으로서 그것은 우리 민족에 비겁심과 노예성과 타락심만 심어줄 줄 믿는 바입니다.

○委員長 韓柄索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崔永禧 國史編纂委員長 나오셔서 陳述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述人 崔永禧 尊敬하는 韓柄索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 앞에서 제가 여기에 서게 된 것을 몹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바로 전에 말씀해 주신 安博士님은 제가 個人的으로 尊敬하고 또 가까운 사이고 어떤 會에 에컨대 無窮花會같은 데에서 제가 講演을 할 때에는 같이 들어 주시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서게 된 것은 저 個人으로는 몹시 서글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임이 또 이 公聽會를 통해서 우리의 歷史와 또 教科書가 올바르게 발전해 나가는 한 계기가 된다면 民族과 우리의 歷史學을 위하여 참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安先生님이 내신 請願書의 몇 가지 內容을 보건대 請願要點으로 國史教科書를 改正해야 한다는 이유에 의하면은 현행 教科書는 亡國의인 日帝植民史觀을 踏襲한 것이라고 하였고 또 그 원인은 日帝가 만들은 “朝鮮史”에 있으며 또 이를 踏襲하는 學者들에게 責任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教科書뿐만 아니라 어느 國家 어느 民族에 있어서도 그 나라의 國史教科書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또 이것을 編纂하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基本方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歷史史實입니다. 이 歷史史實을 어떻게 選擇하고 어떻게 쓰느냐는 그 나라 또는 그 이웃 나라 또는

世界的인 研究家들에 의해서 定說된 것이라는 가 또는 가장 妥當性있는 것이 採擇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歷史에 있어서는... 歷史學에 있어서는 아직도 未發展된 것이 많다고 솔직이 우리 國史하는 저로서는 말씀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最大限度로 科學的으로 노력해서 가장 妥當性있는 사실을 쓰는 것이야말로 科學的인 面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둘째로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教育的 側面입니다. 즉 教育的 效果 또는 民族 國家를 위해서 장차 자라나는 二世를 위해서 이 歷史教育을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는 우리 既成世代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側面이 깊이 考慮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教科書는 우리나라의 教科書는 國民教育에 가장 基本的인 教材가 되고 우리나라 歷史理念과 目的에 一致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고 公正하고 教育的이어야 하며 나아가 敘述된 내용은 理論的으로 정확하고 眞實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의 教科書의 編纂에 있어서는 國史學 東洋史學 西洋史學 考古學 기타 많은 科學者들의 協調가 있었고 또 教育學 나아가서는 中 高等學校 또는 國民學校에서 教科書를 가르치는 一線 선생님들이 많이 參加했고 또 이것을 實驗에 옮긴 다음에 編纂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둘이켜 우리나라에 있어서 解放이후에 우리나라 國史學界를 간단히 저 나름대로 整理해 왔습니다. 解放後 우리 國史學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새로운 발견이 많이 났습니다. 여기에는 考古學뿐만 아니라 古代史에서 最近世에 이르기까지 이제까지 우리가 몰랐던 많은 史料가 발견됐습니다. 여기에는 日本帝國主義者들에 의해서 감춰졌고 발표 못한 것도 많지만 우리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歷史史實에 대한 再照明이 이루어져서 새 角度로 研究가 되고 또는 새 理論을 定立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 史學界는 더욱 더 새로운 데로 향해서 발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그렇게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日帝植民史觀의 克服이라는 것은 우리 歷史學안에서도 國史學者들에게서 가

장 큰 課題였습니다. 그래서 解放直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여기에 대한 討論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外國의 學者들은 우리 國史學을 研究하는 사람보고 國粹主義니 제멋대로 解釋한다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 國內學者 안에도 이러한 攻擊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民族史의 입장에 있어서 歷史를 어떻게 克服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발표된 많은 論文으로써 충분히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제까지 우리 國史學者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난속에서 이러한 目的을 위해서 연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一方的으로 이러한 學者들이 植民史觀의 앞잡이 내지 支流라고 糾彈될 때는 저 스스로 不德한 것을 느끼고 몹시 서글프기 한이 없습니다. 지금 訴請內容안에 “朝鮮史”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朝鮮史”가 日帝들에 의해서 植民史觀에 의해서 一方的으로 만들어진 概念的인 朝鮮史 같기도 하나 여러 가지 冊을 읽어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日本의 朝鮮總督府가 만들어낸 “朝鮮史”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朝鮮史” 특히 古代史 部分을 이 冊을 引用해서 研究하는 學者는 한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미 原典 즉 中國 日本뿐만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原典을 자꾸 고집어내고 새롭게 解釋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한 集大成된 成果로서는 檀國大學 東洋學研究所에서 낸 韓中日 關係資料集 25史抄라는 것만 봐도 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이미 中國의 原典에서 잘못된 것 例컨대 日本書紀나 日本의 古史記에서 잘못된 것을 우리는 是正하고 있는 段階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學問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승의 學說을 뒤집고 또 是正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가르친 二世의 歷史學徒들은 또 그렇게 저희들의 學說을 是正해 나가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꽤야만 새로운 學問이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이것이 제가 보는 歷史學界의 한 風潮고 또 그렇게 돼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全體의 專攻學者가 되지 못해서 이 請願書안의 몇 가지 말씀만 드

리고 여러 훌륭한 學者님들이 各論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請願書에 第3에 具體的인 지금 安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國史上의 사실과 現行 國史教科書에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때 여기에 「페이지」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教科書에 「페이지」數가 왜 잘못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은 現行 教科書가 아닙니다.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마는 그전 教科書의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學問하는 사람은 이러한데 세심한 것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과 여기에 여러 委員님들이 갖고 있는 教科書의 「페이지」數는 다릅니다. 이것은 과거에 사용된 教科書의 「페이지」고 여기에 고쳐놓은 것이 새로운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첫째 檀君問題가 나옵니다. 檀君이 實存人物이나 또는 神話的 存在냐는 많이 論議가 되고 二世教育을 위해서도 또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神話전 實在的 人物이건 간에 제가 한 구절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中學校 教科書입니다. “檀君神話와 그 意義” 이것이 神話고 아니고는 지금 安선생님 말씀하신 것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靑銅器文化에 대해서 꼭 나왔습니다. 그리고 桓因에서부터 三國遺事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具體的으로 說明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結論을 맺고 있습니다. “檀君神話에는 우리 民族의 建國思想과 歷史的 事實의 一面도 담겨져 있어서 이 神話가 지닌 意義는 매우 크다 獨立國家로서의 우리나라의 歷史가 中國과 같은 오랜 傳統을 가진 것임을 말해 주고 있다 한편 이 建國神話는 民族의 獨立과 統一을 象徵하는 것으로서 특히 韓末 日帝下에서는 우리 民族에게 勇氣와 긍지를 불어 넣어 주었다 따라서 우리 民族은 이 神話를 자랑스럽게 간직하여 왔다” 여기에 제 생각으로서 는 그렇게 思想的으로 잘못된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實際의 人物로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異論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1番에서부터 꼭 내려와서 10番이 있습니다. 10番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實際 歷史的 事實은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高句麗 新羅와 특히 百濟에서 많은 사람이 日本에 가서 日本國과 日本文化의 기틀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教科書에는 잘못됐다 실지

않았음 그 評에 植民史觀을 踏襲한 것임 그래서 실지 않았다”함은 그렇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植民史觀이고 日本사람들의 앞잡이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中學校 教科書 45「페이지」에 나옵니다. 中學校 教科書 45「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中學校 教科書 45「페이지」 中間쯤입니다. “三國文化의 日本傳播: 三國은 서로 對立되어 경쟁하는 가운데 활발한 文化交流를 이루었다 또 中國文化와도 交流하면서 바다 건너 日本文化의 기틀을 잡아 주기도 하였다” 기틀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具體的으로 나옵니다. 百濟에서는 王仁과 阿直岐를 日本에 보내어 儒學을 가르쳤고 段陽爾 高安茂 등이 건너가 段陽爾는 아무래도 百濟系統 같고 高安茂는 高句麗系統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高安茂 등이 건너가 學問을 가르쳤다 또한 전해 주었다 그리고 百濟와 高句麗의 많은 僧侶들은 日本佛敎界를 指導하였다 儒學과 佛敎外에 美術 音樂 曆學 醫學과 農業등 여러 가지 技術도 깨우쳐 주었다 日本이 「아스카」文化를 일으키고 古代國家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三國의 文化를 傳來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은 日本의 「아스카」文化라든지 古代國家가 形成된 것은 三國의 영향이라고 틀림없이 밝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高等學校것은 제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 古代史에 限한 문제가 아닙니다. 뒤로 넘어가면 14, 15, 16番이 있습니다. 14, 15, 16番은 우리 開港 이후에 激動하는 社會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面을 다룬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야말로 우리가 日本 帝國主義와 싸우고 또는 西洋의 侵攻에 대한 對備를 하고 우리는 改革을 해야 되고 또 우리 傳統思想을 지켜야 되는 이러한 고통속에서 살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14番을 보시면은 “1894년에 民亂이 일어났다 反亂者中에는 東學敎徒도 있었다 이것을 東學革命이라고 말하는 것은 反亂事件을 革命이라고 찬양함이다 反亂을 革命이라고 함으로써 소요사태를 찬양하는 結果가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歷史學에서 實際로 東學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革命으로 보아야 되느냐 東學을 그냥 運動이라고 보아야 되느냐 東學農民軍의 蜂起로 보아야 되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學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教科書에서는 이것이 革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나 하면 과거부터 이것은 革命으로 規定되어서 그 規定이 꼭 이제까지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再檢討도 할 수도 있고 問題點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高等學校 教科書 237「페이지」에 地圖가 있고 中間쯤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東學에 관해서 여러가지 얘기를 하다가 結論의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事態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東學革命으로 아마 보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 事態는 民亂과는 그 性質이 달랐다 그들은 東學軍들은 除暴求民으로 暴政을 除하고 百姓을 求하는 것이라고 輔國安民의 기치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補하고 百姓을 安전히 하는 輔國安民의 기치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斥倭洋夷를 주장하고 드디어 革命的인 저항의 불길을 일으키기게 이르렀다 貪官汚吏와 日本商人들의 위협을 심히 받아오던 農民이 주동이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東學敎徒가 많았다” 이렇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보면 國內의으로는 그 당시에 日本사람들 영향력하에 우리 政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東學敎徒보고 東匪라고 했습니다. 즉 東賊 匪賊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東學敎徒들과 農民들이 政府에 反抗했다는 것입니다. 한테 實際는 政府에 反抗한 것이 아니라 그 地方의 苛斂誅求를 하는 貪官汚吏들 한테 反對를 했고 또 그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왔습니다마는 西洋人과 日本사람들이 侵略해 오기 때문에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여기에 農民들이 日本에 가지고 가는 쌀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生活苦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東學이 일어나서 같이 國家를 지키려는 運動까지 벌어집니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만일에 이것을 暴動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면 韓末 義兵도 暴動입니다. 왜 暴動이나 하면 韓末에 우리의 義兵들은 親日 官吏들을 殺害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것도 政府에 反抗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歷史를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야말로 日本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대로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6番에 이 甲午년에 일어난 얘기들이 나옵니다. 16番을 보시면 “東學亂과 淸·日戰爭의 와중에 1894年 日本은 朝鮮政府를 改編시키고 결국은 合併하였다” 그런데 教科書에는 어떻게 써 있느냐 하면 “甲午年 1894년에 朝鮮政府의 改編을 更張 나라를 새로이 확장시킨 장한 일”이라고 記述하였음. 그런데 高等學校 教科書를 보면 몹시 신중히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高等學校 教科書 239「페이지」의 中間쯤에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結論的인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甲午更張은 朝鮮에서 絶실했던 軍隊의 養成이나 軍制의 改編같은 것에는 손도 대지 못하는 他律的인 면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甲午更張이라는 것은 日本의 압박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甲午更張은 近代의 改革임에도 불구하고 國民의 支持를 얻지 못하고 도리어 심한 反撥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쪽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註에 해석이 달아 있습니다. “甲午更張은 推進上에 있어서나 內容面에 있어서 日帝가 왜곡시켜 非自主的인 면이 많았다 開化란 自主的인 立場일 때에는 近代化의 推進이 되나 他律的인 立場일 때에는 帝國主義 침략의 방편이 되는 性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것이 꼭 教科書가 옳다는 말씀은 아니고 여기에 읽으셔서 評을 할 때 잘못 評이 있거나 앓을까 해서 다시 한번 重要的 點만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韓國史에 대한 것이 모두 다 完成되고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언제나 발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잘못이 是正되면은 마땅히 이것은 國史教科書에 反映시키고 또 史學界에 반성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더 具體的인 것은 오늘 發表해 주실 서울大學 金哲煥先生님과 또 東國大學校 李龍範先生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또 한 가지는 安博士님께 절대로 어떤 실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公的인 立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韓柄來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朴時仁教授 나오셔서 陳述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述人 朴時仁 委員 여러분! 이러한 기회를 만드셔서 建國이래 처음으로 國家的 次元에서 國史를 再檢討해서 바른 歷史觀을 確立하겠다는 決議를 가지시고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일을 請願하신 安浩相博士가 불러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國史學教授님들이나 또는 國史教科書를 만든 文敎部에 대해서 저도 文敎部에 속한 사람으로서 서울大學校에 있으며 다른 證言을 하시는 분들도 제 同僚들입니다.

個人的인 이유에서 다르게 말하려는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사실대로만 얘기할 것입니다. 제 의견을 말하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만일에 제 의견을 말하는 바가 있다면 나중에 지적해 주십시오. 확실한 資料를 提示하여 역사적 사실만 말씀할 것입니다.

그러면 時間關係로 곧 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油印物에 의해서 간단간단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첫째로 日帝植民史觀을 지금까지 敎育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연이 무엇인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現行 國史教科書에는 중대한 誤謬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므로 그 중에서 중요한 誤謬들만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의 國史教科書에는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할 것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대한 것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둘째는 教科書에는 사실과 다른 것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教科書에는 마땅히 실지 말았어야 할 것을 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日帝植民史觀을 지금까지 敎育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8月29日이 國恥日이고 한달 지난 10月1日에 總督府가 개설되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리 준비가 다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쓰던 敎科書를 모두 不法化하고 沒收하였습니다.

敎科書 가운데에서 첫째 對象이 뭐냐하면 國史敎科書였지요. 그래서 다 沒收해 갔습니다.

1910年11월에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다음 해 1911年8月24日에는 朝鮮敎育令을 시행했습니다.

朝鮮敎育令은 朝鮮사람을 日本에 忠誠을 다하는 植民地 百姓으로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敎育令 自體에 明記해 있고 오늘날 日本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터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우리 韓國에 대한 敎育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愛國的인 抵抗運動이 연속 일어나고 3·1運動도 있고 臨時政府가 서고 하자 日本은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으니까 1920年부터 日本歷史를 우리 國史라 하고 普通學校에서부터 가르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1922년에는 朝鮮史編修會라는 것을 組織했습니다. 總 責任자가 누군가 하면 朝鮮總督府의 總督 다음인 政務總監이었습니다.

그리고 李完用 朴泳孝 등을 顧問으로 모시고 이 事業의 指揮者로서는 東京帝國大學의 黑板勝美 京都帝國大學의 內藤虎次郎 京城帝國大學의 藤田亮策등 日本史學의 1級 敎授들이 事業의 指揮者로 만들었습니다.

實務者로서는 總督府와 中樞院에 있는 日本人 職員들을 쓰고 그리고 일부 朝鮮사람도 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朝鮮史 34卷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1932년부터 38년까지 사이에 걸쳐서 34卷을 出版했는데 「페이지」數를 合算해 보면 2萬4,409「페이지」나 됩니다. 그 속에 담은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不利한 資料를 주로 하고 그 외에 실지 않을 수 없는 資料도 다소 섞은 것입니다. 그리고 1937年10月1日에서 “皇國臣民의 誓詞”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회합때마다 그것을 외우며 日本에

忠誠을 盟誓하게 했습니다.

41年3月31日엔 國民學校에서도 우리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日本語만 써라 日本語가 國語다 이렇게 강요했습니다.

43年3月2日에는 드디어 徵兵制를 實施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光復을 향하여 총을 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혹은 南太平洋에 끌려가고 혹은 中國에 끌려가서 우리의 學徒兵과 우리의 靑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의 光復을 향해서 총을 쏘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45年8月15日에 光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國語를 쓰게 되고 또 創氏改名했던 것을 버리고 朴氏면 朴氏 金氏면 金氏라고 자기 姓과 이름을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마는 國史는 아직도 되찾지 않았습니다. 그 理由는 日帝治下에 저들이 조작한 朝鮮史라는 것을 專攻한 분들이 國史學敎授가 그 朝鮮史를 편찬할 때에 加擔했던 분들이 國史編纂委員長도 되고 그 분들이 쓴 國史敎科書를 檢認定敎科書로서 文敎部가 認定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한 結果 國民들은 韓國人으로 태어난 것을 不幸하게 생각하고 日本을 숭상하고 美國사람을 좋아하고 北韓에서는 蘇聯을 좋아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作故하신 朴大統領께서는 여러번 敎育大會에 나가셔서 國籍있는 敎育을 해달라고 力說하셨습니다.

그러나 國史敎科書가 日帝植民史觀을 그대로 담고 있으므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드디어 68年12月5日에 國民敎育憲章을 頒布했습니다. 祖上의 빛난 일을 오늘에 되살려 扶相助 協同해서 새 歷史를 이룩하자고 하지만 協同하지 않는 氣風과 反政府的인 言動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73년에 이르러 大統領의 指示로 文敎部長官은 國史敎科書에 日帝植民史觀이 들어있어서 敎育에 심한 해독을 끼친다는 이유로 國史敎科書를 전부 廢棄해 버린다고 宣言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國史敎科書를 만들어서 新學年부터 쓰겠다고 發表했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 여기 文敎部를 代表해서 나와 계신 분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文敎部는 참으로 必要適切한 일을 기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文敎部는 그 일을 國史編纂委員會와 相談

하고 國史敎授 등한테 시켜서 새로운 國史敎科書를 만들어 74년부터 지금까지 使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큰 失手가 있었습니다.

모처럼의 이와 같은 大事業을 일으키면서 過去에 日本이 朝鮮史를 만들 때에 넣은 國家的인 정력의 10분의 1도 넣지 않았습니니다. 겨우 몇 달 동안이라는 短期間에 五千年史를 改正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改正된 때가 전혀없는 日本植民史觀을 답습했다는 이유로, 우리 政府가 폐기한 것과 똑같은 책이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 버렸다는 사실은 過去의 檢認定 國史敎科書하고 현재의 國史敎科書를 對照해 보면 곧 알 수 있습니다. 內容이 똑 같습니다. 하나하나의 文字는 다르지만 內容은 사실상 완전히 같습니다.

本 委員會는 이 사실을 반드시 조사하시고 確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文敎部는 敎科書를 改正하라고 國史編纂委員會나 國史敎授들 한테 委屬하였으면 改正하였다는 원고를 접수할 때에 과연 충분히 改正되었나 안되었나를 檢討하는 委員會라도 構成하고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전혀 檢討하지 않고 원고를 받아 그냥 機械에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되었겠습니까? 植民史觀의 再版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74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國史敎科書는 “統一한 國史敎育內容”이라는 제목이 國史敎科書 편찬요목에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그 요목은 72년에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73年度에 政府가 모든 檢認定 國史敎科書를 폐기할 때에 동시에 폐기된 요목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敎科書도 당연히 폐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잘못된 줄을 모르고 잘못된 줄만 믿고 있는 文敎部는 國史編纂委員會와 國史學敎授들을 믿은 죄밖에는 善意의 피해자입니다. 이리하여 1973년의 國史改正事業은 실패되고 말았으니 이번에 야말로 제대로 改正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인들의 “現行 國史敎科書의 重大誤謬의 概要”에 관해 말씀하겠습니다. 國史敎科書에는 마땅히 실려 있어야 될 것인데 없는 것이 많습니다. 무엇이 없는가 하면 우선 우리 民族의 系統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民族은 黃人種이고 「알타이」語族에 속한다 라고만

하고 黃人種이 어디에 얼마나 사는지 「알타이」語族이 어디에 어떻게 分布되어 있는지 전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國民學生 中學生 高等學生이 어떻게 저절로 알겠습니까? 간단한 說明이라도 있어야 하지요.

우리는 人種學的으로는 黃人種 즉 「몽고로이드」에 속하고 言語學的으로는 「알타이」語族에 속하고 中國記錄에 의하면 東夷族에 속합니다.

黃人種은 아시아서 퍼져 넓게 地球의 大部分에 分布해 있습니다.

「印度」를 제외한 「아시아」 전체와 「알라스카」 「캐나다」 美國 「멕시코」 南美 끝까지와 太平洋의 많은 섬들에도 分布해 있습니다.

소위 地理的 發見의 時代 이후에 西洋사람들에게 많은 침식을 당하게 되었지요.

「알타이」語族으로 말하면 「알타이」山脈에서 西南으로 「터어키」까지 西쪽으로 「헝가리」와 「핀란드」까지 東南으로 몽고 만주 한반도 日本까지 分布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가 만주와 몽고에서 中國에 들어간 것이 東夷族이고 만주에서 한반도와 日本으로 내려온 것도 東夷族입니다. 先秦時代의 中國記錄에 보이는 東夷는 中國안의 東쪽 部分에 있는 우리 系統의 사람들을 말한 것이고 漢나라 이후의 中國記錄의 東夷는 滿洲 韓半島 日本 等地의 東夷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 民族의 그 系統에 관해 이 程度의 설명도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교과서에는 建國理念을 전혀 실지 않았습니니다. 檀君에 관한 이야기만은 실어있으나……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환인의 아들 환웅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생각으로 人間生活에 관계된 바람 비 폭식 生命 動을 자자 主管하는 部下들을 거느리고 太白山 꼭대기에 내려와 神市를 建設하고 百姓들을 다스렸다 그러던 중 곰이 사람이 되기를 원하므로 곰을 女子로 변하게 하고 그와 婚姻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곧 檀君王儉이다 바로 이 檀君王儉이 西紀前 2333년에 아사달(지금의 平壤)에 도읍을 정하고 朝鮮나라를 세웠다”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이와 같은……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왜 敎科書에다가 실습니까? 우리 祖上은 곰을 女子로 변하게 하고 그와 婚姻했다고 하였으니 國民學校 敎室이 얼마나 떠들겠습니까

까? 웃음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실어서는 아니됩니다. 이 이야기는 檀君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의 아들 天子라는 뜻입니다. 世界各國의 王은 天子라는 思想 많지 않습니까? 太白山의 곰과 범은 그 산의 산신령입니다. 범은 사나운 산신령입니다. 武를 대표하였읍니다.

그래서 三國遺事에는 百濟 武王을 虎王이라고 하고 新羅 文武王은 文虎王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始祖임금은 사납지 않고 어진 임금이었다는 뜻에서 범이 아니라 곰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곰은 어진 산신령 地神이었습니다.

檀君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天神과 地神이 합하여 하늘이 아버지가 되고 땅이 어머니가 되어 天地사이에 人間의 王이 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을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실는 것은 백해무익합니다.

우리 민족은 단군 조선 뿐만 아니라 扶餘 高句麗 百濟 駕洛 新羅 등등 많은 나라를 세웠읍니다. 이런 나라들은 모두 王은 太陽이라는 뜻의 卵生史話를 가졌읍니다. 太陽의 무엇이 좋아서 그랬던가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太陽은 빛나고 따뜻하고 만물을 고루 비춥니다. 太陽의 빛은 智慧 따듯함은 사람 만물을 고루 비추는 平等을 상징했읍니다. 智慧와 사랑과 平等 이것이 우리 國家의 理念입니다. 政治理念이고 教育理念이었습니다. 역사에서 이런 중요한 것을 아니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칩니까? 나라를 세웠으면 建國理念을 가르쳐야지요. 오늘날 우리 國會나 政府의 理念도 같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北韓共產黨은 사랑이 아니라 階級鬭爭 미움을 근본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大韓民國이 좋다고 選擇하고 여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國史教科書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족의 역사에서 나라를 세운 일처럼 중대한 일이 없는데 왜 '나라를 세웠느냐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국사책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日本사람들은 우리나라 歷史를 그렇게 짓밟았지만 자기들의 나라는 天照大神의 자손이 세웠다고 하면서 天照大神 즉 太陽神을 얼마나 모십니까? 天照大神을 모시는 神官 神社가 日本 全國에 무수히 많읍니다. 그런데 우

리는 檀君을 神話라고 부인해서야 되겠습니까? 太宗大王께서도 檀君을 모셨고 世宗大王께서도 世祖大王께서도 모셨읍니다. 歷代임금이 모시고 歷代祖上들이 다 모신 것을 나로서는 否認할 용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檀君을 國祖로 모시으로써 檀君의 子孫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얘기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럼으로써 우리는 單一民族이라는 의식과 단결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단군을 부인한 결과 우리는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이 파괴되어 심지어 高句麗와 新羅가 서로 말이 달랐다는 국어학자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큰일 날 소리입니다. 民族의 分裂을 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責任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國史를 그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祖上들이 대대로 받아들여온 檀君을 함부로 부인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中國의 學者 동자빈도 檀紀는 西紀前 2333年이 옳다고 인정하였읍니다. 李大統領때에 와서 그렇게 쓴 論文을 발표하고 갔읍니다. 美國의 「라이사워」教授도 East Asia: The Great Tradition(東部亞細亞 위대한 傳統)이라는 저서에서 韓國을 다룰 적에 檀君에 관해 자세히 言及했읍니다.

그 다음 현재의 國史教科書에는 우리 민족이 對外進出한 사실들을 신지 않았읍니다.

우리 民族은 對外進出을 많이 했읍니다. 예컨대 高句麗 王族은 中國 南北朝時代의 北魏에 가서 여러 皇后를 배출하고 그 나라의 정권을 좌우하는 外戚이 되었습니다. 예컨대 北魏의 孝文昭皇后 孝武皇后 東魏의 孝靜皇后 등은 高句麗 王族高氏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高句麗 高氏와 宇文氏가 그 나라를 東西魏로 나누었다가 東魏의 帝位를 빼앗고 北齊라는 王朝를 세웠읍니다. 즉 高洋이라는 분이 北齊라는 中國王朝의 始祖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北史 魏書 등에 자세히 있습니다.

그리고 高句麗王族인 高雲은 北燕王이 되었습니다. 廣開土王時代의 일입니다. 우리 廣開土王은 지금의 北京으로 여러번 진격해 들어갔읍니다.

그리고 百濟는 아까 安浩相博士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遼西 晉平郡을 차지하였고 또 揚子江 左右에도 領土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이 사실은 中國의 여러 正史에 누누이 기

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 국사교과서에는 이런 사실을 실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三國時代의 우리 겨레는 日本에 건너가서 日本民族의 主流를 이루고 日本文化의 기틀을 세웠습니니다.

國史教科書에는 이 사실의 일부를 실기는 하였습니니다만 그런 정도로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日本書紀를 볼 것같으면 三國時代의 우리겨레가 무수히 日本으로 건너가서 그 나라의 기틀을 세웠습니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日本學者들도 말하기를 日本의 第40代 天武天皇도 新羅系의 사람이고 第50代 桓武天皇도 新羅系다 라고 합니다.

騎馬民族說을 말하는 사람들도 日本民族은 韓國에서 건너갔다고 합니다. 日本紀의 第10代 崇神天皇은 韓國에서 건너가서 日本의 初代 天皇이 된 사람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東京大學에 있던 江上波夫教授의 說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國史冊은 慶尙道 洛東江流域에 日本府가 있었다는 것조차도 否認하지 않고 있습니다. 歷史工夫는 우리 民族이 과거에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자고 하는 일이 아닙니까? 歷史를 연구하는 까닭은 과거의 同胞찾기와 精神찾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教科書는 못쓴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同胞를 적으로 보고 野蠻視하고 실지 않았습니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高句麗 다음에 渤海고 渤海 다음에 무엇입니까?

教科書에 보면 渤海 다음에 그 땅을 오랑캐 女眞들이 다 먹어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委員님들께서는 安博士가 提出하신 資料를 가지고 계시지요?

○委員長 韓柄索 에 가지고 있습니다.

○陳述人 朴時仁 가지고 계시면 그 資料의 第11番 金史卷一에서 「리프린트」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金나라 先祖는 靺鞨이라고 있습니다. 渤海도 高句麗의 靺鞨部가 세웠지요. 그러니까 渤海사람이 金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金나라 太祖가 渤海人들을 모아놓고 “女眞과 渤海는 本 同一家다”라고 말한 것도 여기 記錄돼 있습니다. 渤海와 女眞은 同一家며

다같이 高句麗의 後孫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金史에 記錄된 이 사실을 환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니다. 金나라는 滿洲와 中國의 北쪽 절반을 領有한 큰 나라였습니니다. 金과 國境을 接하고 있는 高麗에서는 尹 瓘將軍을 내보내면서 將軍이 나가서 國境을 잘 지키시요. 敵을 보면 見敵必殺하라 오랑캐를 무찌르라고 하였습니다. 國境線을 지키려니까 그렇게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事實을 알고 보면 金나라는 高句麗 渤海의 遺民 女眞의 나라며 高麗와 同族이었습니니다.

金나라 다음에 女眞은 後金 즉 淸을 세웠습니니다. “明나라 中葉에 建州衛 즉 長白山 뒤편에 李滿住라 하는 女眞酋長이 있었는데 그는 朝鮮 咸吉道에서 興京地方에 移徙한 사람인데 그의 後孫되시는 淸太祖는 그 都統을 이어받아서 滿洲汗이라고 하였다”라고 滿洲源流考에 있습니다. 淸太祖는 光海君 13년에 光海君한테 이 國書를 보냈습니니다. 이 便紙는 滿文老檔과 滿洲老檔秘錄이란 冊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 그 편지를 引用한 것이 있습니다.

때는 光海君13年(西紀 1621年) 7月입니다. 내가 듣건데 朝鮮은 箕子가 남긴 百姓입니다. 殷나라 임금이 無道하여 親戚인 箕子는 朝鮮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는 것입니다.

遼東이 본시 朝鮮國土입니다. 明人專亡하여도 爾不知讐하고 도리어는 나라에 臣服하고 있으니 말이 됩니까? 나는 明나라가 두렵지 않습니니다. 나와 더불어 修好하기가 싫거든 마음대로 하시오라는 內容입니다. 그러나 朝鮮이 修好하지 않으므로 먼저 朝鮮을 치고 中國을 征服하였습니니다. 金나라도 後金 즉 淸나라도 高句麗 渤海의 後孫이며 高麗 朝鮮과 同族의 나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니다. 그러나 高麗와 朝鮮은 北方의 國境線을 지키기에 바빠서 見敵必殺 初戰撲殺이라고 외쳤습니니다. 오늘날 休戰線에서의 狀況하고 똑같습니니다. 우리가 女眞을 異民族視하는 것은 우리가 北韓同胞를 傀儡라고 말하는 버릇을 우리 後孫이 이어받아서 南北韓의 民族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니다.

다음에는 國史教科書에 事實과 다르게 記述한 것을 지적하겠습니니다. 교과서에는 檀君은 神話라고 하고 箕子에 대해서는 言及도 안했습니니다.

그리하여 俗稱 5000年이라고 하던 우리 역사를 紀元前 194年 衛滿부터 1981年 오늘까지 2175年の 歴史로 단축시켜 버렸습니다. 누구의 許可를 받고 마음대로 잘랐느냐 말씀입니다. 國史編纂委員會가 이렇게 만들었다면 責任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領域問題입니다. 衛滿의 朝鮮은 河北省에 있었습니다. 日本의 東北大學教授 井上秀雄著 延世大學校 金東旭博士譯 “韓國古代史”에도 “韓國에서 자기나라를 朝鮮이라고 한 것은 高麗이후다 中國에 있어서 朝鮮이란 呼稱한 戰國時代에 編纂된 管子란 冊하고 戰國策에서 비롯되는데 地方의 異民族의 居住地域현재의 河北省方面을 總稱한 것이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衛滿은 朝鮮人이었음은 李丙巖博士께서도 冊에서도 學會에서도 자주 밝혔습니다.

衛滿은 燕나라에 살았지만 그래서 燕人이라고 하지만 燕나라에 살고 있던 朝鮮人입니다. 지금이라도 李博士께 電話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의 弟子들은 스승의 말을 안 듣고 國史教科書에서 만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통일한국사교육내용”의 2項에 “衛滿에 대해서 民族的 所屬을 밝히지 않는다”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73年度에 펴낸 것입니다. 國史教科書는 이 방침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國史教科書는 틀린다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73年度에 政府는 그 이전의 國史教科書와 國史教科書編纂요목은 모두 무효라고 그랬으니까요. 政府의 말도 안듣고 스승의 말도 안 듣고 國史教科書를 만든 것입니다.

다음에는 朝鮮四郡에 대해서 史記에는 朝鮮戰爭에 漢武帝가 朝鮮에 보낸 水陸兩軍이 屈辱 多같이 辱을 당하고 將卒中에 한 사람도 候가 된 자가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漢나라가 敗戰하였다고 自認한 것입니다. 漢武帝의 史官인 司馬遷이 漢나라가 졌다는 戰爭인데 왜 우리가 저서 망했다고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 根據를 내 놓아라고 하십시오. 그 根據는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추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에는 眞蕃 臨屯 樂浪 玄菟 등의 四郡을 漢武帝가 두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史記에는 없는 낭설입니다. 眞蕃과 臨屯은 漢武帝가 설치한 郡이 아니라 그의 선조 漢高祖때

에도 있던 朝鮮의 地名입니다. 樂浪 玄菟는 史記에는 아직 안 나타난 地名입니다. 漢武帝가 죽은 뒤에 그의 아들 昭帝때에 玄菟라는 地名이 처음 나타나고 樂浪이라는 地名은 더 나중에 처음 나타납니다. 玄菟 樂浪은 어느 地方인가 하면 燕나라에 속한다고 漢書 28卷 地理志에 있습니다. 燕 즉 오늘의 河北省 北京 근처라는 말입니다.

三國의 建國年代에 대해서 教科書에는 高句麗는 2世紀 太祖王때 百濟는 古爾王때 新羅는 奈勿王때에 古代國家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高句麗 百濟 新羅의 年代를 이렇게 끌어 내린 근거를 요청하십시오. 그런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高句麗는 貉族이라고 했는데 貉은 論語에도 詩經에도 벌써 나옵니다. 歷史紀元이 오릅니다. 그것을 探究해야지요.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다음은 우리의 民族性에 관한 문제 제가 보 전대는 우리는 團結을 잘하는 民族입니다. 人和가 特色입니다. 高句麗는 團結이 잘 되어서 人和를 잘 이루었기 때문에 隋나라 200萬軍이 침입한 것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唐나라 太宗의 몇 십萬軍도 人和로써 섬멸하였습니다.

그 人和를 一時 잃고 男生이 唐나라에 붙었기 때문에 高句麗는 망했습니다.

國史教科書에는 위대한 高句麗의 歷史를 겨우 몇 줄로 다루었습니다. 朝鮮時代의 黨爭士禍보다 더 적게 다루었습니다.

「페이지」數 行數를 세어 보십시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高麗의 人和도 또한 보통이 아닙니다. 高麗는 1231년에 元나라의 侵略을 받고 江華島에 들어갔지요. 얼마동안 거기서 싸웠습니까? 52년까지 21년동안 江華島에서 버티었습니다. 그 동안에 元나라는 「플랜드」 「항가리」 「바그다드」까지 征服했습니다. 이렇게 世界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高麗는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高麗의 護國精神은 類例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事實인데 歷史에서 반드시 강조해서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교과서에는 一言半句도 없습니다. 高麗가 굉장히 고생했다는 얘기밖에는 없습니다.

壬辰倭亂때 朝鮮도 잘 團結하여 敵을 격파하였습니다. 우리 民族의 人和의 特質을 교과

서에서 밝혀서 계승하여야 합니다. 歷史를 왜 합니까? 오늘을 거울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國民에게 團結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分裂을 일으켜서는 아니 됩니다. 朝鮮 太祖實錄 처음에 “太祖康獻至仁啓運聖天神武大王姓李氏諱旦字君晉古諱成桂”라고 하였습니다. 太祖姓은 李氏요 諱는 旦이고 字는 尹晉 즉 諱가 앞으로 전진한다는 뜻입니다. 옛날 이름 古諱가 成桂입니다. 王이 되신 뒤에는 이름을 旦으로 고쳐서 外字 이름으로 했습니다. 과거에 高麗 名將때 이름이 成桂지요. 朝鮮의 太祖가 李成桂라고 말하는 것은 日本 사람들이 한 말을 지금도 그대로 입버릇처럼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朝鮮의 歷代임금들은 다 外字 이름을 썼습니다.

太祖大王은 地 地平線 혹은 東海 水平線에 아침해가 떠올라 오를 때이고 나라 이름은 朝鮮 國號와 太祖의 이름이 딱 맞습니다. Sunrise (旦) morning bright(朝鮮)에는 事大主義가 없습니다.

事大主義라는 國策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과서에는 심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甲午更張이라는 말을 봅시다. 1894年 淸・日戰爭 와중에 日本軍이 우리나라 王宮에 들어와서 우리 政府를 마음대로 뜯어 고친 것을 甲午更張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更張은 維新과 비슷한 좋은 뜻입니다.

나라가 망해 가는 것을 甲午更張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 식민사관을 따른 말입니다. 教科書에는 없어야 할 것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教科書에는 原始部族國家라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原始部族國家는 共產社會지요. 私有財産制度가 없었지요. 教科書를 볼 것 같으면 “사냥한 짐승이나 農産物을 氏族 全員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고 문제가 있으면 氏族會議에서 決定하였다”라고 했습니다. 國史教科書는 물론 좋은 뜻으로 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學生들은 이것을 읽고 “La Commune” 人民公社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으면 氏族會議에서 決定했다고 한 것은 人民大會나 人民裁判을 한 것으로 해석될 可能性을 提供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封建制度가 있다고 보고 中學校 教科書 199「페이지」에 宗래의 封建的 思想을 脫皮해서 甲午更張을 일으켰다고 그랬는데 우

리나라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封建制度가 있었다는 말은 共產主義者들이 퍼뜨린 말입니다. 오늘과 같은 重大時期에 우리 역사를 가르치는 것인지 社會科學을 하자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教科書에는 兩班은 國家보다는 家族과 門中 그리고 學派를 더 重要視하는 경향이 많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향의 差를 누가 측정해 봤습니까?

中央政治의 腐敗와 墮落은 자연히 地方政治에도 파급되어 權力을 악용하여 私利私慾을 채우기에 바빴다 惡政으로 塗炭에 빠진 民衆은 불만과 분노를 품게 되어 貪官汚吏를 비방하는 壁書運動이 되고 대규모 暴動으로 확대되었다 政治制度에 따른 政治腐敗와 어지러움이 극도에 이르러 貪官汚吏가 날뛰고 三政이 더욱 문란하였다 이것은 日本 사람들이 과거에 朝鮮人은 自治能力이 없다 獨立할 資格이 없다 할 적에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을 베껴 온듯 합니다. 中央政治의 부패가 地方政治에도 波及되었다고 그랬는데 波及의 經路를 추적해 보거나 하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政治 및 政府를 不信하는 풍조를 조성하는 언사를 교과서에 써 놓은 것입니다. 교과서에는 “黨派싸움이 痼疾化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日本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지 어디 우리가 할 말입니까? 그리고 만일 그것이 事實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研究하는 것은 學問의 自由에 속한다 하더라도 國民學校나 中學校 어린이들에게 또는 高等學校 애들에게 그것을 꼭 배워줘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생각할 문제란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는 歷史家가 아니라도 國民 누구든지 옳은 判斷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자세히 檢討하시고 좋은 決定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韓柄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哲坡教授 나오셔서 陳述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述人 金哲坡 지루하신데 아마 제 答辯도 꽤 길어질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가능한 한 간추려서 要點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安浩相선생과 朴時仁선생 두 분의 見解를 듣고 나서의 所感은 그러한 것을 그대로 다

주장하면 歷史教科書가 되느냐 하는 의심이 하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現行 教科書에서 그러한 國家精神이나 民族精神을 상당히 강조했다고 教科書의 執筆者的 한 사람으로서 自負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몇몇 분이 주장하는 대로 教科書 全體가 그러한 文章으로만 되었을 적에 그것이 教科書로 成立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 지금 北韓의 高等學校 教科書를 安全企劃部의 부탁으로서 분석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의 最大의 결함은 강조하는 것의 양이 너무 많고 가르치는 것이 그 分野別로 나누면 너무나 적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結果를 낳느냐 하면 지금 成長하는 學生들은 多方面의 文化 즉 藝術이요 文學이요 思想이요 宗教요 美術 工藝요 하는 여러가지 多方面의 認識을 가지게 하여야만 그러한 여러 分野로 構成이 된 오늘날의 文化를 理解할 수 있고 發展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새로운 原動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과서는 대개 세 가지 基準에 의해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첫째는 農民의 對立 葛藤을 중심으로 하여 階級鬭爭 일색으로 얘기를 시작하는 것하고

둘째로는 對民族에 대한 抗爭史만 주로 써내는 것인데 이 分量은 우리가 쓴 高等學校 教科書에 비하면 우리가 2「페이지」半정도 썼으면 4「페이지」정도 쓴다든가 5「페이지」 쓰는 경우가 있는데 薩水大捷같은 것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째로 文化라는 것은 意味의 說明이 없이 文化의 모든 것은 다 技術이다 라는 그런 主張에서 있는 까닭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自然科學的인 어떤 技術만이 文化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세 觀點에 의해서 써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빈곤한 歷史教育을 받은 사람이 現代文化의 多樣性과 직접 접촉할 적에 당황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과거의 우리 文化의 傳統이 그렇게 빈곤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다양하고 彈性性있는 文化였습니다. 우리 文化의 特色은 外國文化에 비해서 密度가 대단히 높고 다양한 것인데 그것을 抹殺해서 그 세가지만을 歷史의 全體라고 認識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教育을 받게 되면 다양한 文化를 發展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他民族의 文化와

접촉할 적에는 競爭을 못하고 結果的으로는 우리 傳統文化가 간직하고 있는 潛在能力을 그 만큼 말살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民族의 能力을 그 만큼 半滅시키는데 우리 南쪽에 있어서는 그 半滅한 것까지도 그러한 북쪽의 文化의 貧困性까지도 우리가 責任을 지면서 극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두분 말씀에 절대로 그것하고 같은 思想이라고는 안 합니다마는 어떠한 教科書를 쓸 적에 한가지 일색으로만 죽 쓴다고 한다면 어떻게 文化教育이 제대로 되느냐 그 말씀이요. 지금 近代의인 國民倫理의 訓練을 目的으로 하고 있는데 近代國家를 建設한 經驗이 日淺한 까닭으로 해서 여러가지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데 옛날 李朝時代의 教訓이라든가 그 前 神話時代의 얘기 그것만 가지고 극복이 되느냐 그 말씀이요. 그 다음에 우리는 傳統을 合理的으로 이해하는 것과 그러한 教訓만을 強要하는 前提에서 歷史教育을 하여야 한다는 것과는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둡니다.

그 다음에 古代史를 인식하는 方法論의 문제인데 오늘날 우리의 歷史와 文化가 經濟다 宗教다 教育이다 하는 여러가지 各分野가 얽혀서 되어 나가는 것처럼 과거의 文化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시대의 역사인식을 가지고 자기와 다른 주장은 다 否認하고 글자 그대로 神話나 歷史的 教訓만 가지고 강조한다 하는 얘기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文化나 時代의 限界性이 있어요. 한 時代가 한 文化를 추진시킬 때 功이 있는 동시에 그 文化로서는 限界性이 나타나고 그것을 그 다음 時代에 다시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을 자꾸 되풀이 하는 동안에 文化의 發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安浩相先生께서 檀君關係 얘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모든 史料들을 전부 비슷한 것이면 다 연결시켜 가지고 民族이 덮어 놓고 훌륭하다 하셨는데 오늘날 古代史學에서 그렇게는 연구하지는 않습니다.

첫째 아까 東夷族은 전부다 한 民族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였는데 그런 것이 아니지요. 첫째 우리나라의 言語가 「알타이」語系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알타이」語系에 土耳其語 「통구스」語 蒙古語 그리고 韓國語등 4個를 主流를

놓고 있는데 1950년까지 살았던 「람스테트」는 이것들을 4寸間으로 가깝게 보아 왔어요. 그 言語의 系譜로 보아서 상당히 가깝게 보아 왔는데 그 뒤에 「뵘페」教授는 그것을 4寸으로 볼 수가 없다 좀 더 먼 것이다 6寸이나 8寸이나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言語의 비슷한 形態를 취하여 말하자면 單語의 父子들이 같다고 해서 비슷하면 전부 다 연결시켜서 같은 意味의 말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라 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또 言語에 의하여 歷史的 事實을 主張하려면 적어도 言語學的인 知識은 있어야 하는데 그 知識이 없이 漢文의 비슷한 것을 가져다 대 보고 전부 다 틀렸든가 맞든가로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 것이고 外國의 學界에 대한 說得力을 갖지를 못합니다. 조금 現代教育을 받은 高等學校 水準만 해도 그러한 주장은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얘기인데 文化 各 分野의 水準이 올라가야만 近代學問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各 分野에 대한 자기 해석이 어느 정도 올라간 水準에 있을 적에 그 分野에서 정리한 知識이 歷史學으로서 綜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言語學도 하고 宗敎學도 하고 歷史學도 하고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러한 歷史라는 것은 歷史 이하의 歷史요 近代史學의 水準을 알지 못하고 내리는 歷史解釋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近代化 하고 있는데 外國民族은 100年前 200年前에 近代化 했어요.

그리고 近代文化를 設定하는 實踐經驗을 그동안 쌓아 오면서 고쳐고 고쳐서 오늘날의 水準에 올라 왔어요. 現代文化基盤이 정리된 뒤에 나오는 그러한 文化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學問狀態도 그렇지만 오늘날의 文化狀況이 어떤 中世的 體質이나 그 前에 殖民地 時代에 敎育받은 그 體質만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對抗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한가지 留意하여야 할 것은 學問 自體 그런 分野別 近代學問 自體가 오늘날의 文化를 構成하는 近代의 文化能力이라는 점입니다. 學問의 生活 整理能力없이 는 近代文化를 생각할 수 없어요. 말하자면 中世에 世宗大王의 文化가 발달했다 하는데 그것은 世宗大王이 그 당시의 水準에서 가장 最高의

學問을 가져다가 연결시키면서 政策을 決定했기 때문에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學問의 한 分野만 한 것이 아니에요 哲學을 하고 言語學을 하고 音樂을 하고 地理學 技術學을 하고 農業學을 하고 法學을 했어요.

또 音韻學을 하고 이러한 文化 全體를 연구하는 학문의 產物이 集合되면서 한글을 創製함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것을 認識 못하는 歷史意識이라는 것은 時代錯誤입니다.

그 다음에 資料問題인데 古代史를 研究하는데 필요한 地理資料라든지 는 李龍範博士께서 뒤에 얘기하겠습니까마는 資料를 解釋하는데 있어서 한 資料가 나오면 그 資料가 成立된 그 당시의 背景을 中國의 資料면 그 中國의 社會性格 文化의 性格이 무엇이나 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언제 만들어지고 僞書이건 진짜건 언제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의 社會狀況을 알아야 하며 그 후의 歷史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지 그것을 알지 않고 時代를 뛰어 넘어 함부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古代의 中國神話集의 性格을 갖는 山海經에서 나오는 얘기를 그 뒤에 와서 아무렇게나 연결시켜서 설명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또 그 외의 地名資料를 연결시켜가지고 그대로 幻想的으로 說明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東國文獻備考의 資料引用과 그 解釋에서도 그러한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引用을 잘못 하게 되면은 그 前代의 限界性을 克服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後에 와서 잘못 解釋한 限界性도 克服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克服하지 못하는 힘만을 形成시키고 그것으로써 만족한다면 民族文化의 將來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한 면에서 日本의 文獻高等 批評이라는 것이 獨逸에서 온 것입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價値를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에는 限界性이 있습니다. 日本사람들이 傳統文化의 貧困에서 그 사람들의 「콕플렉스」를 克服하기 위해서 韓國史觀을 만들고 하는 그 限界性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別個의 문제이고 考證學이 資料를 整理해 나가는 그 基礎 基盤없이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이제 잠시 韓國의 古代史의 性格과 古代史의 研究問題를 종합하여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古朝鮮에 대해서 東國通鑑神道(外題傳言及을 하오) 東史綱目에도 言及을 하느라 그때 변변한 사람이 없어서 史料를 다 잃었다. 檀君이 확실히 偉人인 것은 불림없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否認하는 것이 아니라 儒敎史觀에 입각하였을 적에 佛敎로 潤色된 그 神話的인 傳説은 곤란하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내려와서 栗谷은 檀君은 言及하지 않고 箕子實記만을 썼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平壤에 온 箕子が 德이 있어서 그것을 퍼 勢力이 커져가지고 滿洲와 韓國一帶를 다 다스리고 中國하고 對峙했다는 式의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 偉人인 한 곳에 와서 그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커지었다 하는 것이 過去 中世史學의 說明「패턴」이예요. 그런데 두 분이 말씀 안하더라도 日本 사람들은 檀君神話를 否認하고 우리 歷史를 衛滿 때부터 記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神話라고 해서 否認하는 神話의 意味를 모르는 限界性에서 오는 것으로 이것에 대한 批判에 丹齋와 六堂이 처음으로 登場해서 새로운 面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 합니다.

이들이 史家로서 이러한 古朝鮮을 보다 정확히 理解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近代史學의 첫 出發이요 近代史學 精神의 첫 表現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側面은 大倭敎의 立場에 서서 栗谷이 箕子實記에서 全體를 얘기하는 것처럼 古朝鮮을 檀君중심으로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檀君朝鮮을 내세우면서 한 丹齋의 獨立運動이나 大倭敎의 活動이 결코 意義가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어떠한 形態로든지 民族을 結束시켜가지고 活動을 시키자니까 民族意識의 背景으로서 그러한 學說을 내세운 것은 그 당시로서는 가능한 것이예요. 그러나 丹齋의 그러한 것만을 理解해 가지고 그것이 丹齋의 全部라고 생각하고 오늘날까지 그것을 批判만 하는 사람도 곤란하고 그것만을 歷史의 正道라고 理解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적어도 그러한 民族의 獨立運動의 實踐運動을 통하면서 歷史의 意味를 近代的으로 깨달은 1925年 이후에 와서의 學問活動의 意味는 큰 것입니다.

그의 認識이 왜 近代的인 認識이나 하면은 古

朝鮮時代의 民族移動을 마치고 發見하는 것입니다. 古朝鮮이 北中國地域에서부터 移動해서 첫째 郡國하였던 險濱은 어디고 둘째 險濱은 어디고 셋째 險濱은 平壤이다 하는 그 玉儉城이 있던 險濱의 位置가 變해 나간다는 것을 認定한 것입니다.

民族의 移動을 그러한 式으로 考察한다는 것은 대단한 冒見이예요. 왜냐 하면 한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始祖에 의해서만 커진 것이 아니라 民族의 移動過程에서 成長한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런데 뒤의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알아 移動하는 것은 前住居地域을 버리고 그 다음 地域에 移動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 안하고 버리고 移動한 그 全地域까지 모두 古朝鮮이었다 古朝鮮의 實勢力圈이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유치합니다.

지금 北쪽의 이지린 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底意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北方에 자리잡고 있는 北韓의 正統性을 내세우기 위해서 古朝鮮 당시부터의 領域을 擴大하고 그 다음에 樂浪郡 등 漢四郡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첫째 한 나라가 成長하면 그 다음에 變遷이 어찌 되었는가를 理解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주장하려는 것의 反對資料가 나오든가 불리한 것이 나오면 그것은 눈을 감고 「이데올로기」的인 資料만 煽動하는데 필요한 資料만 갖다가 연결시켜가지고 하나의 주장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어요.

말하자면 漢四郡의 침입이 없고 古朝鮮이 그렇게 盛했다고 한다면 高句麗 新羅 百濟가 魏志 東夷傳이나 三國史記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狀態로서 成長하지는 않습니다. 三國史記나 三國遺事를 읽어 보세요. 그 初期의 成長狀態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部族國家라고 해서 어떠한 唯物史觀的인 것하고 연결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人類學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은 「트라이발 스테이트」나 「트라이발 소사이어티」나 하는 용어를 얼마든지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漢四郡이 우리나라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漢四郡이 없었다 하면 좋은 것 같지만 漢四郡이 없었으면 高句麗史와 百濟史의 歷史的 課題가 무엇인가를 說明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 왔던 植民地를 내어

뜻으면서 古代國家를 成立하는 것이 高句麗歷史의 使命이요 百濟歷史의 使命이었어요. 漢四郡이 없었다면 漢四郡과 싸우는 과정을 어떻게 說明하느냐 그 말이에요. 모름지기 主體認識이라는 것이 뭘 意味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現代文化를 建設하는데 있어서 險路와 限界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正確히 인식하고 부단히 克服해 나가는 것이 主體性確保의 前提입니다.

다시 말하면 限界性을 認識 안 하고는 主體性을 成立시킬 前提가 成立되지 않을 않아요. 自己限界性을 克服하면서 生活能力을 增大하는 活動을 할 때에 歷史의 主體性과 正統性이 있는 것이지 權君만 얘기하고 歷史의 年代란 올리면 누가 主體性과 正統性을 가져다 주느냐 그 말이에요. 國際生存競爭이라는 것이 그렇게 유치하고 堯舜時節같이 어리숙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東夷의 問題인데 東濱 金庠基博士가 “東夷와 淮夷 徐戎에 대하여”라는 論文을 遷都지후 延世大學에서 나오는 東方學志 第1集 2集에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있어서 中國地方 (山東省地域과 淮河流域)에 있는 東夷族들을 分析을 하고 몇 個 部族은 우리 民族의 主體가 된 貊이라든가 韓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言語學的으로 얘기 했읍니다마는 女眞族은 우리 民族이 아닙니다. 우리 民族은 貊과 韓이 主體로 하면서 形成된 것인데 그것은 女眞族과는 言語上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女眞族이 우리와 같은 民族이라면 光海君때나 仁祖때의 歷史가 다르게 進行되었을 것입니다. 光海君이 西人에 의해서 쫓겨 나갈 적에 西人들은 仁祖反正을 合理化하기 위해서 賢明했던 光海君의 外交政策까지 非難하고 어떤 準備도 없이 女眞族에 대한 強硬策만 주장하였읍니다. 當路者들이 좀더 賢明하였다면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만일 同族이었다면 丙子胡亂을 당하여 기막힌 辱을 당했을 적에 韓國사람들과 女眞族 사이에 同族意識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對應關係가 되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또 淸나라의 祖上이 高麗時代에는 金나라를 세웠는데 金나라의 完顔部가 자기 祖上이 新羅사람이라는 說話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完顔部王室에 新羅사람의 피가 섞인 것은 사실이나 完顔部 全體

가 新羅人은 아닙니다.

한편 滿洲源流考를 지금 자주 들먹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 叢誌學的으로 說明하실 분이 계시리라 봅니다마는 滿洲源流考는 뭐냐 하면 淸이 明나라를 멸하고 中國을 占領했지만 원래부터 文化的인 「콤플렉스」가 있을 뿐만 아니라 女眞族이 자주 中國文化에 의해 解體 당하고 吸收 당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傳統을 세우기 위하여 滿洲地域에서 일어난 興亡盛衰의 記錄을 全部 綜合하고 그 안에 있었던 民族은 다 자기 部族이라고 주장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女眞族의 部族이라고 하는 이름아래 新羅 百濟가 있고 扶餘가 있는 것입니다. 高句麗는 차마 女眞族의 部族이라는 題目을 달지 못하고 扶餘아래다가 高句麗에 대한 說明을 약간 하고 있는데 왜 그런고 하면 高句麗의 傘下에서 文化的 補給을 받으면서 성장하였고 高句麗가 唐나라 隋나라하고 싸울 적에 靺鞨族(女眞族)이 말하자면 徵兵 당했다고 할까 靺鞨族을 부려 가지고 싸운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歷史的 事實이 있는 이상 高句麗를 自己部族이라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舊石器時代 新石器時代에 올라가면 무슨 民族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읍니다마는 歷史가 흐름에 따라 文化經驗이 축적되고 그 文化가 달라질 적에는 자연히 民族이 형성되고 民族마다의 個性이 달라지는데 李朝時代까지 半農半牧狀態에 오래 머물러 있는 女眞族과 우리 民族이 어떻게 同族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山海經에 대한 理解를 하나의 例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安浩相博士께서 “東夷種族의 本고장과 高·百·新 三國의 中國統治地域”이라는 論文을 쓰셨는데 山海經第十八海內經에 “東海之內 北海之隅 有國名 曰朝鮮”이라 한 것을 引用하여 여기에 나오는 東海를 우리 半島의 東海로 보고 그 다음에 “北海之隅”하니까 東海 北쪽의 구석이 아마 「블라디보스토크」일 것이라 하여 古朝鮮이 거기까지 갔던 증거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東海는 中國의 東海 黃海입니다.

黃海의 北方은 渤海灣이니까 箕子朝鮮이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 近年에 中共에서 發掘된 考古學 資料가 나타난 것이지만 箕侯方鼎이 大凌河流域에 喀左縣에서

出土되었는데 이것이箕子朝鮮이 거기에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留意해야 할 것은 그 무덤에서 나온 물건이 우리 先史文化하고는 關聯이 없다는 점입니다.

殷나라 물건이 周나라에 들어와서 변화한 그 쪽의, 中國系 殷·周系統의 青銅器文化이지 우리 文化하고는 關聯이 없습니다.

이로 보아서 箕子朝鮮을 우리 民族의 나라가 아니라고 否認해도 偏참습니다마는 이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箕子가 그 곳에 와서 建設했다고 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 있어서 中國의 植民地 經營理論의 性格을 갖는 것으로서 中國의 韓國 支配를 合理化하는 하나의 說話가 되어 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箕子에 대한 자료를 우리 역사에서 찾는다면 隋書 高句麗傳에 箕子神을 모신 것이 보입니다만 그것은 高句麗에 온 中國系流移民이 모시는 神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뒤 高麗時代에 와서 肅宗 연간에 中國文化를 많이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箕子의 後裔인 文化民族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箕子의 東來說이 있으니 箕子의 무덤까지 찾아라 하여 平壤에 가서 箕子무덤을 찾아 가지고 (찾은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든 것이지만) 祠堂을 세우고 했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韓國사람은 箕子關係 說話를 事實로 받아들이지 않아 그렇게 神經쓰지 않았어요. 그 뒤에 李朝時代에 들어서 언필칭 文化國家 中國式 文化國家라는 얘기를 할 적에 箕子를 象徴的으로 利用을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箕子가 殷나라 사람임은 틀림 없으나 그리고 殷이 「통구스」하고 가까울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民族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殷나라가 河北省에 있을 적에 그 周圍의 東夷文化圈에 東夷族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때에 殷文化와의 接觸關係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物物交換도 하는 등 扶餘風俗이 殷하고 유사한 몇가지 점도 생기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衛滿의 문제인데 衛滿을 中國사람이라고 보는 것은 六堂 崔南善氏가 그의 朝鮮歷史에서 衛滿이 韓國이 들어와서 복새질 했다 소란을 피워서 소동을 일으켰다는 意味로 복새질 했다 이런 式으로 表現을 했습니다. 그 뒤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李丙燾博士가 衛滿은 상투를 틀고 韓國衣服을 입고 왔기 때

문에 이것은 아무래도 中國 地域에 살았던 韓國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呂氏春秋에 보면 “衛”는 “殷”하고 흡이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殷은 商으로도 表示되고 있습니다. 戰國時代에 商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衛鞅이라고도 부릅니다. “商”字와 “衛”字가 서로 共通하게 쓴 것으로 이것은 衛滿이 말하자면 韓國民族과 밀접한 文化關係를 가진 殷나라 사람의 後裔이었기 때문에 韓國에 들어오기가 쉬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뒤에 高句麗系人 大祚榮이 李盡忠이란 契丹族出身의 將帥하고 같이 있다가 李盡忠이 反亂하니까 大祚榮이 滿洲에 와서 渤海를 세운 것처럼 衛滿 당시에 漢나라에 服屬의인 勢力으로 있던 殷나라 族屬이었던 衛滿이 燕王盧綰이 漢에 叛할 때에 그 部下로 있던 衛滿이 우리나라에 온 것으로 推測이 됩니다.

그러면 衛滿이 한국사람이든 어디 사람이든 關係는 없지만은 대개 하나의 주장을 하고자 할 때에 여러가지 反對的인 資料가 나오면 어떻게 마음 놓고 함부로 주장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教科書에서만 아니라 論文에 있어서도 어떠한 立論을 세우려면 그 立論에 妥當한 資料만 놓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反對되는 資料부터 먼저 檢討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의 주장을 하려면 먼저 反證資料가 있느냐 이런 것부터 檢討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혹은 自己의 方法論이 文獻考證學에만 치우쳐 있으면 考古學的인 業績에 기대를 한다든가 또는 이 문제가 言語學的인 문제와 關聯이 있으면 言語學 專攻하는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는다든가 文化全體에 관계되는 여러가지 面의 方法論의 도움을 받아서 어떠한 立論을 세우는 것이지 좋은 것이면 그저 아무거나 가져다가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主要한 것은 먼저 基礎的인 文獻資料를 정확히 읽는 것입니다. 魏志東夷傳 倭傳에 “從郡至倭 循海岸水行 歷韓國 乍南乍東 到其北岸狗邪韓國七千餘里 始渡一海千餘里 至對馬國”이라 한 句節이 있는데 日人學者들은 “到其北岸狗邪韓國”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問題삼은 일이 있습니다. 所謂 皇國史觀을 주장하는 者들은 “倭의 勢力이 支配하는 倭의

北岸인 狗邪韓國이라"고 해석하고 싶어 하고 漢文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은 "南으로 바다 건너 倭에 가기전에 머물렀던 단순히 海路上으로 뿐 北岸의 狗邪韓國이지 그 北岸이 倭의 支配를 意味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일이 있습니다.

安浩相先生이 百濟의 領域을 생각함에 있어서 百濟가 中國의 上海地方까지 支配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漢文을 잘못 읽고 또 漢文을 잘못 읽은 것을 그대로 쫓은 데서 오는 誤謬로서 이따위 주장을 한다고 하면 앞서 말한 日本學者들의 倭가 狗邪韓國(金海地方)까지 支配하였다는 억지도 認定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安浩相先生의 잘못은 잘못된 增補文獻備考(卷 14, 輿地考 2)의 해석을 그대로 쫓은 데서 오는 것입니다.

원래 百濟의 地理的 位置와 海路交通을 말한 것으로서 舊唐書 百濟傳에 "西渡海至越州 南渡海至倭國 北渡海至高麗"라 함이 있는데 新唐書 百濟傳에서는 이를 要約하여 "西界越州 南倭 北高麗 皆踰海乃至 其東新羅也"라 하고 있습니다. 增補文獻備考의 編者는 그 要約한 文章을 다시 去頭截尾하여 읽어 "百濟西界越州 南倭 皆踰海"라 하여 皆踰海乃至의 "乃至"를 잘라버리고 崔致遠의 "上唐太師侍中狀" 가운데 있는 高句麗 百濟의 強兵이 百萬이었다는 말을 덧붙여 百濟全盛時의 領土가 越州에까지 이르렀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漢文이나 읽으면 舊唐書 新唐書의 記錄이 百濟의 地理的 位置와 그 交通路를 말하는 것이지 領域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 다음에 日本天皇族이 驍馬民族이라는 說이 있는데 이 驍馬民族說을 좋게 안보는 사람이 있고 또는 칭찬해서 아주 日本史學이 客觀的인 認識에서 나온 見解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日本이 자기의 歷史를 설명할 적에 이론바 皇國史觀이라고 하는 1945年 이전의 軍國主義 史觀에 의해서 설명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에서 온 것입니다.

적어도 日本古代에 있어서 어떤 文化라고 이름할 만한 것이 있으면 대개 韓國에서 건너간 것들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日本이 壬那府를 經營하였드느니 하는 皇國史觀의 解釋을 그

대로 維持할 수 없으니까 太平洋戰爭 이후에 새로운 修正을 加하는 데서 日本天皇族의 驍馬民族說이 나온 것입니다.

太平洋戰爭 이후 江上波夫 岡正雄 八幡一郎 등 세 사람이 그것이 1958年인데 民族學研究에서 誌上對驍를 해가지고 그러한 式의 見解를 發表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日本古墳에서 나오는 驍馬民族의 말鞍裝이라든지 馬具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서 이것이 韓國것 하고 連結된 것이니까 어떻게 설명을 했는고 하면 百濟系의 또는 後에 가서는 조금 달라져서 百濟 이전의 辰系하고 連結이 된다는 것은 그 驍馬民族의 辰系사람이 南쪽으로 내려와서 金海地域에 와서 一時 다스리다가 바다를 건너 日本에 가서 「야마도」政權을 成立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任那(金海地方)는 日本王族이 過去에 있었던 곳인 까닭으로 해서 日本에 건너가서도 그 緣故權을 주장했다 이것이 任那府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式의 얘기는 무슨 말이고 하면 그 1945年 이전에 造作한 任那經營說을 1945年以後에 와서도 그대로 유지하자는 말입니다.

그들이 過去에 金海地域이나 東萊地方을 支配하였다는 考古學的 資料의 證據로서 甕棺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원래 甕棺(甕棺)은 日本九州에서 먼저 出土 調査되다가 金海와 東萊에서도 出土되게 되니까 이것은 日本에서 바다 건너와서 金海北方을 支配한 것의 증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東萊나 金海地方에서 나온 甕棺은 鐵器文化初期의 것이고九州에서 나오는 甕棺은 상당히 後期の 製作技術이 발달한 것입니다. 後期の 것이 바다 건너오면 갑자기 옛날 것으로 變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甕棺이란 원래 중국에서 시작된 葬法으로 이것이 韓國을 거쳐 日本에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1945年 이후에 와서 새로운 考古學的인 資料들이 나와 그러한 解釋을 내릴 수가 없게 되니까 日本王族은 韓國 金海地方에 있다가 바다 건너간 驍馬民族이라는 說을 내어 놓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不可避하게 修正을 加하면서도 過去에 주장했던 任那經營說을 拋棄 안하려는 그러한 基本的인 底意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칭찬하는 사람도 우스운 사람이요 욕하는 사람도 우스운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

은 것은 漢四郡問題인데 漢四郡을 否認한다는 것의 無理는 考古學的 資料로서도 알 수 있습니다. 大同江流域에서 나오는 物件이나 古墳 自體가 確實히 漢代의 中國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木槨墳이나 博築墳이 韓國人이 營造하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만일 이것을 韓國것이라 한다면 같은 木槨墳이 藏古地域에서도 나오는데 그것도 韓國 사람이 가서 그 木槨墳을 만들었다 할 수 있어요? 또 그것을 우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예요? 한편 博築墳은 漢代 中國人이 支配하였던 越南 「하노이」地方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韓國 사람이 가서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歷史에는 반드시 興亡盛衰가 있는 것입니다. 國家는 亡하더라도 民族은 살아 남는 것입니다. 世界帝國을 건설했던 中國은 얼마나 여러번 興亡盛衰를 되풀이 하였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日本은 自己나라가 亡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 하여 왔지만 그들도 또한 亡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古代에서 中世에 걸쳐서 오랫동안 內亂에 시달린 나라가 아니예요. 어느 나라나 興亡盛衰가 있는 까닭에 發展할 수 있는 것인데 한 時期에 漢四郡의 侵入이 있었다 하여 애써 否認하려고 하는 것은 幼稚한 일입니다. 史記朝鮮傳 漢書朝鮮傳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도 漢四郡問題에 대한 反證할 資料는 없습니다. 그런데 魏志東夷傳을 읽어보란 말이에요. 漢四郡이 없었으면 그러한 敘述은 도저히 不可能합니다.

또 三國史記는 왜 引用을 안합니까? 얘기할 것은 많습시다마는 한가지만 指摘해 둘 것은 아까 朴先生께서 封爵을 나린 것이 朝鮮이 亡하지 않은 증거이고 그것도 韓半島가 아닌 中國地方이라고 그러시는데 모름지기 그 問題의 전체적인 變動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漢代에 한 地方을 征服하면 侯爵도 나리고 郡縣制度도 實施하고 두가지 方法을 兼用합니다. 처음에 降伏한 사람들을 侯爵을 내려 가지고 懷柔를 하고 얼마 안있어서 이를 除去해 버리는 手法을 쓰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歷史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自己限界性を 알지 못하고 그것을 克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自己의 옛날 體質을 固執해 가지고 既存勢力이나 維持하려는 것 그것 自體가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 우

리 文化의 水準이 現代文化에 있어서 그렇게 뒤떨어졌는데 옛날얘기나 되풀이 하고 그것도 그릇된 方法으로 되풀이 해서는 안됩니다. 아까 檀君朝鮮의 47代 箕子의 몇대냐 하고 알지 못하던 이름이나 만들어 적어 넣은 東史年表나 引用 이 따위 하고 있는데 一種의 族譜意識 表現에서 發展하지 못하고 있는 歷史意識만 강조하고 있겠는가?

檀君의 古朝鮮 神話는 그 神話에 나타나는 文化體質을 간직하고 있는 까닭으로 주요한 것입니다. 이 神話가 東北亞細亞 民族의 하나인 우리 民族의 基本體質을 表示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곧 崇拜이건 뒤에 달라진 樹木神의 崇拜이건 간에 自己原始信仰의 體質과 連結되면서도 時代變遷에 따라 때로는 道家的 解釋 佛教의 解釋등 새로운 解釋을 내리려고 하는 까닭입니다. 自己文化體質의 復活의 革新의 뜻이 있는 까닭입니다. 결코 年代가 올라가는데 자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年代가 올라간다고 자량이 아니예요. 年代가 가장 낮은 美國이 오늘날 世界史에서 가장 크게 活動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 歷史는 檀君神話보다 더 오랜 것입니다. 遡及해 올라가면 新石器文化가 5000年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고 舊石器文化는 지금 淸州 두루봉 것이 22萬年이다 公州는 3萬年이다 이러는데 뒤에는 우리나라에서 50萬年 60萬年前의 舊石器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漣川全谷里의 舊石器가 30萬年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文化를 遡及해서 科學的으로 설명할 수 있는 手段方法이 있는데 왜 지나간 時代의 「이데올로기」만 되씹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反對하면 反逆者다 하는 思考方式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文化를 理解하고 歷史를 理解하는 幅이 옛날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적어도 새로운 主體性 우리 民族의 主體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世代들을 보다 學問的으로 科學的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좀 教育하는 態度나 歷史를 認識하는 態度가 달라져야 합니다. 文化意識의 水準은 곧 歷史意識의 「레벨」과 正比例하는 법입니다. 그러한 얘기는 절대로 傳統的인 것을 다 破壞하고 남의 나라의 것을 模倣한다든가 이러한 의도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傳統이 가치있고 있는 潛在能力이 크면 클수록 그 진짜 潛在能力의 價値를 알리고 하면 할수록 새로운 文化意識能力이 필요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認識能力이 있을 적에 그 潛在能力이 어떻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文化體質을 그대로 維持하면서 참다운 生活能力의 意味를 알지 못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일이 예를 들고 史料를 分析하고 그럴 時間도 별로 없고 하니 정 필요하다면 뒤에 書信으로 해도 좋고 다른 方法으로도 문제를 討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실례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問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중대한 問題입니다.

오늘날 歷史意識과 文化意識의 方向이 잘못 되었다가는 위에 우리 歷史가 어떻게 展開될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日本사람들이 그러한 軍國神話를 만들어 가지고 덩벙대다가 1945년에 큰 코를 다치고 나서야 그들의 그릇된 文化意識을 고치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또 獨逸사람들이 「마인 캄프」니 뭐니 떠들다가 戰爭에 지고나서 文化意識이 달라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日本사람들이 明治時代에 우리 먹던 方法을 模倣하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한 時代錯誤의 「이베울로기」를 가지고서는 오늘날의 文化를 指導할 能力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銘心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지나친 점이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韓柄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公述人이 陳述을 하기 전에 金哲堉教授님에게 하나 양해를 求하겠습니다. 아까 金哲堉教授님 公述의 冒頭에 請願者들의 研究方向을 北韓의 歷史造作의 3大敘述의 方式같다고 하는 論理展開의 部分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다른 委員님들도 그런 部分이 있는 것 같으니까, 速記錄에서 削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들어 왔읍니다. 그래서 그 部分이 그렇게 되었는지 興否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그 部分에 대해서는 速記錄 削除하는

바(而) 金哲堉 주(主)는 이것인데 (金哲堉) 家입니다.

○陳述人 金哲堉 다른 뜻이요?

○委員長 韓柄索 다른 뜻이라면 지금 이야기가 될 해 주세요.

○陳述人 金哲堉 제가 하는 이야기는 歷史를 認識하는 것이 다양해야겠는데 北韓에서는 그렇게 偏狹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北韓에서 偏狹하게 가르쳐 말하자면 가르쳐야 할 것이 10가지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가지만 가지고 가르치니 이 教育이 제대로 되며 그 文化가 제대로 發展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 教科書 序文에 金日成首領이라는 말이 여러번 나옵니다. 그리고 金日成의 말씀을 자막대기로 삼아서 우리의 行動을 비판하는 基準으로 삼아야 된다는 그 말이 나옵니다. 사실 그 冊을 오늘날 印刷해 가지고 大學에 부리게 되면 反共教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委員長 韓柄索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고 만약 그렇게 誤解될 수 있는 部分이 있다면 削除해도 좋다는 말씀이지요?

○陳述人 金哲堉 예. 상관이 없습니다.

○委員長 韓柄索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公聽會의 性格이나 目的이 우리 歷史의 그 史觀과 敘述에 植民地史觀 民族史觀이라는 論爭이 최근에 와가지고는 唯物史觀의 論爭으로 變質이 되어서 이 社會底邊에 혹은 教育上的 중대한 問題點들을 저희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民族史觀을 다시 定立하고 이런 論爭이 다시 없이어서 史學을 正當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뜻이고 우리 國民教育을 건전하게 시켜서 祖國을 잘 되게 해야 되겠다는 目的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잘못 서로가 感情的으로 論理展開하다 보면 서로 誤謬와 強壓의인 誤謬를 또 犯하기 때문에 그 點을... 다음, 公述하실 분들 앞으로 參考하실 것은 어디까지나 最高知性人들이고 史學界의 權威者이시니까 새로운 論理와 實力으로 새로운 文明에 接近하고 새로운 文化를 暢達한다는 우리 民族의 基本方向에 맞도록 한다는 뜻에서 討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李龍範教授 나오셔서 陳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陳述人 李龍範 제가 東國大學에 있는 李龍

範이올시다.

여태까지 하신 여러분께서 하도 達辯이 되어서…… 저는 아주 訥辯입니다. 아주 말 못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여기에서 말하게 되어서 일종의 悲劇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주어진 分野 제가 꼭 아는 分野에 있어서 한 몇가지를 여기에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이 “國史되찾기運動”을 전개하신 斯界의 著名人士께서 발표하신 글들을 제가 훑어 보았읍니다마는 우리가 한자 한귀절도 같은 것이 없는…… 이 병혹한 學界에서는 말이에요 그 분들이 모두가 歷史를 專門으로 하시지 않은 분들이 되어서 이 분들과 일일이 이것은 言語를 해야 所用이 없다 그래서 아예 이것은 疏外해 왔읍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疏外가 그만 워낙 外面했던 것이 오늘날 쌓여서 國會까지 나와서 제가 國民을 代表하시는 여러분 앞에서 일종의 自己見解를 어떻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한편으로 볼 것같으면 한 學者가 30年 40年 가까이 學者가 書庫에서 들어 박혔던 學者가 이런 데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서글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것이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이것이 중대한 時代的인 意義를 가진다면 저도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제가 보는 나름대로의 몇가지 말씀을 여기에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먼저 去頭截尾하고 이제 그 분들이 國會에 내놓으신 國史敎科書 是正을 위해 請願書라는 것을 제가 어저께 아침에 받아서 읽어 보았읍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저희들 專門家들이 볼 때에는…… 물론 專門家 이외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통쾌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專門家들이 볼 때에는 조금 고개를 가우뚱거리지 않을 수 없는 여러가지 問題點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몇가지 저 滿洲源流考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들 하려고 그랬더니 金哲鎭先生께서 相當部分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몇가지 제가 이 資料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資料가 어느 정도 信憑性이 있느냐 이 資料를 그대로 믿다가는 어떠한 結果가 나오느냐 이러한 문제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른바 우리가 箕子朝鮮 그 다음에

또는 衛滿朝鮮의 實存을 證明하기 위해서 提示한 資料 第2부터 여기가 벌써 문제가 됩니다. 아까 資料2에 대해서는 金哲鎭教授께서 말씀했읍니다.

주 그 資料의 欄 上部에서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볼 것같으면 “古朝鮮의 國境을 遼西의 甘肅省에까지……” 이것은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말이에요 高等學校 世界史나 말이에요 世界地理 高等學校 정도의 常識만 가지고 있어도 이런 臆謬를 犯할 수 없읍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무엇이냐 遼西는 아까 新學說이 또 나왔읍니다. 遼河가 遼河다 이것은 나중에 그 先生한테 저도 배워야 될 테니까 그 확실한 말하자면 史料를 한번 얻어 보고 싶습니다. 좌우간 遼西는 遼河서쪽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遼西에서 이것은 萬里長城 가장 동쪽입니다. 거기에서 이 西紀 4世紀에 燕나라가 決定해서 그 후 中國사람들이 東三省 이른바 日本사람들이 얘기하는 요새 흔히 滿洲…… 滿洲로 통한 血路로서 또는 滿蒙族과의 緩衝地帶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면 甘肅省은 말이에요 萬里長城 제일 서쪽입니다. 甘肅省은 이것은 적어도 萬里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에 遼西의 甘肅省이란 말이 나오니까? 이것은 제가 地圖를 보여드리지요. 이 黃河가 말이지요 「티베트」에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갑니다. 山東半島가 여기에 있습니다. 遼東半島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長安입니다. 여기가 洛陽입니다. 여기가 잘 아시는 中共의 原子彈實驗中心地 蘭州입니다. 그런데 이 甘肅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蘭州를 건너서 燉煌까지가 말하자면 이것이 甘肅이라고 그러합니다.

여기는 甘州 肅州 燉煌까지 甘肅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西曆紀元 120年前 무렵부터 111年 사이에 漢武帝가 開拓한 소위 河西四鎮입니다. 이것은 그 전까지는 漢武帝前까지는 이것은 中國의 領土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甘肅省인데…… 난데없이 여기에서 말이에요 遼西의 甘肅省 이제 安博士님의 新學說에 따라서 이 곳까지 가겠지요. 이쪽에 遼西의 甘肅省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인가 이것은 混同이

일어났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지금 萬里 이상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意識構造를 가지고 말이에요 그 古代史를 읽어 보려니까 엉망진창이 되겠지요. 잘못하면 말이지요 우리가 말하자면 寧夏省 말이 나오는데 寧夏省은 「고비」沙漠 남쪽입니다. 잘못하면 우리 檀君할아버지께서 거룩하시게 「고비」沙漠까지 가셨다 이렇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다가 제가 암만해도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어서 일어났느냐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기에 마침 1978年11月21日 中央日報에 실린 “檀君統治는 史的 根據 있다”라는 글에서 朝鮮의 옛 領土는 東海에서 黑龍江과 北京까지 이다 史記 卷二와 三國志 扶餘傳에는 山海關에서 시작한 萬里長城 북쪽에 扶餘가 있고 扶餘북에서 弱水가 있다 라고 하였다 中國古地名大辭典에서 弱水는 黑河(黑龍江)로서 甘肅 肅州북쪽 1,000餘리에 있다 하였으니 弱水가 松花江이 아니다 이것 암만 읽어도 보겠습니다.

이것 도시 내가 中國地圖를 가지고 백번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는 甘肅 肅州에요. 여기 북쪽 1,000餘리가 곧 弱水다 그래서 이것이 앞뒤가 전혀 안맞은 글입니다. 이것은 저편만 아니라 제가 둔한 사람이나가 제가 둔하다 그리고 이 글을 가지고 大碩學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것이 通하느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安先生께서 보신 中國古地名辭典의 전체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인용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商務印書館의 中國古今地名大辭典에 第697面에는 아까 내가 말한 弱水라고 하는 것이 엄연히 말이에요 첫째가 書經 禹貢篇에 보이는 中國의 青海省에서 북으로 甘肅省의 甘州 肅州로 호르는 여기에 弱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호르는 弱水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아까 古朝鮮領土를 黑龍江까지 미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만약 그 說을 따른다면 저기까지 檀君朝鮮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로서는 史記大宛傳 史記大宛傳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蘇聯의 領土인 「우즈베크」共和國입니다. 거기에 보이는 中國 제일 남쪽의 「티베트」 崑崙山에서 흘러 나오는 물이, 弱水입니다.

그리고 세계 條支國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빌로니아」로 흘러가 가는 것

을 弱水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黑龍江과 合流하는 말하자면 滿洲에 있지요. 저 쪽편에 東流松花江 이것도 弱水라 한다 이 弱水라고 하는 것이 한 다섯가지가 꼭 說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古今地名大辭典이 몇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滿洲에 있는 것하고 甘肅省에 있는 것하고 비뚤밤이 되어 버렸습니까? 비뚤밤이 되어 버렸습니까 아까 말한 論理가 통하지 않는 解釋이 나오고 또 잘못하면 韓國사람이 저 「바빌로니아」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이상한 解釋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史料二의 本文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즉 아까 말하면 增補文獻備考를 다시 보세요. 이 大明一統志라는 것이 있어요. 이 記事에서 말입니다. 增補文獻備考에 註문 붙인 것이 이 어마어마한 論爭의 論據라고 하는 것입니다. 歷史學 研究에서는 어떠한 事件이 있으면 그 同時代의 記事 또 그 가까운 時代의 史料를 우리가 尊重하는 것을 鐵則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引用된 大明一統志라고 하는 것은 明나라의 天順5年 즉 1461년에 엮어진 것인데 우리가 大明一統志라고 그래서 이것은 國家事業으로 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믿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事實은 그렇지 않습니다. 元一統志가요 1,000卷인데 비해서 中國全體의 1,000卷에 비해서 明一統志가 겨우 90卷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中國에서도 가장 疏略하고 간략하고 가장 誤謬가 많다 하는 것은 清나라 時代의 學者들의 一致된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되어서 우리가 말이에요 增補文獻備考에 있다 그래서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가지 또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 첫째이고 또 문제가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더 決定的인…… 安先生에 조금 물어봐야 될 것은 말이에요. 앞에서 遼西의 甘肅省이라든가 弱水같은 것이 이러한 地理上의 過誤나 여기에도 또 보이고 있습니다. 論旨에서도 그것은 明一統志의 朝鮮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永平府를 中國 文獻備考를 엮은 본들이 옛날에 北平郡이라 했기에 永平府와 北平府는 지금도 北京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安先生이 이것 永平府니까

지금 거기에 옛 北平府라고 하나 이 것은 물론 지금의 北京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말이에요 이 中國古今大辭典같은 것은 通俗的인 書籍을 보는 것을 무척 부끄러워 해 왔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安先生께서 이것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引用해 가면서 그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第222面에서 223面에 걸쳐본다면 永平府라고 하는 것은 當代的 甘肅地方에 두었던 地名이기에 현재 北京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이어서 永平縣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永平縣은 隋代以後부터 甘肅省 감주 또는 운남성 호북성 또는 광서성 그리고 遼代에는 지금 滿洲의 鐵嶺을 그대로 불러 왔읍니다. 그러니까 中國에서 永平府라고 하는 地名은 언제나 時代에 따라서 또는 場所에 따라서 얼마든지 곱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安先生께서 지금 北京으로 보신 北平은 어떠한 곳인가…… 이 唐代의 北平하면 北平縣은 지금의 北京이 아니고 山海關 바로 東쪽의 完縣인 것입니다.

지금의 北京이 北平으로 된 것은 明初에 元의 大都라는 이름을 明初에 바꾸다가 다시 또 順天府로 바꾸었다가 또 다시 北平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蔣介石政權이 執權할 때 아마 西曆 1927년에 北平이 되었읍니다. 지금도 臺灣가면 自由中國에서는 北京이라 하면 화를 냅니다. 北平이라 해야 합니다. 그래서 北平하고 北京하고 錯覺하고 있는데 이것도 말이에요 우리가 歷史學의 初歩의 訓練만 받은 분이라도 이것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이상하게도 이 碩學께서 틀리신 것이 매우 유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法句經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은 썸의 우물을 먹어도 뱀은 毒을 만들고 소는 젖을 만든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은 史料를 써도 어떤 것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은 이상한 說이 나온다 그런데 이 史料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건드려서 누구나 만만히 자기 마음대로 解釋할 것은 못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같은 史料問題는 安先生께서 내놓으신 이 3, 4, 5, 6, 7에도 더 많은 문제가

있으나 時間問題로 다른 분에게 이것을 부탁할 수 밖에 없읍니다마는 다만 資料 6에 내놓은 北京省의 灤河가 遼水라 하는 것은 아까 新學說을 내놓으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安先生께서 史料의 無差別的인 選擇을 하시고 계신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請願書에서 틀린 內容으로 第8項에 써 있는 百濟가 3~7世紀동안 北京에서 上海까지 統治했던 사실을 立證하기 위해서 提示한 8을 비롯해서 資料 9, 10을 우리가 滿洲源流考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資料 8에서 百濟가 3世紀에서 7世紀동안 上海까지 統治했다 하는 것은 아까 金哲坡先生께서 이미 말씀이 있어서 저는 얘기 안 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눈을 씻고 봐도 그런 解釋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滿洲源流考는 그 自體가 문제가 있는 冊입니다. 이것은 乾隆 42年 1771년에 乾隆皇帝 命을 받들어서 阿桂라는 사람이 高級 官吏인데 滿洲源流考 20卷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中國書籍에 보이는 滿洲에 관한 記事는 알뜰히 굶어 모아서 이용하기에는 매우 편리한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淸에서 滿洲源流考의 編纂이 文化傳統이 없는 이 少數의 滿洲族이 높은 이 文化價値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수십倍 人口를 가진 漢民族을 統治하는데 있어서 자기네들이 지녀야 하는 劣等感을 감추지 못해서 지금 全世界의 人類學者 史學者 考古學者들을 總動員해서도 解決할 수 없는 中國古典에 이 肅愼을 비롯해서 挹婁 靺鞨 女眞뿐만 아니라 韓半島歷史까지도 그들의 것으로 여기다가 만들어 그들의 文化傳統의 歷史를 假飾하려는 意圖가 숨겨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 알아 두어야 할 것은 거기에 引用되어 있는 冊이라고 하는 것은 元一統志를 빼놓고는… 元一統志는 이것은 1857年인가요 英國 「프랑스」軍이 北京에 쳐들어가서 全部 불태워버리고 지금 7卷인가 9卷 남아 있습니다. 그 元一統志를 빼놓고는 나머지 冊들은 全部 현재 여기에 있는 冊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學問의으로도 별로 價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워어진 動機가 말이

에요 아주 고약한 動機로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 序文에서부터 新羅를 가르킨 鷄林과 吉林이 같다고 해서 이것 中國말로 다같이 「지린」 「지린」 그럽니다. 같다고 해서 鷄林은 吉林의 잘못된 表現으로 우리가 닭 “鷄”字 鷄林을 吉林의 잘못된 表現으로 이렇게 斷定하고 또 우리나라 三韓을 蒙古族이 5世紀부터 쓰이고 있던 자기 統治者들에 정한 汗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징기스칸」 무슨 汗이니 하는 “汗”字 이 “汗”을 그들 滿洲族도 이어서 이것을 받아 썼습니다. 이 汗의 잘못된 것이 다 우리 三韓을 이 三韓이 아니고 자기네들 蒙古式으로 받아 쓴 三汗이 되었다 이런 式의 우리가 도저히 말이 안되는 文章을 表해 놓고 있습니다.

新羅가 鷄林인 것은 西曆 7世紀에 印度로 들어가서 旅行記를 남긴 唐나라 스님 義淨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 것같으면 大唐西域高僧傳이라는 義淨이 남긴 旅行記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 것같으면은 印度에 갔더니 지금의 「아프가니스탄」과 北印度의 國境線附近에 「나란터」寺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新羅僧侶들이 몇 명 와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記錄에는 없지요.

그런데 거기에 불 것같으면은 「아리아발마」라는 節을 내세워서 「아리아발마」라는 羅僧에 관한 것을 써서 그 것을 “「쿠쿠타시타」라 「쿠쿠타시타」 사람 말로 鷄貴國 닭을 貴한 것으로 모신 나라다 이러한 뜻이다 新羅사람한테 들었노라” 이런 記錄이 나오는 것을 불 것같으면은 우리나라에서 鷄林이라는 말은 일찍부터 쓰고 있던 것이예요. 그런데 吉林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제 자신이 공부를 안해서 모르겠습니다. 마는 中國文獻에서는 康熙 15年 이전에는 절대로 한 句節도 안 나옵니다. 즉 1678년이 전에는 한 句節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이에요 6世紀 7世紀부터 있는 鷄林하고 같이 붙여서 이것이 잘못이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 바로 이 吉林통제성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20世紀初에 와서 中國사람은 어디서 왔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 적에 혹은 東南亞에서 왔다 혹은 西쪽에서 왔다 이쪽의 「프랑스」의

世界的인 東洋學者 「페리오」氏가 말이에요 한마디 말한 것이 있습니다. 民族의 紀元과 言語와 文化樣式은 따로 떼어서 研究해서 봐야 된다 한때 비빔밥으로 해서는 안된다 例를 들면 지금 여러분 말이에요 말이 한마디 같다 몇마디 같다 그래가지고 이것 우리 民族이다 茶房에 한번 가봅시다. 다방에 가면 저는 계란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가씨 계란하나 주시오 그럴 경우 말이에요 아 「에그」입니까 당장 그럼니다. 아 그렇다 하나요. 그러면 「머블」입니까 「싱글」입니까 그럼니다. 그러면 한 1000年後에 그 記錄이 남았을 적에 우리 祖上은 過去 英語를 썼으니 美國에서 왔다 그것은 不可能합니다. 또 요새 越南에 간 軍人들이 백원짜리 술 실컷 먹고 백원짜리 몇개 가지고 越南 「장글」에서 싸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불행히도 戰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原子彈이 떨어져 한 1000年後에 말이에요 考古學者들이 나와서 그것을 들쳐가지고 이렇게 보고 大韓民國의 백원짜리 하나 나왔다 우리 祖上은 「딱이한」에서 왔다 이것이 절대 不可能합니다. 이와같이 결국은 말하자면 言語學이라든가 이런 文化樣式 가지고 그대로 섞어가지고 이렇게 우긴이 滿洲源流考가 결코 저는 이것 좋은 冊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吉林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明代만 해도 말이에요 烏拉이라 그랬고 토문합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淸初만 해도 훈기의 「우라부라」는 半獵半民의 유럽지지 吉林이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이 붙인다 이것은 무엇이나 그 뿐만 아니라 우리의 三韓을 三汗 이렇게 붙였다는 것은 우리의 歷史를 송두리째 빼앗아서 그들의 것으로 하려는 意圖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古代史에 內容에 있어서 沃阻 濊 新羅 百濟에 관한 中國側 記事를 滿洲族의 歷史로 넣고 있는 것은 마치 이 朝鮮總督府의 官僚學者 稻葉岩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35년에 滿洲發達史라는 것을 썼습니다. 거기에 불 것같으면 이 韓國의 歷史는 主體性이 하나도 없다 滿洲史의 一部分이다 滿洲의 盛衰에 따라서 亡하고 興하고 했지 韓國사람이 언제 자기네 歷史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것 과연 殖民地史觀 아까 여러가

지 말이 많이 나왔지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經濟的인 면에서의 植民地史觀 심지어 요새 자칫하면 말려 들어갑니다마는 이러한 同祖論 즉 日本사람과 韓國사람이 祖上이 같았다. 요새도 왔지만 말하자면 國會議員 여러분들도 만나면 말도 같고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도 어마어마한 陰謀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말이에요 이러한 同祖論 같은 祖上이다 이러한 植民地史觀에서 부터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마는 최후에 나간 가장 악랄한 이 植民地史觀은 바로 이 稻葉岩吉의 이 滿洲發達史 이것입니다. 그런데 滿洲源流考를 그대로 믿는다면 딱 여기에 말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植民地史觀을 쫓아내자 하는데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저 모르는 얘기도 많아요. 뭐 「라이샤워」의 禮君說도 처음 듣는 얘기고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겠읍니다마는 「라이샤워」의 禮君說에서 부터 여러 가지 說을 오늘 처음 듣는 공부를 많이 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 보다는 저는 여기에 가장 잔악한 가장 늦게 나온 말하자면 이 植民地史觀 滿鮮史觀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滿洲源流考를 그대로 表明했느냐 우리가 植民地史觀 쫓자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滿洲源流考를 믿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여하튼 우리의 견지에서 본다면 新羅의 領土가 滿洲의 中心部라고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것이 어디까지 뻗었든 그것은 滿洲族의 內部에서 어느 部族의 發達이 이룰때면 新羅나 百濟를 미워할수록 漢民族에게는 滿洲族 자신들이 으쓱하게 되는 自尊心을 가지게 되는 것이예요. 만약 그것을 막든다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상한 論理가 여기에 成立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물학원 冊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迫害할 對象에게 가장 친절을 베푼다” 즉 말하자면 내가 돼지를 키운다 내가 돼지가 아플 때에는 전혀 밥도 안 먹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귀여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내가 이것을 잡아서 내 營養分에 補充하려고 그러지 그 自體가 귀여워서 그러는게 아니예요. 마치 이것도 말할 것 같으면 滿洲源流考라고 하는 것도 斷的으로 말해서 그와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은 도저히 우리가 말하자면 이상한 論理가 成立된 것이요 특히 滿洲源流考에서 新羅의 領土를 吉林과 開原까지 主張한 根據가 고작 宋의 宣和 6年에 使臣으로 갔던 宣和 6年이라고 하는 것은 1023年입니다. 使臣으로 松花江 회령부까지 갔던 許亢宗의 旅行記에 第29頁에 마침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이 威州 즉 현재의 開原 滿洲鐵道가 지나가는 開原에서 보면 新羅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단 그것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新羅가 거기까지 갔을 경우 우리가 어떤 國名을 따서 山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프랑스」山 英國山 美國山 하는 것이 있겠어요? 新羅山이라고 하는 것이 新羅의 國名을 따서 山이 하나 表現되는 것은 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뭐 美國山 「프랑스」山 「덴마크」山 모르겠읍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이 당시 여기에서는 女眞族이 살고 있었는데 女眞族이 자기네 토로 얘기 하는 어떤 岾이 新羅하고 비슷하니까 그만 新羅山이라고 漢字로 翻譯했다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곧 新羅의 領土가 거기까지 갔다 이렇게 斷定한다는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一般 在野 史學者들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적어도 正式으로 歷史를 댈 처음부터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사실은 이것은 不可能합니다.

또 그 資料 9 10에 보이는 唐會要나 新唐書에 보이는 九州 이름 資料 이름 보세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新羅國內의 九州名을 中國 正史中에서도 가장 誤譯가 많은 것으로 駁評이 나와 있는 遼史에서 遼史中에서도 가장 誤譯부성인인 地理志에서 이것을 뽑아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갖다가…… 어디 뵈겠습니까? 같은 地名이 中國이나 韓國에 같은 것이 많습시다.

例를 들면 慶州 그러지만 慶州라 그대도 우리 新羅의 慶州도 있습니다. 또 지금 연안성에 가도 흥안성에 가도 경주가 있습니다. 遼代부터 경주가 있습니다. 경주라고 하는 것도 어디든지 많습시다. 그런데 遼史에서는 그것을 말하자면 遼史가 워낙 일면반동안 되어온 못난 書籍이 되어서 제멋대로 붙인 것을 이것만 딱 따가지고 나서 滿洲源流考에다 붙인 것이예요. 사실 內幕인 즉……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滿洲源流考라든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운운한다는 것은 이것은 벌써

우리가 歴史가 뒤떨어졌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제가 오늘 약속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 滿洲史를 滿洲源流考를 基本史料로 해서 쓴 學術的인 論文이 있으면 언제든지 來日 大學教授 辭表 내겠습니다. 언제든지 널 用意가 있습니다. 그만치 이것이 말이에요 史料로서는 史料集에서 이름조차 안 나온 書籍이에요.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의 중대한 國史問題를 다루는 데 하필이면 그런 것만 골라서 내느냐 나는 그 意圖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끝으로 한 마디 매우 오늘 安先生님한테 너무나 攻擊하는 것같아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學生때 마침 安先生께서 그 때 文教長官으로 계시고 그 때 저희들의 思想의 動搖가 있을 때 一民主義로써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先生앞에서 제가 감히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제가 죄됩니다.

그러나 부디 한마디 부탁할 것은 언필칭 以北의 學界가 어떻게 政治의 侍女된 以北의 學界가 이렇다 하는 이런 것만은 여기서 말안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再昨年에 「하와이」大學에 갔습니다. 「하와이」大學의 圖書館에 갔더니요 以北 소위 朝鮮科學院에서 三國史記를 냈더군요. 三國史記譯註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高麗史譯註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훑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三國史記 卷 32 服色에 대해서 말이에요. 손을 하나도 못 대고 있어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난데없이 「페르시아」말이 한 두어개 있습니다. 例를 들면 이것이 中世 「페르시아」말입니다. 「세세」라고 하는 것은 瑟瑟이라고 하고 「세세」입니다. 「에네랄드」입니다. 그 다음에 穩穩이라고 하는 것은 「다프탄」 즉 무엇을 잔다 毛織物입니다. 이런 것이 거기에 몇가지 툭툭 튀어 나옵니다. 그러니 以北에서 그것을 알리가 있나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李丙燾先生께서 한 사오年前에 翻譯했는데 완전히 翻譯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마침 새배를 갔더니 李先生님이 아주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라우파」라는 美國學者의 冊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翻譯되었는데 以北에서는 그것조차 안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高麗史

가 歷志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東亞大學의 것은 완전히 翻譯이 되어 있는데 이른바 朝鮮科學院이라고 하는 거기에서도 제일 어려운 歷志는 전혀 翻譯이 안되어 있고 樂志 音樂에 관한 것도 전혀 손도 못대고 그대로 翻譯했습니다.

以北의 歷史學의 水準이라는 것은 지금 보아서는 뻔히 들여다 보이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같이 曰可曰否해서 以北에서도 이러니 하는 式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이 다음부터는 서로 삼가해 주시기를 여기에서 끝으로 부탁하고 저의 證言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매우 소홀했습니다.

○委員長 韓柄索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陳述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質疑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綜合的인 質疑는 다음에 또 할 機會가 있고 해서 오늘 公述人의 公述中에 미심쩍다든지 問題點이 있는 部分에 대해서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 質疑하실 때에는 어느 분에게 質疑한다는 말씀을 미리 해주시고 質疑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陳述人 相互間에도 疑問이 있다든지 이해하지 못한 部分에 대해서는 서로 質疑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質疑를 시작하겠습니다.

○李寧熙委員 議事進行입니다.

○委員長 韓柄索 李寧熙委員 議事進行發言하세요.

○李寧熙委員 質疑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여러 個의 國史關係 學術團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몇 個 團體가 있고 또 자기 그 系譜와 性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文教部當局에서 간단히 說明을 해주시고 아울러 72년에 訴訟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國史찾기 訴訟의 背景과 經緯에 대해서 간단히 說明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여러 委員님들께서 內容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오늘의 論爭의 뿌리를 그 說明으로써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韓柄索 李寧熙委員님의 말씀은 議事

進行이 아니고 바로 質疑의 性格같습니다. 지금 李委員님의 물음에 대해서 지금 文敎部側의 獎學室長이 나와 계시니까 獎學室長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敎部獎學編修室長 黃哲秀 文敎部獎學編修室長 黃哲秀입니다. 지금 李寧熙委員님께서 質疑하신 歷史學會의 潮流라든가 이것은 하도 많아서 나중에 書面으로 전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韓柄來 지금 배층 몇 個다 하는 것은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文敎部獎學編修室長 黃哲秀 全體的으로 한 14個정도 된다고 봅니다.

○講述人 崔永禧 지금 우리 獎學室長이 조금 誤解하신 것같은데 國史찾기運動은 몇 團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登錄이 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지금 歷史學會를 말씀해 주신 것같은데 解放直後에 몇몇 有志되시는 분들이 學會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곧 6.25가 나서 그것이 다 흩어졌고 그 다음에 1.4後退 피난때에 젊은 少壯學者라고 그럴까 그 분들이 만든 것이 歷史學會입니다. 여기에는 國史 東洋史 西洋史까지 포함된 소위 그 당시에는 新進學會였습니다. 이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韓國史 東洋史 西洋史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때 나이 많은 분들은 끼워드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 뜻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자 그러다가 收復後에 韓國史學會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것은 中高等學校先生님께서도 포함해서 하다가 그 후에 다시 또 歷史學研究會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무슨 學派가 다르고 몇이 다른 것이 아니라 同好人들끼리 모여가지고 큰 것이 3個가 있습니다. 그 외에 特殊學會로서는 歷史教育會가 있습니다. 이것은 教育에 從事하는 분들이 主動이 된 歷史教育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考古學會가 따로 있고 科學史學會가 있는데 이것은 순전히 科學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經濟史學會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옛날 日帝時代부터 내려오는 震檀學會가 있습니다. 또 美術史學會가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美術史만 專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分野別로

다르고 그 외에 東洋史만 하는 東洋史學會 또 西洋史만 하는 西洋史學會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큰 것은 배층 이 정도입니다. 한 때 그것이 派爭이나 할 때 派爭은 아닙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歷史學會 시작할 때 한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美術史學會 考古學會도 제가 冊을 받아 보기 위해서 거기에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學會에 加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國史찾기運動은.....

○講述人 安浩相 國史찾기協議會는 1974년에 만들었습니다. 1974년에 國定 國史敎科書가 나왔는데 하도 잘못되어서 우리가 1974년에 國史찾기協議會를 만들었습니다.

○講述人 崔永禧 그래서 지금 여러 學會에는 會員들이 있습니다. 會員들이 研究論文을 발표하고 그리고 이 研究論文을 서로 交換하고 이런 活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韓柄來 다음은 康源采委員 質疑해 주세요.

○康源采委員 康源采입니다. 오늘 이처럼 新界의 여러 權威 先生님들을 모시고 이런 진지한 討論의 廣場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대해서는 일단 대단히 의의가 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國史를 專攻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事實上 國史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日常的으로 생각해 볼 때 역시 國史는 學問의 世界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歷史的인 事實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生存해 있는 분들에 관계된 事項들도 記錄이 서로 불리는 경우도 있고 또한 사람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다른 側面의 얘기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우기 오래된 과거의 오랜 세월이 지난 古代史에 대한 部分에 있어서는 本委員이 알기로는 좀 미미한 資料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또 保有하고 있는 資料와 中國이나 日本의 것중 우리나라에 관한 古代史 研究資料를 體系있게 蒐集해서 서로 比較 檢討하고 相互 解釋上의 差異點과 그에 대한 점을 서로 討論해서 좀힐 수 있는 資料整理의 體系化가 先行되었어야 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文敎當局이나 國史編纂委員會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

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國史教科書가 몇 차례에 걸쳐서 改編 내지는 修正이 되어온 것같은데 지금까지 國史教科書가 몇번 修正 내지는 改編이 되었는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1910年 이전의 國史教科書 그러니까 韓·日合邦 이전의 國史教科書가 되겠습니다. 그 國史教科書와 日帝時代의 國史教科書와 解放 이후의 教科書를 相互 比較 檢討해 본 적이 있으며 또 日帝時代의 教科書와 解放後 지금의 教科書의 內容上의 差異 또한 傳達해 주기자 하는 어떤 歷史觀의 差異點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점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韓柄索 委員님들이 물으시는 것을 公述人께서나 文敎部側에서 「메모」를 하셔가지고 자기가 答할 部分이 있으면 答할 준비를 해주세요.

朴在旭委員 말씀해 주세요.

○朴在旭委員 오늘 斯界의 여러 碩學들의 좋은 발표를 듣고 새삼스러이 우리 國史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本委員은 國史를 깊이 연구한 적은 없으나 국史를 공부했고 또 오늘 論議되는 中·高等學校 國史冊을 가지고 一線敎壇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역시 그 때 느낀 점이 우리 國史가 하루바삐 완전히 定立이 되어서 學生들에게 옮겨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었고 또 배우는 學生들도 우리 歷史冊이 어떻게 이렇게 자주 변하느냐 하는 그런 疑懼心을 가졌던 것을 볼 때 그 때도 우리 國史가 좀더 빨리 研究를 해서 定立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 公聽會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참 의의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國史教科書와 너무 차이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편 참 놀랐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우리 옛 領土에 대해서 차이가 너무 크다 이것을 볼 때 이제 請願側의 얘기대로 과거에 우리 國土가 그만큼 컸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차이가 많은 이 점을 어떻게 兩側 意見을 좁혀가지고 새로 國史를 定立시키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

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가지만 安浩相先生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거기에 反論을 提起한 側도 있습니다마는 新羅의 처음 疆域이 東部滿洲 全體로 統一新羅의 國境이 한때 北京까지였다 이런 請願이 들어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統一新羅의 國境이 한때 北京까지였다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그에 앞서서 新羅의 처음 疆域이 東部滿洲 全體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新羅의 서울이 慶州로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처음 서울이 慶州가 아니고 滿洲의 吉林이라든가 이것이라고 보고서 이렇게 되었는지 서울은 慶州이면서 그 領土가 滿洲까지 뻗었다고 보는지 그렇다고 하면 이제 新羅 初期같으면 交通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아주 불편할때 慶州에서 滿洲까지 다스릴 수 있었겠는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疑心이 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같은 문제입니다마는 新羅가 建國된 것은 北方民族이 남쪽으로 移住해서 세워졌다고 그랬는데 혹시 滿洲에서 國家를 세워서 있다가 남쪽으로 이동된 그 事項을 가지고 얘기된 것은 아닌지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韓柄索 會議進行의 方式을 지금 質疑者들이 여러분이 있어서 함께 質疑를 받고 차례로 答辯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李義永委員 質疑해 주세요.

「메모」하셨다가 자기 答辯할 부분은 나중에 答辯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李義永委員 몇 가지 우선 請願을 내신 側에 좀 묻겠습니다. 누가 答辯하셔도 괜찮습니다.

三國史記와 三國遺事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三國史記와 三國遺事를 보는 觀點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使用하고 있는 西紀 西曆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安博士님께서 지금 現 歷史를 그대로 두면 金日成이한테 正統性을 뺏길 우려가 있다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잘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다시 좀 바꾸어 말하면 安博士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定說이 안되었을 때에는 그러면 金日成에게 正統性을 뺏긴다고 하는 結論에 到達할 危險性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좀 納得이 안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敷衍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柄索 姜棋弼委員 말씀하세요.

○姜棋弼委員 數千年歷史를 불과 몇 시간동안에 이야기한다는 것은 現實的으로 不可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문제는 극히 學問的이고 專門的인 문제이기 때문에 抽象的인 論議라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質問을 文教當局에 質問하겠습니다.

첫째 兩側의 주장이 愛國心에 입각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위대한 나라 훌륭한 나라 大國같았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아마 그러한 方向으로 記述되기를 希望하는 愛國的 입장에서 請願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 學者的 良心에 따라 考證이 어렵기 때문에 記錄하기 어렵지 않느냐 考證만 되면 지금이라도 請願內容이 충분히 教科書에 記錄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으로 저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兩側 다 상당히 이유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 檀君神話라는 것이 開國始祖問題에 있어서 한쪽에서는 考證이 어려우니 神話로써 족하지 않겠는가 또 한편으로는 비록 考證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歷史 五千年歷史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文教部로서는 이 문제를 肯定的 側面에서 좀 研究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五千年이나 된 歷史의 考證을 하기가..... 하면 좋겠습니까마는 저는 다른 角度에서 國民教育的 次元에서 하나 저의 意見을 提示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열여섯개의 請願內容中에서 대부분이 重複되는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열여섯개때문에 教科書를

전부 改廢해야 된다 全面的으로 否定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생각도 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國會에까지 오게된 데에 대해서는 文教部로서는 1次的인 責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양쪽의 異見이 잘 調和를 이루어서 훌륭한 結論이 나게 되면 좋겠습니까마는 현재 쉽게 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個人的 생각인데 文教部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여하히 處理할 것인지 文教部의 이에 대한 對策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柄索 金春洙委員 發言해 주세요.

○金春洙委員 오늘 다섯 분의 陳述을 듣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해서 혹 앞으로 中等學校의 歷史 國史教科書 編纂에 혹 문제거리가 될까 싶어서 한두가지 느낀 바를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安博士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古代에 있어서 우리 民族移動이라고 하겠습니까 民族史의 展開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古時代에 대한 하나의 解釋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이런 解釋을 듣고 보니까 매우 삼상한 흡사 古代 叙事詩를 읽는 것과 같은 그런 삼상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安博士님께서는 주로 司馬遷 기타 옛 中國人의 文獻에 따라서 그런 解釋을 하시는 것같은데 현재 中國에서 특히 中等學校 教科書에서 우리 古代史를 어떻게 取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혹 그 方面에 아직 檢討가 없으시다고 하면 앞으로 좀 檢討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崔永禧先生께 한두가지 崔先生께서 言及하셨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檀君神話에 관계되는 것하고 東學亂에 관계되는 것인데 檀君이 歷史的인 人物이나 神話的 人物이나 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서 저와 같은 사람이 간단히 規定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歷史的인 人物이 아니고 神話的인 人物이다 그래서 神話取扱을 하더라도 教科書에는 그렇게 取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神話는 아시다시피 하나의 世界觀의 象徴的인 表現이니까 世界觀이 반드시 背景이 되어 있음

니다. 해서 그 世界觀의 說明이 없는 神話取扱이라고 하는 것은 無意味하다 하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해서 적어도 中 高等學校 中等學校 「레벨」의 教科書에서는 좀 상세하게 容納得이 갈 수 있는 背景되는 世界觀의 說明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東學亂이 革命이나 아니냐 기다 아니다 어떤 면은 기고 어떤 면은 아니다 하는 그런 論議가 많이 있는 것같은데 그것은 觀點에 따라서 간단히 말해서 「이베올로지」에 따라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는 性質이고 또 革命이 좋으나 안좋으나 어떤 革命이 좋고 어떤 革命이 나쁘냐 하는 것도 이것은 歷史의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베올로지」문제이고 歷史의 입장에서 적어도 革命이라고 하는 말의 概念을 定立시켜 놓고 革命이라는 말을 써야 하지 않을까 특히 中等學校 정도의 어린애들 아직 知覺이 없는 애들에게 革命이라는 말을 쓸 적에는 특히 定立을 시켜놓고 革命이라는 말 自體 概念自體를 定立시켜 놓고 革命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러쿵저러쿵 史實을 가지고 이런 角度 저런 角度에서 史家들이 얘기한 것을 그냥 羅列하는 것보다는 編纂者의 어떤 革命에 대한 어떤 概念定立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定立을 시켜놓고 革命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오늘 말씀해 주신 다섯 분에게 共通으로 通用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敘述입니다. 歷史敘述인데 잠깐 오늘 이 國史冊을 보니까 敘述者의 見解가 너무 露出되고 있다 적다 많다 이것을 좀다 나쁘다 영광스럽다 치욕스럽다 하는 말들이 到處에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修身教科書 道德教科書와 같은 印象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어린 學生들이니까 가르친다는 입장에서 老婆心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이렇게는 이해가 됩니까 마는 歷史니까 어린 學生들을 相對로 하든 안하든 歷史는 歷史의 記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見解를 露出시켜서는 歷史가 아니지 않느냐 조금 그것을 삼가했으면 어떨까... 자기 見解를 露出 안시키도록 삼가히 하고 史實을 정확하게 記述해 주는 것이 좋지 않

겠나 하는 것이 저의 所感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韓柄索 李大淳委員 發言해 주세요.

○李大淳委員 오랫동안 저희 國史研究에 盡力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할 드립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가운데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못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事項만 補充質問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安浩相선생님께서 아까 우리 民族의 淵源의 說明에 있어서 우리가 東夷族이다 그러면서 說明 가운데에서 東夷種族이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셨읍니다마는 나중에 金哲坡教授께서 제가 誤解를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誤解된 점은 是正을 해주시고 東夷族의 文化圈內에 있는 漢貊族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安博士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說明하실 때에 東夷族인데 그 東夷族이 同族이라는 全體의 概念이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見解를 한번 묻고 싶고 아까 朴在旭委員께서도 그와 같은 質問이 나왔읍니다마는 三國時代의 疆域圈에 있어서 新羅의 首都는 그러면 그대로 慶州로 보는 것이냐 그리고 百濟의 首都는 이때까지 歷史의 記述과 동일한 점으로 보신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고 주장하신 대로 北京까지 있다면 그 領域에도 또 하나의 首都가 있었다고 보느냐 거기에 대한 어떠한 證據는 있느냐 그리고 그와 같은 廣域圈의 三國時代 百濟 혹은 新羅의 疆域時代가 어떻게 이렇게 韓半島로 局限시켜서 轉換되어 나왔느냐 그러한 根據는 어떻게 보시고 제시는지?

그 다음에 둘째로 崔永禧委員長께서 아까 中國의 史記를 中心으로 해서 古代史研究가 檀國大學校의 研究所를 中心으로 해서 展開되고 있다고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 古代史研究의..... 康源采委員도 提議했지만 필요한 文獻의 整備과 그리고 특히 中國의 史記에 대한 것이 歷史的 우리나라 史觀의 입장에서 완전히 研究가 끝이 났느냐 아직도 研究는 계속 되어 있느냐 그리고 古代史研究에 있어서 隘路點이 어떠한 것이 더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朴時仁教授께서 建國에 있어서 檀君始祖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建國理念에 대한 것을 상당

히 강조하셨습니까다는 물론 請願人의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추측은 잡니다마는 분명하게 알고 싶어하는 것은 朴時仁教授는 檀君始祖를 實存한 것으로 보고 그 建國理念을 教科書에 具體化시키라고 하는 입장이나 神話라고 認定하더라도 建國理念에 대한 것을 教育的 次元에서 記述해야 되느냐 하는 어느 입장에서 있으신지 하는 것을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金哲堉教授께서 漢四郡 設置根據에 대해서 만약 漢四郡이 設置 안되었다면 그 다음에 高句麗 百濟 新羅 三國이 抗爭해 가는 歷史的 使命을 어떻게 說明할 것이냐 하는 個中에 조금 言及은 있었습니까다는 조금 저희들이 아직 그 分野에 대해서 未洽하기 때문에 그러시다면 漢四郡의 設置根據에 歷史的 根據가 어떠한 것이냐 어떠한 史實에 根據를 두고 주장하시는 것이냐?

그 다음에 오늘 발표하신 것 가운데에서도 金哲堉教授께서는 우리 民族에 있어서 東夷文化圈 가운데에서 言語學上에 있어서 「우랄 알타이」言語에 屬하는 漢貊의 民族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본다면 教科書를 記述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생소한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우리 民族의 그 系統 그것은 우리 教科書에 담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中學校 教科書에 있어서 우리 民族의 系統을 記述하지 않는 事由가 무엇이나 이 점에 대해서 좀 補充說明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金哲堉教授께서 歷史의 史實을 記述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한 입장에서 해버리면 여러가지 問題點이 있다 하는 말씀에 一理는 있으십니까다는 이것은 崔永禧先生님이나 金哲堉先生님이나 공히 우리 教科書 中學校 高等學校 國史教科書 全體를 보았을 때에 그 記述과 教育的 面에서 韓國人으로서의 精神史的인 의미에 있어서 한 國民의 魂의 記述이 충분하다고 보느냐 또 全體的인 分量으로 보아서 우리 民族의 과거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에 있어서 그 比重이 밝은 면의 記述이 좀 부족한 점은 없다고 보느냐 이 점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韓柄索 具龍鉉委員 質疑해 주세요.

○具龍鉉委員 來日 또 아마 우리나라의 國史를 專攻하시는 碩學 여러분이 오셔서 좋은 말

씀을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綜合的인 것은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判斷도 하고 質疑를 하겠습니까다는 제가 오늘 國史編纂委員會 委員長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學問의 領域에 관한 것은 一般國民의 社會生活에 관한 면하고 달라서 사실 이런 公聽會를 통해서 어떤 結末을 짓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國史編纂委員會에서 이와 같은 學者들간에 여러가지 異說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學者 相互間에 기탄없는 그와 같은 對話를 나누면서 그 學問의 여러가지 接近을 試圖해 본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고 만일 그러한 일이 없었다면 앞으로 그러한 것을 좀 끈기있게 시간을 두고라도 할 용의가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 質疑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韓柄索 더 質疑하실 분 안 계십니까?
李寧熙委員님 質疑해 주세요.

○李寧熙委員 納得할 수 없는 점이 있어서 간단히 여쭙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崔永禧委員長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安浩相先生님께서도 두 분께서 똑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朴時仁先生님께서 말씀하시기를 鮮朝總督府傘下 朝鮮史編纂委員會에 우리나라 분이 우리나라의 史學者가 거기에서 중요한 役割을 맡아서 특히 우리나라의 古代史와 中世史 編纂에 關與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解放後에도 계속 우리나라의 중요한 史學界의 重鎮으로서 우리나라 史學界를 「리이드」해 오셨고 또 그 분이 우리나라 教科書를 編纂하는데 계속해서 중요한 役割을 해 오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의 民族史的인 입장에서 여러가지 論難이 日政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한 說往說來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解放後에는 마땅히 그 분이 史學界의 어떤 糾彈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러가지 구구한 이야기로서 뒤에 後에도 물러날 수 있었던 분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는데 어째서 그 분이 계속 오늘날까지 史學界를 「리이드」해 오실 수 있었는지 그간에 그만한 史學者가 우리나라에 안 계셨

는지 또 그만한 이유가 또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1973년에 國史教科書에서 植民史觀을 배제하는 그런 作業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結果적으로는 전혀 똑같은 教科書가 되었다 그렇게 朴生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그런 결과가 되었는지 文敎部하고 또 그 編纂하신 분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었던 것인지 그런 것까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韓柄來 質疑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答辯은 잠시 停會한 후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答辯을 준비하실 때에 參考하실 것은 오늘 公述人의 公述 가운데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質疑하는 분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라는 부분의 誤謬를 가지고 전체를 否定하는 이런 強壓의인 論理展開 흔히들 우리들이 보는…… 그런 論理들이 있었습니까라는 그런 論理는 삼가해 주시고 또 答辯하시는 가운데 어느 特定人의 名譽나 威信에 관계되는 부분은 答辯을 삼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原則의인 史觀問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어느 분이건 이 자리에 있는 분이건 없는 분이건 個人의 名譽나 威信에 관계되는 부분의 特定한 사람의 이름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잠시 停會한 후에 公述人의 答辯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停會를 宣稱합니다.

(19時8分 會議中止)

(20時11分 繼續開議)

○委員長 韓柄來 會議를 續開합니다.

그러면 答辯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答辯은 可及的 간단하게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文敎部側 答辯을 들겠습니다. 獎學編修室長 答辯해 주세요.

○文敎部獎學編修室長 黃哲秀 文敎部獎學編修室長입니다.

오늘 當部의 國史教科書 編纂關係로 國會에 까지 請願이 들어와서 여러 委員님 여러분 늦게까지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고 땀을 끼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먼저 康源采委員님께서 말씀하신 國史教科書가 몇번 修正 改編되었으며 또 그 동안에 教科書가 어떻게 歷史觀의 差異를 가지고 改編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教科書改編은 解放 이후에 72년까지는 檢定이었습니니다. 73년 이후에 國定으로 改編이 되어서 74년에 사용하게 되었고 또 78년에 한번 改編이 되어 가지고 79년에서부터 사용하게 되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歷史觀의 差異는 1910年代의 教科書는 어떤 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의 教科書는 史料解說式의 歷史敘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1945년 이후에는 檀君始祖로 하고 植民地史觀을 脫皮하는 경향으로 教科書가 調整이 되었고 또 1963년에는 國史敎育內容의 統一이라고 하는 資料가 나왔습니다. 그 資料에 의해서 檀君神話로 取扱이 되었습니다. 1972년에는 國史敎育強化委員會를 構成해서 民族觀確立을 위한 內容으로 國史敎育을 強化하도록 改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姜棋弼委員님께서 말씀하신 兩側 意見이 愛國의이고 대개 愛國의인 次元에서 歸一하는 데 앞으로 文敎部는 어떤 對策을 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教科書는 學界의 研究結果를 基礎로 해서 敘述되는 것이므로 學界에서 異說이 있는 事項에 대해서는 通說로 定立되면 教科書에 反映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이상 간단히 報告말씀 드렸습니다.

○委員長 韓柄來 다음은 請願人側 立場에서 安浩相博士님 答辯해 주세요.

答辯하시는데 朴時仁教授님 하고 나누어서 하시는 것이 편리한 것은 나누어서 하셔도 됩니다.

答辯은 간단하게 물어신데 대해서만 해주세요.

○陳述人 安浩相 먼저도 그러했고 오늘날도 資料에 대해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金哲培씨와 李龍範씨가 欽定滿洲原流考는 史料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할 뿐더러 이미 6年前에는 그 책이 等外史料라고까지 신문에 혹평하고 며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입니다. 왜그러나 하면 欽定滿洲源流考는 乾隆 43년에 乾隆임금이 서른다섯 學者 臣下들에게 명령해 가지고 만든 冊이기 때문에 “欽定”이란 두 글자를 붙여서 欽定滿洲源流考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의 命을 받아가지고 이 冊은 만든 것이고 그 내용은 全部가 다른 冊들에 있는 것을 여기에 끌어다 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께 드린 複寫한 것을 잠깐 보세요. 그 한장만 보더라도 거기엔 五代史曰 奉使行程錄曰 遼史曰 元史曰 唐書曰 新唐書曰 舊唐書曰 唐會要曰등 全部 다른 冊들에 있는 것을 끌어다 썼지 자기네들이 말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서른다섯 學者들이 자기들의 意見을 統一해 가지고는 반드시 “謹按”이라는 두 글자를 첫머리에 붙이고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 欽定滿洲源流考는 歷史資料中에도 上資料입니다. 이것이 價値가 없다 감동사이다 라는 말을 하시는 것은 아마 이 冊을 못보신 탓입니다.

滿洲源流考 原本을 中國에서 가져 온 것을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原本은 나 혼자만이 갖고 있는 듯합니다. 4年前에 어떤 친구가 이것을 300部를 影印本으로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전부 옳다고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冊이고 간에 옳은 것도 있고 그른 것도 있습니다. 周易을 보더라도 거기엔 옳은 것도 있고 그른 것도 있습니다. 中庸을 보더라도 또 그래요. 新約傳書와 舊約傳書도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도 있고 그른 것도 있는데 몇 가지 그른 것이 있다고 그 冊이 다 나쁘다 좋은 것이 있다고 그 冊이 다 좋다는 것은 안되는 말입니다.

新羅疆土에 관해 물으셨는데 거기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滿洲源流考에선 말하기를 “唐會要에서 이르되 武州物產을 新羅가 많이 가져 갔다”라 하였습니다. (唐會要曰 武州物產 爲新羅之最：滿洲源流考卷九) 武州는 본래 中國 山西省에 있는데 이 山西省 河南省 河北省(北京地域) 등이 百濟의 강토인 까닭에 新羅가 百濟를 통합하고 난 뒤에 이 武州의 物產을 가져간 것입니다.

서른다섯 學者 臣下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모아 新羅의 처음 疆土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신라의 疆土가 朝鮮의 慶尙 江原 二道에서 北쪽으로 吉林烏拉(東京城地域)까지요 또 西쪽으로 開原과 鐵嶺(奉天城과 新京에 이르는 地域)까지다 武列王때에는 滿洲에 있는 百濟의 옛 땅(故地)과 고구려 땅을 얻음으로써 東西가 九百里요 南北이 千여리나 더 넓어졌다고 하였습니다. (謹按新羅…… 其疆土 東南並有今朝鮮之慶尙 江原二道 西北直至 吉林烏拉 又西近開原 鐵嶺唐顯慶 以後又得百濟故地及高句麗南境 於是 東西增九百里 南北增千餘里：滿洲源流考卷九)

마침내 新羅의 처음 강토가 北쪽은 吉林(東京城地域)까지요 西쪽으로 滿洲 奉天과 新京까지였던 까닭에 新唐書에서 新羅의 강토가 橫千里요 縱이 三千里라 하는 말이 완전히 일치되는데 그것은 奉天에서 東海까지가 千里요 또 東京城에서 慶州까지가 三千里가 되는 까닭입니다. (新唐書曰 新羅居漢樂浪地橫千里縱三千里：滿洲源流考卷九)

반대분들이 滿洲源流考를 가치가 없느니 믿기 어려우니 하시는때 만일 그렇다면 滿洲源流考만이 아니라 이 冊이 옮겨다 쓴 그 모든 책들이 또한 가치가 없고 믿지 못할 冊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써 이 여러 冊들을 가치없다 또는 믿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주장은 너무나 심한 獨斷이요 詭辯입니다.

○委員長 韓柄索 저 安浩相博士님! 방금 그 答辯을 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滿洲源流考에 대해서 說明을 잘 들었습니다. 安浩相博士님 입장에서 그 歷史的 考證의 價値만 說明하시고 그 古書에 대한 評價는 學者에 따라 다른 意見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意見에 대한 論駁은 可及的 삼가해 주시고 安博士님의 정당한 根據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答辯해 주세요.

○講述人 安浩相 三國遺事와 三國史記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나는 評價하기 어렵습니다. 崔南善씨 같은 이는 三國遺事に다 評價를 많이 두었습니다. 왜그러나 하면 三國遺事に 좋은 것이 더 많은 까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이 말하기를 三國史記에선 檀君 歷史를 빼어버렸다 하지만 그 冊 高句麗 東川王 21年條를 보면 滿洲 松花江 流域에 있는

“平壤은 본시 檀君王儉의 집터다 혹은 임금의 서울인 王儉城이다”라 하였읍니다. (平壤本仙人王儉之宅也 或云王之都王儉：三國史記卷十七 東川王二十一年)

三國史記 眞興王 三十七年條에서 崔致遠의 낙랑화랑의 빛글을 옮겨다 실었는데 그것은 곧 “우리나라에 玄(神)妙한 道가 있는데 그것을 風流(발달=발달=檀)道라 하며 이 宗教(道)의 창설한 근원이 仙史에 자세히 실려져 있는데 실로 3종교를 포함하고 있다”라 하였읍니다. (崔致遠 낙랑비序曰 國有玄妙之道 曰風流 設教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教：三國史記卷四 眞興王三十七年)

이제 끌어 쓴 두가지 글들을 宗教的 哲學的 歷史的 또 言語的으로 연구해 보면 단군사상을 잘 알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三國史記에서 檀君의 歷史를 다루지 아니한 것은 대단히 섭섭한 일입니다. 그러나 三國史記를 덮어 놓고 다 나쁘다 하기 보다는 그 중 옳은 것은 옳다고 取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재 國定國史를 그대로 둔다면 民族否定과 民族分裂을 가져오고 또 民族史的正統性을 金日成이한테 넘기고 만다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한 民族이라는 것은 始祖가 같아야 됩니다. 핏줄이 같고 한 始祖를 가져야만 같은 한 民族이지 한 始祖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祖上이 아니고 딴 祖上들의 핏줄을 받은 子孫들이 모인 사람은 한 民族이 못됩니다.

「스위스」(瑞西)를 보시오. 約 8割이 獨逸系統이요 約 1割5分이 佛蘭西系統이요 約 5分이 伊太利系統이기 때문에 瑞西民族이라고는 말하지 아니합니다. 왜그러나 하면 알 수 있는 세 民族들이 합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國民은 되어 있지만 民族이란 없습니다.

「아메리카」를 보시오. 「아메리카」는 世界人種展覽會도 전시장입니다. 그러므로 「아메리카」에는 「아메리카」民族 곧 「아메리칸 네이션(American nation)은 없고 오직 「아메리카」사람 곧 「아메리칸 피플(American people)이란 것만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 잘 알 수 있음은 여러 祖上들의 子孫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한 民族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祖上인 檀君을 否定한다면 우리는 한 民族이 될 수 없

으므로 그것은 民族을 否定하는 것인 동시에 또 民族을 완전히 南北으로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國史教科書에 따른다고 하면 어찌서 民族史的正統性을 金日成이한테 넘긴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國史教科書에선 古朝鮮의 成立과 文化中心地가 大同江流域이요(고. 국사 12면, 20면) 王儉城이 大同江流域에 있다 하였읍니다. (고. 국사 12면) 高句麗가 大同江流域이요 또. 金日成이가 大同江流域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 國史教科書가 檀君을 부정하고 古朝鮮의 成立地와 王儉城의 所在地를 모두 大同江流域이라 한다면 우리의 民族史的正統性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金日成이 갖는다는 것은 다음 보기로써 밝혀 보겠습니다.

首露임금의 子孫인 金海金氏를 보기로 합시다. 首露임금을 始祖로 한 金海金氏는 반드시 宗孫이 있을 것이요 또 宗孫은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또는 그가 歐羅巴에 살거나 「아프리카」에 가서 살거나 남미나 북미나 어디 가서 살거나 그는 金海金氏의 宗孫으로서 金海金氏의 氏族史的正統性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金海金氏들이 首露임금을 神話로 돌려 부정하고 자기들이 首露임금의 子孫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거기엔 宗孫이 없을 것이므로 누가 金海金氏의 氏族史的正統性을 가질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서울에 金海金氏가 많이 산다고 그 正統性을 가질 것인가? 仁川에 있는 金海金氏 혹은 大邱 釜山の 金海金氏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金海金氏가 처음 생겨난 터인 金海에 살고 있는 金海金氏가 그 金海金氏의 氏族史的正統性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꼭 이와 마찬가지로 檀君을 否定하고 우리 古朝鮮이 비로소 처음으로 大同江流域에서 생겨났다면 이 大同江流域을 차지하고 있는 金日成이 우리의 民族史的正統性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金日成은 벌써 이것을 알고 그렇게 꾸며나가고 있습니다.

○李義永委員 西曆을 쓰는 것을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陳述人 安浩相 西曆말씀이지요? 西曆말씀을 필요는 없습니다. 過去와 같이 檀紀쓰고

西曆도 並行하고 外交文書는 全部 西紀로 써요. 그러나 學校 學生들은 반드시 檀君紀元을 써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中國과 日本을 보십시오! 어느 나라고 全部 자기나라 紀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우리만 檀紀를 버리고 西紀만 쓰겠습니까?

○李義永委員 그러면 安博士님은 西曆 쓰시는 것을 反對하시는 立場입니까?

○陳述人 安浩相 예. 절대 反對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反對했습니다.

○李義永委員 예. 알겠습니다.

○陳述人 安浩相 다음은 檀君歷史를 말씀드리겠습니다.

檀君歷史는 歷史的 事實面과 誕生の 神話面 두 면이 있습니다. 歷史的 事實面과 誕生の 神話面이 있는데 왜놈들이 誕生の 神話面만 딱 들어가지고 神話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1700年 앞에 晋나라 王沉이 지은 魏書四十八卷 가운데 실려 있는 檀君 한배검(檀君王儉)의 歷史의 글을 三國遺事의 맨 첫머리에 끌어다 썼다는데 그것은 곧 “魏書에서 이르기를 2천년 앞에 檀君 한배검이 제서서 한밤산 아사달(아시땅)에 서울을 세우시고 나라를 열어 이름을 朝鮮이라 하니 堯임금과 같은 때다”라 한 것입니다. (魏書云 乃往二千載有檀君王儉 立都於阿斯達 註. 經云無葉山 又云白岳 開國 國號朝鮮 與高同時: 三國遺事卷一 古朝鮮 王儉朝鮮)

과거 漢文으로 쓴 우리나라 歷史册치고 檀君역사 없는 책이 없으며 또 여러 책들에선 까만 옛날부터 있어 온 “古記”란 책의 글을 옮겨다 써 두었는데 그것은 곧 “古記에 이르되 東方(檀國)에 처음 임금이 없더니 神人이 한밤산(太白山 白頭山) 밤달나무 아래에 내려 오시거늘 나라사람들이 세워(立, 뽑아)서 임금으로 삼으니 이 분이 檀君이 되시고 나라를 열어 檀 또는 朝鮮이라 하다”라는 것입니다. (古記云 東方初無君長 神人降于太白山 檀木下 國人立以 爲君 是爲檀君 開國號檀 又 朝鮮)

단군의 역사는 중국 明나라 太祖와 또 明나라의 여러 詩人들이 詩로써 칭찬하였고 또 현재 北韓의 史學者 리지린도 자기의 지은 책 “古朝鮮研究 제 2장 고조선전국 전설 비판 1. 檀君朝鮮 전국 전설 비판”에서 魏書의 檀君歷史를 시인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과 또

檀君의 歷史는 나의 지은 책 “檀君과 화랑의 歷史와 철학”에서 자세히 연구하여 두었습니다.

檀君 한배검에는 歷史的 事實面 밖에 또 誕生(出生)의 神話面이 붙었습니다. 誕生에 神化가 붙었다 해서 그 분의 실존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옛날 太昊伏羲 炎帝神農 黃帝軒轅등 三皇과 少昊金天 전욱高陽 帝고高辛 堯 舜등 五帝의 탄생에 神話 안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 분들의 실존을 부정하겠습니까?

석가여래를 한번 살펴봅시다. 석가여래의 아버지는 가비라성 임금ियो 어머니는 마야부인입니다. 그러나 석가여래의 탄생전설이 첫째로 마야부인이 걱정과 근심이 없는 나무가지를 잡고 있다가 석가여래를 배어서 낳았다 하였고 둘째 전설은 하늘의 北斗七星에서 번갯불 일곱개가 내려와서 마야부인 뱃속에 들어가 석가여래를 배어서 낳았다 하였고 셋째 전설은 코끼리 일곱마리가 마야부인 왼쪽 갈빗대 사이로 들어가서 석가여래를 배어서 오른쪽 갈빗대 사이로 낳으니 석가여래가 낳자마자 북쪽으로 일곱걸음을 나아가 “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고 사자고암을 쳤다”라 하였는데 그렇다 하여서 석가여래의 실존을 부정할 것입니까?

「이스라엘」(유대)사람의 전설을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아담」을 만들었고 「아담」은 자기의 갈빗대를 뽑아내어 여자인 「이브」를 만든 뒤 결혼하여 인류를 창조하였으므로 이들을 인류의 창시조라 하였는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신화입니까?

「예수」를 보더라도 그의 아버지는 「요셉」ियो 어머니는 「마리아」요 또 삼사 남매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예수교인들은 믿기를 숫처녀(童貞女) 「마리아」가 하나님과 사랑해서 「예수」를 배어 낳은 까닭에 예수는 神의 외아들이라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죽고난 뒤 사흘만에 되살아서 하늘로 올라갔다 하여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화입니까 실화입니까? 이러한 신화가 붙었다 해서 예수의 실존을 부정할 것입니까?

○李義永委員 安博士님 제 答辯은 충분히 되었는데 하나 좀 더 묻겠습니다.

아까 金日成關係에 대해서 좀 補充質疑를 드리겠는데 만일의 경우에 우리 國會에서 安博士님의 請願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 때에 지금 安博士님이 얘기하시는 金日成
이의 正統性에 대해서 어떠한 態度를 가지시
겠습니까?

○陳述人 安浩相 내 態度는 별 문제입니다.
그 높은 가졌다고 주장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承認 안합니다. 이 모든 것은 벌써 나의 지
은책 “단군과 화랑의 역사와 철학”에서 모두
써놓았습니다.

○李義永委員 예. 알았습니다.

○陳述人 安浩相 그러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誕生의 神話는 고구려의 동명임금 新羅의
始祖 赫居世 伽倻의 始祖 首露임금이 전부 하
늘에서 떨어진 알 속에서 나왔습니다. 곧 卵
生說입니다. 이렇게 誕生에 神話가 붙었다 해
서 歷史的 事實은 하나도 記述하지 않고 오
로지 神話面만 記述해서 그 분들의 실존을 부
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1981년밖에 안 되었으나 그러한 誕
生の 神話가 붙었는데 4314년 앞에 계신 단군
한배검에 그런 神話는 조금도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人格을 神格化시키고
事實을 神話化시키는 것이 보통 常識입니다.

단군 한배검을 신화로 돌려 부정한다면 거
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또 생각도 없이 함부로 옛 역사를 부
정함은 너무나 비과학적이며 비학자적입니다.

우리의 옛책들과 中國册인 魏書와 明나라 여
러 학자들과 또 北韓歷史家도 단군 한배검의
실존을 긍정하였는데 다만 倭政의 침략적 식
민사관을 따르는 한국 史學徒들만이 단군 한
배검의 실존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옛날 단군의 역사를 기록한 그 많은 漢文
册들과 또 국·한문책들에서 단군의 역사적 사
실만을 기록하고 탄생신화는 별로 말하지 아
니하였는데 三國遺事와 帝王韻記에선 역사적
사실면과 탄생신화를 다같이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倭政官學派 일부에서 단군의 탄생 신화
만을 들어 단군을 부정하였고 또 이것을 따
라간 우리나라의 植民史學派인 官學派 역사가
들이 우리 국사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中國의 中·高校의 國史教科書를 보
면 우리 단군 기원 여러 천년 앞사람인 有巢
氏 燧人氏 太昊伏戲氏(단기 앞 12세기 서기 앞
36세기) 炎帝神農氏 黃帝軒轅氏 등을 모두 그
國史册에 올려 놓고 이들을 자기들의 역사인

물인 것처럼 꾸며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우리 東夷族의 후손으로서 우리 겨레
의 사람이지 결코 중국사람이 아닙니다. 그러
므로 우리는 우리의 祖上을 잊어버린 까닭에
잃어 버렸습니다. 중국사람들은 남의 나라 사
람들까지 끌어다 붙여 자기들의 역사를 더욱
오랜 것으로 만드는데 우리 植民史學派 국사가
들은 무슨 마음으로 國祖를 없애고 二千餘年
의 역사를 없애 버리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습니다.

三皇과 五帝가 우리 東夷사람이란 것은 나
의 지은 책 “배달동이는 동이겨레와 동아문
화의 발상지”라는 책에서 자세히 연구하여 두었
으므로 여기서선 다만 太昊伏戲氏만 소개해 보
겠습니다.

여러 옛 책들을 종합해 보면 太昊伏戲氏가
우리 동아에서 처음으로 八卦를 짓고 글자를
만들어 정치를 잘 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나라인 震(三卦)땅(동아의 동·북지역)에서 나
고 또 東夷族의 한 갈래인 風夷의 후손인
까닭에 姓을 風氏라 하고 또 한밝산(太白山,
백두산)의 神仙인 까닭에 太昊(한밝)이라 하더
라 하였습니다. (太昊伏戲氏 姓風姓…… 始創八
卦 造書契 以代結繩之政…… 故易稱太昊帝 出乎
震 月令孟春 故稱太皞(昊) 皞明也: 補史記 三
皇本記: 遼瀋幽燕之也 已爲我族 耕農 遊牧之所
而 伏戲氏 適以是時 生於風族之間 以風 爲姓
故也: 北崖 揆苑史話 二 太始記)

○委員長 韓柄索 發言中에 죄송합니다마는 安
浩相博士님은 앞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있을
公聽會에 나오셔야 되고 그 때마다 意見을 陳
述할 機會가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
서 오늘 時間도 오래 되었고 또 아직 答辯
할 분이 많이 계시고 해서 간단간단하게 答
辯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陳述人 安浩相 예. 다 못한 것은 다음날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李義永委員 答辯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陳述人 安浩相 金哲俊씨와 李龍範씨가 6年
앞에도 山海經을 等外史料라 하며니 이번에도
또한 그것은 史料的 가치가 없다 하였습니다.
이 분들의 이 말을 듣고 나니 이 분들
이 이 책들의 內容과 또 中國正史들을 전혀
읽어보지도 못한듯 합니다. 다른 책들은 그만
두고 後漢書卷二十九~三十三 합 5卷의 “郡

國志"에서 山海經의 글을 十九곳이나 끌어다 써서 그 郡國地理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後漢書卷 百十五 東夷傳의 첫머리에서 山海經의 글을 끌어다 썼는데 그것은 곧 "禮記 王制 편에서 말하기를 東方은 夷인데…… 그것은 君子不死의 나라다 山海經에선 이르되 그것은 君子나라로서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 하였습니다. (王制云 東方曰 夷…… 有君子不死之國焉 註. 山海經曰 君子國…… 又曰不死人在: 後漢書卷百十五, 東夷傳)

李龍範씨는 古朝鮮이 北京지역이 아니요 北平이 北京이 아니라 하였지만 우리 나라책인 文獻備考에서도 明나라 역사책인 明一統志의 글을 옮겨다 썼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明一統志에 이르기를 朝鮮城이 北平郡인 永平府境內에 있는데 이곳은 箕(奇)子가 임금질하던 땅이다 이것은 丁茶山이 또한 魏略이란 책을 근거로 해서 이 말이 옳다 하였고 또 盛京志란 책에선 北京지역인 遼西의 廣寧縣이 周나라 때에도 朝鮮境界라고 하였습니다. (明一統志云 朝鮮城 在永平府境內 相傳箕子 受封之地後魏置縣 屬北平郡續 臣謹按 今之永平府 即故之北平郡也 丁若鏞曰 據魏略 潘汗以西 二千餘里 在古爲箕子之有 今自遼東二千餘里 正得永平府境 明一統志 所信眞有據也 臣又謹按 盛京志云 遼西之 廣寧縣 在周爲朝鮮界: 文獻備考 卷十三)

李龍範씨는 中國歷史인 明一統志를 시원치 않다 또는 가치가 없다 하니 참으로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올 지경입니다. 明一統志가 밝힌 朝鮮城이 北京인 永平府에 있었고 또 箕子의 나라라는 것은 1980年 4月 28日 宇로 시내 여러 신문들에서 발표된 中國 내만에 유학중인 李亨求씨의 논문과 출로품들로써 잘 밝혀졌는데 거기에선 "中國 河北省 北京지역 中部 以南에 第二의 箕子朝鮮이 있었다"고 하고 이 지역에서 北京이 있는 이 河北省에서 파낸 유물으로써 충분히 고증하였습니다.

中國古今 地名大辭典을 보면 永平府는 옛날 北平과 廣寧으로의 현재의 河北省과 甘肅省과 또 寧夏省까지 포함하였던 것입니다. (永平府 當在今甘肅 舊寧夏境 商孤竹國: 中國古今 地名大辭典 永平府: 廣寧 故治今甘肅 그 책 廣寧) 李龍範씨는 이 中國古今 地名大辭典마저 통속적이라 하였음이다마는 이 또한 이 책을 못

읽어본 모양입니다. 우리가 中國을 가보면 上海商務印書館이 中國에서 제일 큰 出版社경 書店인데 여기서 1931년에 처음 출판하였고 1642년이나 되는 큰 책이며 중국 地名辭典치고는 으뜸가는 책인데 이것을 통속적이다 길지 못하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 못되는 듯합니다.

그러면 朴時仁博士께서 이제 내가 얘기한 것을 잠깐 補充說明하십시오.

○委員長 韓柄來 간단하게 答辯해 주세요.
○陳述人 朴時仁 지금 安博士께서 新羅統一時代의 疆域이 滿洲를 많이 포함하였다고 滿洲源流考를 引用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場內가 대단히 긴장된 것으로 저는 印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滿洲源流考에 확실히 있습니다. 新羅가 그것을 완전히 所有하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高句麗를 滅한 뒤에 滿洲는 잠깐동안 混亂空白狀態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新羅가 進出하여 混戰이 벌어질 때의 狀況을 記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후 그 자리에서 渤海가 일어났습니다.

698년에 高句麗의 靺鞨部가 渤海國을 세웠습니다. 滿洲를 다 차지하고 713년에는 登州 지금의 山東省을 攻擊을 했습니다. 그 渤海가 일어나기 전에 滿洲에 新羅勢力이 크게 미쳤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 점을 誤解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한테 李大淳委員께서 禮君에 관한 것을 실제로 보느냐 神話로 보느냐 물으실 때 대해서 答辯하겠습니다. 資料 第1 三國遺事 引用文에 지금 安博士께서 말씀하신 魏書云云 하는 것이 있는데 魏書는 확실히 歷史的 記錄이며 事實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引用된 記錄은 너무나 짧습니다. 帝王續記도 여기에 基礎하고 있는데 이 記錄이 너무 적어서 疑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자신도 疑心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古記云 하는 데목에 관해서 말씀하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운운 하는 것은 神話的인 表現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神話的인 表現에는 歷史的 事實이 없느냐 하면 그것은 速斷할 수 없습니다. 神話的인 表現을 했더라도 歷史的인 事實일 수가 흔히 있습니다. 新羅 高句麗 百濟 加羅의 神話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慎重을

要하는 것입니다. 記錄이 저기 때문에 疑心이 가는 데가 있지만 우리가 數千年 동안 여기에 살면서 代代로 피를 섞고 單一民族이 된 것은 분명한 事實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처음 祖上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할 적에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이와 같이 神話的으로 表現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單一民族이라는 사실에서 저절로 우려난 표현이기 때문에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인할 根據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이라고 말할 根據는 충분하지 못하지만 있는 반면에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根據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감히 버릴 수 없다 教科書에 실어서 우리는 單一民族임을 강조하자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滿洲를 자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疑問이 계시다면 資料 第5 魏書地形志를 보십시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平州에 遼西郡하고 北平郡 두 郡이 있는데 北平郡에는 朝鮮과 新昌 두 縣이 있습니다. 그리고 朝鮮에 대한 說明에 二漢 즉 前漢 後漢과 晉 시대에는 樂浪郡에 속했다고 있습니다.

그러면 平州 北平郡이 어디냐 하면 지금의 北京입니다. 거기가 樂浪이고 朝鮮도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中國의 魏書를 引用할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高句麗가 망한 뒤에 新羅가 그 자리 北平까지 勢力을 뻗치고 唐나라 勢力을 누웠다고 滿洲源流考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記錄들을 신중히 檢討해서 史實을 알아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 答辯은 대개 그 정도로 그칩니다. 그러나 樂浪에 관하여 하나만 追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님들한테 제가 드린 資料가운데 年代表가 있습니다. 그 年代表앞에 三國史記에서 따온 두 引用文이 있는데 보아 주십시오.

처음 引用文의 大武神王 20年은 西紀로 말하면 37年인데 그 해에 高句麗가 樂浪을 滅했다고 있습니다. 그 다음 引用文의 美川王 14年은 西紀 313年인데 이 해에는 高句麗 美川王의 軍隊가 樂浪에 쳐들어 가서 2,000名을 捕虜로 잡아왔다고 있습니다.

昭和15年度에 日本의 不凡社에서 나온 年表

에 볼 것 같으면 역시 三國史記에 있는 대로 高句麗가 西紀 37年에 樂浪을 滅했다고 있고 313년에는 樂浪에 가서 2,000名 잡아왔다고 있습니다. 三國史記에 있는 대로 정확하게 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國史教科書에는 313년에 高句麗가 樂浪을 滅했다고 써 있습니다. 300年 가량 年代를 아무 근거없이 끌어 내려 놓았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는나고요?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그런 것이니 근거를 제시할 수가 絶對로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柄索 수고했습니다. 제가 數次 말씀을 했을 때마다 自己主張에 대한 正當한 論理와 根據에 主眼點을 두고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崔永禧委員長 答辯해 주세요.

○陳述人 崔永禧 제게 온 質問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綜合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中國 내지 日本에서의 古代史에 관한 史料批判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그 다음이 檀君이 歷史的으로 實在人物인가 또는 神話的인 人物인가 이것을 좀 더 神話的인 世界觀으로서 볼 수 없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東學亂에 있어서의 革命이라는 것이 教科書에 있어서 概念設定을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外國 주로 中國 日本에 관한 古典에 관한 研究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여기에 대한 研究는 영원토록 계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한 것의 그 잘못을 우리가 다 다시 알고 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또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各分野의 치밀한 研究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專門的인 言語 또는 專門的인 漢文 專門的인 神話學 民俗學 여기에 또 뒷받침되는 것이 考古學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에 있어서 여러 東洋史學하는 분들이 世界的 水準으로 우리의 歷史에 관한 것을 中國史料를 研究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은 世界에 많이 이러한 論文이 發表되어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日本에 있어서의 日本書紀와 古事記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國內學者

뿐만 아니라 日本에 있는 우리 在日同胞 안에서 史學者들도 여기에 완전한 「메스」를 넣고 있습니다. 지금 日本 教科書는 과거의 教科書하고는 다릅니다. 소위 天照大神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가 없어집니다. 神武天皇도 없습니다. 그럴 어디서 부터 이 歷史를 叙述하느냐 자기들의 소위 無紋土器 요즘은 아마 舊石器라고 얘기가 될 것으로 압니다. 여기서 부터 시작되어 나갑니다. 그네들의 教科書編纂이 옳고 틀린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네들의 古代史에 관한 史料를 批判해 본 결과 많은 疑心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天皇家 이것은 造作된 것이다 後代에…… 그리고 年紀도 많이 遡及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어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任那를 왜 없다고 쓰지 않았느냐 없는 것을 구태여 이것 없었다고 쓸 필요는 없어서 안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우리는 지금 많이 이것이 研究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음이다라는 檀國大學에 있어서의 25史抄에 있어서의 韓國 日本 中國과의 관계는 學者들의 큰 結晶의 한 分野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檀君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神話的이나 歷史的이나 그리고 이것을 世界觀的으로…… 神話的인 世界觀으로 보면 어떠한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 個人的 생각입니다. 아까 安선생님이나 朴時仁선생님 말씀이 틀림없이 神話的인 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하시기를 教科書에서 이렇게 「스토리」를 쓰고 이것이 뭐 확실치 않는 한 이것이 教科書에 있어서 낱말 하나하나를 따지다가는 이것은 著述이 안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쓴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은 이러한 意圖같습니다. 정말 꿈이 사람으로 變하고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오고 이런 것을 어린애들이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아마 解釋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읽을 때 아마 의심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물론 教科書를 쓰는데 있어서의 言語의 말과 이것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선생님 말씀에도 神話的인 면이 있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神話가 어떠한 사실을 格下시키는 것이 아닙

니다. 더 美化나 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歷史的 사실로 잘못 바꿀 때는 여기에 큰 矛盾이 생기고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이 아름답다는 것 또 이것을 어떻게 끌어넣느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여러 教育하는 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歷史的 사실과 또는 教育的인 면 이것도 民族의 나아갈 길 이런 것을 다 충분히 생각하셔야 함부로 이것을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무엇 아름다운 것을 破壞할 수도 있는 이러한 것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教科書에 있어서 이것은 왜 안 썼느냐 저것은 왜 안 썼느냐 教科書에는 일정한 量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쓴다 하면은 限定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綜合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쓴다는 것이지 이것이 大學에서 講義하는 것도 쓸 수 없고 特殊分野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東學에 관해서의 「이데올로기」도 여기에 속하고 古代史의 어떤 부분도 다 여기에 속합니다.

한 예를 들면 新羅가 三國을 統一할 때 高句麗가 亡한 후에 곧 新羅軍隊는 高句麗軍隊와 合勢를 했습니다. 서로 한 1萬名씩입니다. 그래서 저 鴨綠江을 넘었다고 記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鴨綠江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나가서 저쪽 靺鞨族하고 싸움해서 勝利한 적이 있습니다. 또 最後의 決戰이라고 볼 수 있는 買肖城싸움이 있습니다. 이 買肖城싸움이야말로 新羅가 三國을 統一할 때 決定的인 役割을 했습니다. 그때 李謹行이가 이끄는 唐나라 將軍으로 20萬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靺鞨族의 酋長입니다. 이것을 買肖城에서 擊滅했고 20萬을 거의 擊滅했습니다. 여기서 元述郎이 싸워서 功勞도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水軍에 있어서는 伎伐浦싸움에서 大勝利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일일이 教科書에 어떻게 다 먹혀 들어가느냐 教科書叙述에 限界性이 여기에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東學의 「이데올로기」를 中學校 애들한테 주기가 참 힘이 듭니다. 우리가 國民學校 애한테 가르치는 것은 人物中心으로 해야 된다고 아마 나와 있을 것입니다. 또 中學校 애들이 時代的인 의미를 性格을 把握할 수 없답니다. 이

것은 世界的인 모든 教育學的인 얘기입니다. 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教育學的의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高等學校에 와서는 文化的인 이해입니다. 이러한 段階를 理解하지 않고서 무엇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는 차이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또 한 가지는 學問의 領域과 이것이 모든 것이 對決될 때 論議가 對決될 때 어떻게 되느냐 學者들간에 여기서 솔직이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와주신 여러 學者님들한테 참 나와 주시라고…… 제가 지금 몸살이 났습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며칠 동안 다녔습니다. 또 여기에는 教科書가 國定教科書로 될 때 反對한 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좀 잘 감안해 주시고 또 여기에 나와 주신 여러 선생님들이 結果는 어떻게 될지 모릅시다마는 最善을 다하고 있고 정말로 이 教科書가 어떻게 되느냐 또 여러 선생님들도 나가게 되면 學界에서 發表할 때 서로 論爭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私心이 아닙니다. 또 學者는 고집이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고집을 위한 고집이 아니라 學問의 眞理에의 接近方法으로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주신 여러 學者님들도 꼭 그 理論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場 어떤 바탕은 같은 베에서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史料의 批判에서 부터 取扱해 나가는 歷史的 批判에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그칠까 합니다.

다른 농친 말이 있으면 다시 지금 말씀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韓柄索 방금 崔永禧委員長님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참고로 우리가 美國이나 英國이나 議會民主主義를 하는 나라에서는 어느 유명한 大學의 教授라도 議會에서 證言하는 것을 最高의 權威라고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民族이 指向하는 民主發展의 上着化를 위해서 教授 여러분께서 스스로 그런 矜持와 보람을 가져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金哲峻教授 答辯해 주세요.

○陳述人 金西坡 제가 아까 李大淳委員長께서 처음에 말씀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끝의 문제부터 올라가면서 答하겠습니다. 韓國史의 精

神史的 敘述이 可能한가 밝은 면과 어두운 면과의 比重이 여하한가…… 사실은 우리나라 歷史學界가 이제는 思想史的인 理解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外交關係 政治關係에 研究의 重點을 두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또 思想史面의 理解를 하던 거기에 따라 政治 外交關係의 理解도 달라지게 되고 또 달라져야 되는 까닭이기도 하고 最小限의 文獻資料가 整理된 오늘에 와서는 긴급히 우리 民族의 精神史的인 理解體系의 樹立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개 짐작하시다시피 思想史의 研究는 지금 겨우 入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佛敎哲學關係에도 그렇고 儒敎面에서도 그렇고 近代의 研究라는 것이 日淺하고 대개 自己族閥에 關係되는 것을 文集을 내고 研究를 하고 하는 그 「멘탈리티」에서 完全히 벗어나지를 못한데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思想을 實生活經驗으로서 알았던 時代에 自己社會를 運營할 적에 필요했던 思想을 眞實히 알았던 時代보다도 文化와 思想이 변해진 오늘날에 와서 理解하기 어렵게 된 것에서 오는 그러한 結果이겠지만 이것은 앞으로는 많이 研究되어야 하고 獎勵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의 이야기인데 이것 역시 文化的 內容 思想의 內容을 모르니까 모르는 면은 敘述하지 않으니까 敘述內容이 빈곤해지고 자꾸 어두운 면만 생기게 됩니다.

過去 文化內容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歷史의 貧困性을 克服하기 위하여 研究人力을 크게 길러야 합니다.

各 分野에 걸쳐서 研究하는 사람들이 따로 따로 있어 가지고 그 內容을 알면 밝은 면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말하자면 우리 佛敎界에 있어서 元曉大師는 海東의 佛敎哲學體系를 세운 사람이고 그 영향이 中國에도 미치고 日本에서는 元曉의 佛敎哲學體系에 의해서 佛敎를 理解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만큼 獨自的인 哲學體系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圓測같은 사람은 玄奘法師 아래서 中國에서 自己學派를 따로 세워가지고 競爭할 만큼 最高水準에 올랐고 그러한 高僧들은 高麗時代에도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왜 하나 하면 그 당시 國際哲

學水準에 있어서 韓國사람이 그대로 차지하는 位置가 분명히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高麗時代에서의 中國의 天台宗은 韓國사람이 아니면 復興되지 못하던 狀態이어서 天台宗의 敎理 入門書가 基本 敎理書가 高麗사람 諦觀에 의해서 整理가 되었읍니다. 이러한 것을 볼 적에 어찌 우리 社會가 停滯만 하며 어두운 面만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例로 李朝 瓷器를 든다면 李朝瓷器에 나타나는 李朝時代의 精神的 自信 꾸밈이 없어도 大凡하고 아무테나 갖다 놓아도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 精神的 自信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生活內容을 설명하지 못하고 政治史 얘기만 하고 外交史 얘기만 하니까 어두운 面만 나오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지금까지 日本이 自己必要에서 韓國史를 理解하기 위한 學問의 土臺만이 있었는데 日本의 學問土臺하고 다른 學問土臺를 우리가 닦으면 보다 강한 文化的 主體性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民族系統을 記述하지 않는 事由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敎科書에는 「알타이」語系에 속하는 民族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 놓고 또 貂과 韓이 主體로 해서 이 우리 民族의 構成하는 主流가 되어 왔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그 다음의 歷史展開은 오늘날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先史時代의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물어 보신 뜻을 제가 잘 「캐치」를 못했읍니다.

○陳述人 崔永禧 濊貊族과 韓族이 主體가 되느냐 그런 말입니다.

○陳述人 金哲坡 民族系統을 記述하지 않은 理由 「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같은데……

○李大淳委員 옛날 우리가 國史를 배울 때는 民族史에 관한 설명이 상당히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朴時仁教授도 주장을 했읍니다마는 中學校 高等學校에 있어서 民族史의 系統이 그렇게 명백하게 記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같다 말이지…… 현재의 敎科書 가운데 그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냐……

○陳述人 金哲坡 그렇지 않습니다.

○李大淳委員 그러니까 國史敎科書에서 적어도 古代史에 있어서 民族史의 系統에 대한 것은 밝혀진 대로 줄거리는 우리가 내 놓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점에 대한 내 質問이었읍니다.

○陳述人 崔永禧 지금 李委員님 말씀 잘 알

겠습니다. 또 지적이 된 事項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檀君始祖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몇 年에 어떻게 되었느냐 할 때에 문제가 그러면 新石器時代 舊石器時代는 어떻게 叙述되어야 될 것이냐…… 참 문제입니다. 어린 애들에게 5000年前에 우리가 始祖가 開國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러면 數萬年前 내지 數十萬年前에도 우리가 살았다 하면은 이 사람과 이것을 어떻게 聯關지어 주느냐가 참 힘든 문제입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國民學校…… 그래서 옛날 제가 6.25前의 얘기입니다. 제가 서울師範에서 敎鞭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歷史敎鞭을 잡았읍니다. 그때 檀君始祖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先史時代에서 이것은 數萬餘年前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師範學校 애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러면 5000年前에도 사람이 살았는데 그 밑에서 내려온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民族의 系統도 꽤 복잡한 것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실제로는 여러 다른 異民族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같이 單一民族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굳게 뭉쳐 있는 것인지 실제로는 女眞 뭐 여러가지 피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系統에 대해서는 최종 합시다마는 考古學의인 문제가 있습니다. 舊石器 그러면 20萬年前 人間이 우리 하고 血統이 같은가 또는 無紋土器 그 다음에 빗살무늬土器가 들어온 것과 우리 民族은 어떠한 관계인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지금 內包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高等學校에 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마 내일 金元龍先生님께서 처음에 들어올 때의 여러가지 問題點 거기에서 아마 조금 더 具體的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韓柄索 金哲坡教授님 答辯 끝나셨지요?

○陳述人 金哲坡 예.

○李大淳委員 아까 제가 質問한 것에 대해서 答辯 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제일 먼저 質問한 것 가운데 論爭點中的 하나가 漢四郡의 設置問題였었는데 아까 史記에 근거해서 이것은 漢四郡…… 設置事實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데 반해서 金哲坡教授는 漢四郡設置根據에

대해서 三國時代의 歷史的 使命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셨는데 文獻의 根據의 文獻이 어떤 것이 있느냐?

○陳述人 金哲垓 아까 朴時仁教授가 史記 朝鮮傳에 있는 古朝鮮은 韓半島內에 있는 것이 아니고 北京地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解釋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平壤 大同江까지 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前後 글을 읽어 보면은 압니다. 史記 朝鮮傳이라는 것은 漢武帝가 侵入해온 記錄입니다.

당시 古朝鮮은 靑銅器文化도 있고 鐵器文化도 있지만 鐵器文化가 未熟하던 때인데 漢代에 급속히 발달한 鐵器文化를 배경으로 한 漢이 邊方에 大膨脹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렇게 해서 漢武帝때 侵入해 오고 거기에 樂浪郡 등 四郡을 設置합니다. 그 記事는 史記 朝鮮傳에 나옵니다. 四郡中의 樂浪郡은 極東에 있어서의 貿易基地가 돼요. 南韓地域과 滿洲地域과 나아가서는 倭와 貿易을 하면서 郡밖에 있는 周圍의 部族國家들까지도 經濟的으로 支配하게 됩니다.

古朝鮮이 亡한 뒤에 그 周邊地域에서 高句麗 新羅 百濟가 登場하게 되는데 文獻의 根據라는 것은 史記 朝鮮傳 漢書 朝鮮傳으로 이것은 우리가 否定할 도리가 없고 그 다음에 時代의 魏志東夷傳에서 나타나는 各部族國家들의 生活狀態는 漢郡縣 樂浪郡이나 帶方郡 등 그 郡縣과 떠나서는 있을 수 없을 정도로 緊密한 關係를 가지면서 叙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史記 朝鮮傳이 朝鮮에 대한 侵略記事에만 詳細하였지 郡縣과 周邊 部族國家들과의 關係는 詳細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樂浪郡의 位置가 만일 大同江流域이 아니라 하면 절대로 魏志東夷傳에서 그러한 叙述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樂浪郡은 오래 계속되는데 大武神王 때에 滅한 崔理의 樂浪國은 樂浪郡에 속했던 적은 나라로 解釋이 되는 것이고 美川王 14년에 와서야 高句麗에게 망하게 됩니다. 당시의 貿易路를 보면 中國商人이 먼저 滿洲의 長春과 農安地方에 있었던 北扶餘에까지 먼저 가 가지고 거기에서 輯安縣으로 옵니다. 輯安縣에서는 淸川江을 따라서 平壤으로 내려오는 것과 輯安縣에서 蓋馬高原을 거쳐서 元山灣으로 떨어지는 길이 둘이 있습니다. 이것이 漢四郡 設置 이전의 貿易「루트」예요. 그것을 따

라 들어 와서 古朝鮮까지 侵入한 것이지만은 반대로 高句麗가 일어나면서 輯安縣에서 그 「루트」를 絶斷하니까 樂浪郡에서는 지금 오늘날 京義線쪽으로 本國과 連結하는 새 「루트」를 開拓했는데 美川王때에는 그것까지도 絶斷을 하고 樂浪郡을 占領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樂浪郡 남쪽에 있던 帶方郡을 百濟가 올라가면서 내쫓고 있습니다. 이러한 記錄을 하고 있는 三國史記 資料나 그 魏志東夷傳의 資料 이것이 다 가짜라고 하면 樂浪郡을 否認하는 말이 가능하겠지요. 그 資料가 있고 그 資料를 통해서만 그 당시 三國의 初期의 社會文化를 이해할 수 있는 이상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時間에도 얘기했지만 大同江流域에 있는 考古學的 資料 遺物 遺蹟은 누구의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이것은 韓國것 하고 安全히 系統이 다릅니다. 다른 것을 어떻게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또 樂浪郡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遺蹟이 大同江流域에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韓柄來 다음은 李龍範教授님 答辯해 주세요.

○陳述人 李龍範 아까 저한테는 質問이 없었읍니다마는……

○委員長 韓柄來 없으시면 안 하셔도 좋읍니다.

○陳述人 李龍範 아까 安先生님 하고 두 분 얘기한 것 反駁을 좀 해야 되겠는데……

○委員長 韓柄來 간단하게 李教授님 根據主張만 해주세요.

○陳述人 李龍範 아까 제가 弄談삼아 얘기했읍니다.

다같은 샘의 물을 적어도 소는 젖을 만들고 뱀은 독을 만든다느니 이 史料 읽는 방법이 잘못이예요. 여기에 볼 것 같으면 明一統志朝鮮城在永平府境內相傳箕子受封之地後魏置縣屬北平郡에 있어서…… 이러한 얘기인데 이것이 丁茶山先生도 贊成을 했다…… 그런데 이 丁茶山先生이 贊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엄연히 臣謹按今永平府 이것도 1900年代에 韓國 사람이 이것을 엮을 때에 있는 臣이지 茶山先生의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茶山先生 말이 여기에 丁若鏞曰 해서 맺자 됩니다. 그 다음에 그 丁茶山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것이다 하는 이것은 最近世 사람의 얘기이지 이것을 가지고 천몇백年前의 얘기까지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나 이것도 문제고 아까 滿洲源流考도 또 시끄러운 문제가 있는데요 滿洲源流考도 마찬가지입니다. 19「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보면 引用한 原文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謹按해서 滿洲源流考를 엮은 사람들이 그대로 주장했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이 滿洲源流考를 엮을 적에 그 動機가 不純하다 그런데 이것이 原文이 아닙니다. 滿洲源流考를 엮어서 설명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謹按하는 것까지 本文으로 생각했다가는 아까 安先生 말처럼 되는데 이것도 분명하게 해야지 史料라고 하는 것을 다들 있는 대로 그대로 한테 모아서 이것이 전부 그 당시의 史料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조금 잘못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韓柄來 더 質疑하실 분 계십니까?
朴源卓委員 質疑하세요.

○朴源卓委員 文教部側에다 잠깐 여쭙어 보겠습니다.

國史冊을 이번 쪽 읽어 보았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中學校 高等學校 國史冊 全般의 文章이 전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文章이 안 되었는데 이冊이 나오면은 國文學을 專攻한 분들이 이冊을 한번 監修를 하는지 그것이 의심나네요.

例를 들면 中學校 歷史冊 224「페이지」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日本은 우리의 國防을 담당한 軍事改革은……” 무슨 文章인지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억지로 뜯어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中學校冊입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군데군데 많아요. 文章이 제대로 안 엮어졌다고요. 그래서 이 文章을 좀 다듣는 것도 教育開發院에서나 教材를 만드는 데에서 研究를 해야지 사실 내용이 중요한게 아니라 文章을 풀어봐야 납득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 것입니다. 이 내용을 물어보면 뭐가 된지 한 文章에 主語가 세개 네개 붙어 있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文教部는 이것을 좀 神經을 써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韓柄來 더 이상 質疑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公聽會는 이로써 마칠까 합니다.

여러 委員님들 그리고 陳述人 여러분 長時間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午後 2時부터 公聽會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21時16分 散會)

○出席委員

韓柄來	具龍鉉	金春洙
南載熙	朴源卓	沈相宇
吳制道	李樂薰	李大淳
李寧熙	李潤子	崔昌圭
康源采	金秉烈	金泰洙
辛相佑	李義永	林在正
姜棋弼	朴在旭	金吉俊

○委員아닌出席議員

李建鎬	李鍾贊	鄭熙彩
蔡汶植	高在淸	李東鎭
林德圭		

○出席專門委員

金容鈞

○出席國務委員

文教部長官 李奎浩

○出席政府委員

文教部 鄭泰秀
次官 黃哲秀
獎學編修室長

○政府側參席者

文教部編修總括官 鄭泰範

○其他參席者

韓國教育開發院院長 洪雄善
陳述人
(國史찾기協議會會長) 安浩相
陳述人
(國史編纂委員會委員長) 崔永禧
陳述人
(서울대人文大教授) 朴時仁
陳述人
(서울대人文大教授) 金哲堧
陳述人
(東國大教授) 李龍範